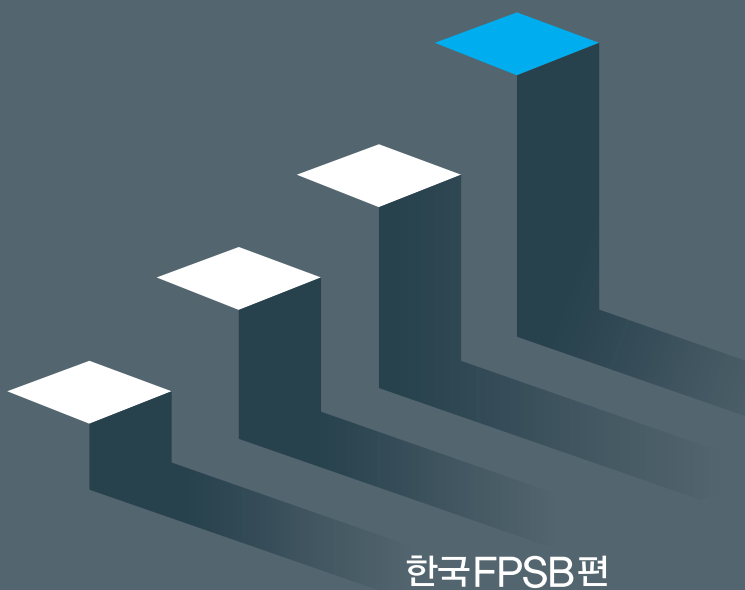


노답 CFP 사례집

(스스로 풀어보는 CFP 사례집)

CFP® Professional Certificate



한국FPSB 편

일러두기

① 재무계산기의 TVM키

- PV, FV, PMT, n, i의 순서로 표기하며 n과 i는 소문자로 표기
예) 100[PV], 1[n], 5[i], FV = 105
- 계산기의 표기 부분에서는 → 표 사용
예) → [BEG], 77,850.95[PMT], 25[n], $(1.07/1.04-1) \times 100[i]$, PV = 1,412,837.43

② 재무계산기의 Cash Flow키

- 현금흐름은 [CFn]으로 하며 n은 아래첨자, 횟수는 세미콜론(;) 다음에 표기하며 횟수가 1회일 경우에는 횟수를 표시하지 않음
예) -10,000[CF₀], 1,000[CF₁];10, 2,000[CF₂]

③ TVM과 Cash Flow의 금액 계산 시 현금유입과 유출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기 표기에서 (+) 또는 (-)를 표시하지 않음

- 예) 100[PV], 50[PMT], 1[n], 5[i], FV = 155
-100[PV], 50[PMT], 1[n], 5[i], FV = 55

④ 기말급 또는 기시급 표기

- 기말급일 경우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으며, 기시급일 경우 [BEG] 표기
기말급 예) 100[PMT], 1[n], 5[i], FV = 100
기시급 예) [BEG], 100[PMT], 1[n], 5[i], FV = 105

⑤ 저축과 수입 및 비용의 유출 및 유입 시기

- 재무설계에서 계산의 기본원칙은 보수적으로 가정함. 즉,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저축과 투자는 기말급으로 계산하며, 연금의 수급은 기시에 수급하고 필요자금은 기시에 지출됨. 그리고 대출이자는 월말(기말)에 지급됨

⑥ 금액의 표기

- 계산식의 경우 금액 단위를 표기하지 않으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
예) FV = 156,371.156 → FV = 156,371.16
- (천)원 단위의 경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천) 원 단위로 표기
예) 156,371.56천 원 → 156,372천 원
156,371.16천 원 → 156,371천 원
- 금액의 단위는 중간 계산에서 별도로 명기하지 않고 최종 값을 구할 때만 표기
예) $10,000 \times 10\% + 1,000 = 2,000$ 천 원

⑦ 나이의 표시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나이는 만 나이이며, 시점은 나이의 기시시점으로 가정
예) 현재 40세 고객의 은퇴나이가 65세일 경우: 현재는 40세 초 시점이고 은퇴는 65세(64세 말)가 되었을 때 하는 경우이므로 은퇴까지의 기간은 25년이 됨

예) 65세에 은퇴해서 90세에 사망하는 경우: 은퇴는 65세 초 시점이고 90세(89세 말)가 되었을 때 사망하므로 은퇴기간은 25년이 됨

⑧ 투자상품 투자수익률의 표시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투자수익률은 연복리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 별도 표기함

예) 연 6.0% 연복리인 경우: 연 6.0%

연 6.0% 월복리인 경우: 연 6.0% 월복리

⑨ 금융자산의 평가

- 과세이연 금융자산의 평가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과세이연 금융자산은 주어진 당해 계정의 투자수익률로 부리됨
 - 중도인출 시 세후평가는 세전평가금액에서 산출세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 비과세 금융자산의 평가
 - 비과세 상품은 각 상품의 세후투자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

⑩ 투자상품의 투자기간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해당 나이의 기시시점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

예) 정기예금을 35세에 가입하고 40세에 해지하는 경우 35세 초에 가입하고 40세 초에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투자기간은 5년이 됨

⑪ 제공 정보

-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감안하지 않음. 예를 들어
 -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사례의 고객은 거주자이고 장애인이 아님

- 증여나 양도의 경우 금번 증여나 양도 외 다른 정보가 없으면 다른 증여나 양도는 없음
- 장례비의 경우 특별한 정보가 없으면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비용은 없음
- 법인의 경우 특별한 정보가 없으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님
- 기타 이와 유사한 내용
-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적인 것으로 함. 예를 들어
 - 보험계약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함
 - 세금설계 및 상속설계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함
 - 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과 동일함
 - 부동산자산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등기자산 임
 - 기타 이와 유사한 내용

⑫ 용어의 표현: 현재가치, 미래가치, 현재물가기준 가치, 올해 등

-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용어의 표현은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기술하나 문구에 따라 일부 혼용할 수 있음
 - 예) 물가상승률 3.0%, 세후투자수익률 5.0%, 현재 1,000천 원을 투자하고 있고 10년 뒤 은퇴하는 경우
 - 물가로 증액시킨 경우의 10년 뒤 가치: (원칙) 은퇴시점 물가기준 가치(경우에 따라 ‘은퇴시점의 미래가치’)
 - 세후투자수익률로 증액시킨 경우의 10년 뒤 가치: 은퇴시점의 미래가치 또는 은퇴시점의 평가액
 - 예) 물가상승률 3.0%, 세후투자수익률 5.0%, 10년 뒤 은퇴시점에 1,000천 원이 필요한 경우
 - 물가로 할인한 경우의 가치: (원칙) 현재물가기준 가치(경우에 따라 ‘현재가치’)
 - 세후투자수익률로 할인한 경우의 가치: 현재가치 또는 현재시점의 평가액
- 특별한 연도의 표기 없이 ‘올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교재발간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함
 - 예) 올해 초에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 교재발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초에 아파트를 구입함
 - 예) 올해 4월 5일에 증여하였다.
 - 교재발간일이 속하는 연도의 4월 5일에 증여한 것임

⑬ 계산문제의 풀이방식

- 계산문제의 풀이방식은 크게 TVM 방식과 Cash Flow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예) 현재물가기준으로 연간 필요 은퇴소득이 48,000천 원이고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이 연간 21,000천 원, 은퇴까지 남은 기간 27년, 은퇴기간 25년, 세후투자수익률 연 7.0%, 물가상승률 연 4.0% 인 경우 은퇴 시 필요한 총은퇴일시금의 계산

(풀이1: TVM 방식)

- 연간 은퇴소득 부족액: $48,000 - 21,000 = 27,000$ 천 원
- 연간 은퇴소득 부족액의 은퇴시점물가기준 가치
→ $27,000[PV], 27[n], 4[i], FV = 77,850.95$
- 은퇴 시 필요한 총은퇴일시금(은퇴시점물가기준): 1,412,837천 원
→ $[BEG], 77,850.95[PMT], 25[n], (1.07/1.04-1) \times 100[i], PV = 1,412,837.43$

(풀이2: Cash Flow 방식1)

- $0[CF_0], 0[CF_1]; 26, 27,000[CF_2]; 25, (1.07/1.04-1) \times 100[i], NPV = 227,368.45$ 천 원
- 은퇴 시 필요한 총은퇴일시금: 1,412,837천 원
→ $227,368.45[PV], 27[n], 7[i], FV = 1,412,837.45$

(풀이3: Cash Flow 방식2)

- $27,000[CF_0], 27,000[CF_1]; 24, (1.07/1.04-1) \times 100[i], NPV = 489,995.44$ 천 원
- 은퇴 시 필요한 총은퇴일시금: 1,412,837천 원
→ $489,995.44[PV], 27[n], 4[i], FV = 1,412,837.45$

⇒ 사례집 교재에서는 문제에 따라 상기 풀이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방법 표기

⑭ 소득의 귀속 및 세율의 적용 등

-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은 교재 발간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이며, 세율과 제도 등도 교재 발간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율과 제도를 적용함

예) 아래와 같은 경우 홍길동 씨의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

- 연도가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은 교재 발간일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소득이며 세율과 제도 등은 교재 발간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율과 제도를 적용하여 계산함

15 정답

- 문제의 정답은 계산 값에서 가장 가까운 값으로 함

참고정보

①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6%	과세표준×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1,400만 원 초과액의 15%	과세표준×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5,000만 원 초과액의 24%	과세표준×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8,800만 원 초과액의 35%	과세표준×35%-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06만 원+1억 5천만 원 초과액의 38%	과세표준×38%-1,991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9,406만 원+3억 원 초과액의 40%	과세표준×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억 7,406만 원+5억 원 초과액의 42%	과세표준×42%-3,594만 원
10억원 초과	3억 8,406만 원+10억 원 초과액의 45%	과세표준×45%-6,594만 원

②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과세표준×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과세표준×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과세표준×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과세표준×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과세표준×50%-4억 6천만 원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토지·건물		1세대 1주택 ^{주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주2)}	8%
4년 이상 5년 미만	8%			3년 이상 4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6%
6년 이상 7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20%
7년 이상 8년 미만	14%	6년 이상 7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24%
8년 이상 9년 미만	16%	7년 이상 8년 미만	28%	7년 이상 8년 미만	28%
9년 이상 10년 미만	18%	8년 이상 9년 미만	32%	8년 이상 9년 미만	32%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9년 이상 10년 미만	36%	9년 이상 10년 미만	36%
11이상 12년 미만	22%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12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주1)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보유기간별 공제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액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

주2)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④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대비 소득공제

근속 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 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근속연수-20년)

⑤ 퇴직소득세 계산시 환산급여 대비 소득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520만 원+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6,170만 원+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5,170만 원+3억 원 초과분의 35%

⑥ 연금소득공제액(최대 900만 원 한도)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350만 원 초과금액×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700만 원 초과금액×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1,400만 원 초과금액×10%

⑦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출생년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차 례

제1장

단일사례

I. 재무설계 원론	4
II.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16
III. 투자설계	31
IV. 부동산설계	46
V. 은퇴설계	61
VI. 세금설계	83
VII. 상속설계	99

제2장

복합사례

I. 복합사례 I	114
II. 복합사례 II	127
III. 복합사례 III	141
IV. 복합사례 IV	156
V. 복합사례 V	172
VI. 복합사례 VI	188

제3장

종합사례

I. 종합사례 I	204
II. 종합사례 II	228

제4장

모의테스트

I. 단일사례	254
II. 복합사례 I	272
III. 복합사례 II	288
IV. 종합사례 I	301
V. 종합사례 II	328

단일사례

제 1 장

I. 재무설계 원론.....	4
II.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16
III. 투자설계.....	31
IV. 부동산설계.....	46
V. 은퇴설계.....	61
VI. 세금설계.....	83
VII. 상속설계.....	99

제 | 절

재무설계 원론

1. 다음의 명목금리를 연 단위 실효금리로 비교하였을 때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가. 연 6.00% 연복리

나. 연 5.90% 월복리

다. 연 5.95% 분기복리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나 > 가

2. 박광규 씨는 3년 후 20,000천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저축을 하고자 한다. 두 가지 저축 방법의 최초 1년 동안 저축할 금액을 비교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A안: 지금부터 3년간 매년 초 2.0%씩 증액저축
- B안: 지금부터 3년간 매월 초 정액저축
- 세후투자수익률: 연 3.0%(A안 및 B안 모두 동일)
- ※ B안의 연간 저축액은 '월 저축액×12'로 계산함

- ① 최초 1년간 저축액은 A안이 B안보다 170천 원 많다.
- ② 최초 1년간 저축액은 B안이 A안보다 207천 원 많다.
- ③ 최초 1년간 저축액은 B안이 A안보다 254천 원 많다.
- ④ 최초 1년간 저축액은 B안이 A안보다 305천 원 많다.
- ⑤ 최초 1년간 저축액은 B안이 A안보다 457천 원 많다.

3. 다음 '가'와 '나'의 만기 금액 차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세금 및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 가. 10년간 매월 초 800천 원씩 정액으로 연 5.5% 연복리 상품에 투자한 경우의 만기 금액
 나. 66,822천 원을 연 6.0% 분기복리 상품에 10년간 투자한 경우의 만기 금액

- | | | |
|--------------|--------------|--------------|
| ① 약 5,472천 원 | ② 약 5,840천 원 | ③ 약 6,039천 원 |
| ④ 약 6,303천 원 | ⑤ 약 6,974천 원 | |

4. 이정훈 씨는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이정훈 씨가 주택 구입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구입 예정 주택가격(현재물가기준): 500,000천 원
- 현재 주택구입을 위해 모아둔 금액: 100,000천 원
- 부족자금 마련 방법
 - 구입 예정 주택가격의 40%는 주택구입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조달함
 - 나머지 부족자금은 지금부터 5년간 매년 말 주택가격상승률만큼 증액하여 투자함
- 주택가격상승률: 연 5.0%

- 세후투자수익률: 연 8.0%
- ※ 주택가격은 매년 주택가격상승률만큼 상승함

- ① 약 34,922천 원 ② 약 36,668천 원 ③ 약 59,501천 원
- ④ 약 72,700천 원 ⑤ 약 76,335천 원

5. 다음의 투자 안들은 현재 100,000천 원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 안은? (단, 세금 및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 ① 100,000천 원을 투자하여 5년 후 130,000천 원을 받는다.
- ② 100,000천 원을 투자하여 투자 즉시 5,000천 원을 시작으로 매년 초 5,000천 원씩 정액으로 영구히 받는다.
- ③ 100,000천 원을 투자하여 매년 말 13,000천 원씩 정액으로 10년간 받는다.
- ④ 100,000천 원을 투자하여 투자한 첫해 말 9,000천 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말 3%씩 증액된 금액을 15년간 받는다.
- ⑤ 100,000천 원을 투자하여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최초 8,000천 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초 4%씩 증액된 금액을 20년간 받는다.

6.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박소라 씨의 재무상태 분석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단, 자산 관련 평가금액은 자산부채상태표 작성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평가금액이며, '가~라'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재무상태표 작성을 위한 정보〉

- 금융자산 관련 현황
 - 보통예금 평가금액: 2,250천 원
 - CMA 평가금액: 3,620천 원
 - 적립식펀드 평가금액: 8,000천 원
 - 정기예금 평가금액: 2,000천 원
- 부동산 관련 현황
 - 현재 거주 중인 주택A(사용자산) 평가금액: 500,000천 원
 - 5년 전 주택A 구입 시 300,000천 원의 대출(대출기간 20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4.0% 월복리)을 받았으며, 2023년 12월 말까지 60회차 상환

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금액은 270,000천 원보다 크다.

나. 박소라의 연간 총소득이 60,000천 원인 경우 박소라의 주거관련부채비율은 40.0% 미만이다.

다. 재무상태표상 저축성자산 금액은 7,870천 원이다.

라. 비상예비자금지표 분석 시 박소라가 보유한 유동자산(현금성자산+저축성자산)은 15,870천 원이다.

- ① 가 ② 가, 나 ③ 다, 라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라

7. 최승환 씨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의 전환을 고민 중이다. 현재의 대출은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인 데 반해, 신규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상품을 변경할 경우 남은 대출기간(15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비용의 차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대출 전환에 따른 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 기존대출
 - 현재 대출잔액: 100,000천 원
 - 남은 대출기간: 15년
 -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3.6% 월복리
 - 대출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매월 말 이자상환)
- 신규대출 조건
 - 대출금액: 100,000천 원
 - 대출기간: 15년
 -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2.5% 월복리
 - 대출상환 방식: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① 약 20,022천 원 감소 ② 약 33,978천 원 감소 ③ 약 37,440천 원 감소
 ④ 약 20,022천 원 증가 ⑤ 약 33,978천 원 증가

8. 장승환 씨는 7년 전 주택A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2023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납부한 원리금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은 얼마인가?

- 장승환은 2017년 1월 초 주택A를 매수하였으며,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200,000천 원 받음
- 대출은 3년간 거치(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말 이자만 납부) 후 17년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임
-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5.5% 월복리
-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말 이자만 납부하였으며, 거치기간 종료 후 2023년 12월 말까지 원리금 48회차 상환

- ① 약 8,627천 원 ② 약 9,240천 원 ③ 약 10,248천 원
 ④ 약 11,874천 원 ⑤ 약 12,587천 원

9.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LTV는 70%에서 50%로, DTI는 50%에서 40%로 하향조정되었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한만혁 씨가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A 담보대출의 규제 강화 전·후의 최대 대출금액의 차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규제강화 전·후의 시차는 없다고 가정함)

- 주택A의 가격: 500,000천 원
- 한만혁의 연소득: 48,000천 원
- 대출조건
 -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4.0% 월복리
 - 대출기간 20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LTV와 DTI 기준에 따른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대출금액 산정

- ① 약 66,000천 원 ② 약 76,000천 원 ③ 약 80,000천 원
 ④ 약 86,000천 원 ⑤ 약 100,000천 원

10. 김정도 씨는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제안 받았다. 해당 투자안의 수정내부수익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보증금, 대출, 세금 및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 상가 매입가격은 1,500,000천 원임
- 임대료는 매년 말 발생하며, 첫해 말 50,000천 원 수량이 가능하고 투자기간 동안 매년 말 2.0%씩 증가 예상
- 임대료는 연 7.0% 수익이 예상되는 금융상품에 재투자할 예정임
- 상가 보유기간은 5년이며, 5년 후 1,700,000천 원에 매각 예정

- ① 연 5.71% ② 연 5.91% ③ 연 5.97% ④ 연 6.12% ⑤ 연 6.53%

11. 이장원(40세) 씨는 65세에 은퇴할 계획이며, 은퇴생활비 마련을 위해 A상품에 투자하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A상품(연복리 상품임)이 매년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세후투자수익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상품 투자
 - 지금부터 15년간 매년 말 10,000천 원씩 정액으로 투자한 다음 10년간 거치함
- 이장원의 은퇴기간: 본인 나이 65세부터 30년간
- 이장원이 목표로 하는 은퇴생활비(현재물가기준): 연 20,000천 원
- 은퇴기간 동안의 세후투자수익률: 연 4.0%
- 물가상승률: 연 2.0%(은퇴 전·후 동일)
- A상품의 투자기간과 거치기간 동안의 세후투자수익률은 동일함
- ※ 은퇴생활비는 매년 초 지출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됨

- ① 약 연 6.21% ② 약 연 6.57% ③ 약 연 8.31%
 ④ 약 연 8.97% ⑤ 약 연 9.47%

12. 이병수 씨는 두 자녀 이민우(7세), 이소영(2세)의 대학교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지금부터 투자하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이병수 씨가 매월 투자해야 하는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녀교육 관련 정보
 - 이민우 및 이소영은 각각 본인 나이 19세에 국내 4년제 대학에 입학함
 - 대학교 교육비: 이민우 및 이소영 각각 현재물가기준으로 연간 12,000천 원씩 연속된 기간 동안 4회 필요
 - 교육자금을 위한 투자
 - 이병수는 두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지금부터 12년간 매월 말 정액으로 세후투자수익률 연 6.0% 상품에 투자함
 - 12년간 투자한 적립금은 세후투자수익률 연 4.0% 상품에 예치하고, 두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가 필요한 시점마다 인출하여 사용함
 - 물가상승률: 연 2.0%
- ※ 대학교 교육비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며 매년 초 필요

① 약 543천 원

② 약 581천 원

③ 약 602천 원

④ 약 657천 원

⑤ 약 712천 원

13. 이상우 씨는 5년 뒤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 창업을 위한 비용은 현재물가기준으로 400,000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우 씨가 현재 준비 중인 창업 준비자금이 다음과 같을 때 창업시점에서의 부족자금과 부족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매월 말 정액으로 투자할 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 현재 준비 중인 창업 준비자금
 - 거치식펀드: 현재 평가액 200,000천 원, 세후투자수익률 연 7.0%
 - 적립식펀드: 지금부터 매월 말 1,000천 원씩 정액으로 투자함, 세후투자수익률 연 5.0% 월복리
 - 부족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 투자액에 대한 세후투자수익률: 연 6.0% 월복리
 - 물가상승률: 연 2.0%
- ※ 창업자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며, 금융상품은 창업 시까지 계속 투자함

	창업시점에서의 부족자금	추가적으로 매월 말 투자할 금액
①	약 51,484천 원	약 738천 원
②	약 51,484천 원	약 1,240천 원
③	약 93,116천 원	약 1,335천 원
④	약 93,116천 원	약 1,369천 원
⑤	약 102,092천 원	약 1,463천 원

14. 이형우 씨는 아들 이민우(20세)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형우 씨가 다음과 같이 투자하는 경우 올해 말 투자해야 하는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녀결혼 관련 정보
 - 예상 결혼 연령: 이민우 나이 34세
 - 결혼비용: 현재물가기준으로 200,000천 원 필요
 - 결혼비용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
 - 이형우는 지금부터 10년간 매년 말 3.0%씩 증액하여 투자하고 자녀결혼 시점까지 거치함
 - 투자기간 동안의 세후투자수익률: 연 6.0%
 - 거치기간 동안의 세후투자수익률: 연 4.0%
- 물가상승률: 연 2.0%

① 약 11,475천 원

② 약 14,701천 원

③ 약 15,142천 원

④ 약 19,757천 원

⑤ 약 20,349천 원

15. 김영희 씨는 금융기관에 목돈을 맡겨두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찾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실제 상품 금리가 예상보다 낮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가,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단, 최초 계획 시점과 실제 상품 가입 시점 사이에 시차는 없으며, 세금 등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최초 계획〉

- 준비자금: 500,000천 원
- 수령기간: 20년
- 수령방법: 지금부터 매월 초 동일한 금액을 수령기간 동안 인출하며 수령기간 종료 시 잔액은 없음
- 금리: 연 4.0% 월복리

〈실제 상품〉

- 금리: 연 2.0% 월복리

가. 실제 상품 가입 시 최초 계획했던 것과 동일한 금액을 지금부터 매월 초 인출할 경우 준비자금이 소진되는 소요시간은 최초 계획에 비해 얼마나 줄어드는가?

나. 실제 상품 가입 시 최초 계획했던 것과 동일한 기간(20년) 동안 매월 초 같은 금액을 수령하려면 김영희 씨는 현재 추가로 얼마를 더 준비해야 하는가?

	가	나
①	약 36개월	약 87,180천 원
②	약 36개월	약 90,180천 원
③	약 46개월	약 93,180천 원
④	약 46개월	약 97,938천 원
⑤	약 94개월	약 97,938천 원

제 II 절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1. 신주환(40세) 씨가 현재 시점에서 일반사망 한다고 가정할 경우 생애가치법을 통해 산출된 추가적인 생명보험 필요보장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주환 평균연봉: 60,000천 원
- 생활비: 평균연봉의 30%
- 예상정년: 59세 말 까지 근무 가능
- 연봉은 매년 말에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할인율은 연 5.0%를 적용함
- 보험가입정보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시 주계약에서 100,000천 원,
60세 만기 정기특약에서 50,000천 원이 지급됨

① 약 368,413천 원

② 약 373,413천 원

③ 약 394,583천 원

④ 약 423,413천 원

⑤ 약 597,733천 원

2.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김연우 씨가 2024년 1월 초 현재 사망 시 니즈분석방법에 따른 추가적인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부양가족의 생활비 계산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반영함)

현재 40세인 김연우는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인은 40세로 전업주부이며 8살 된 아들과 6살이 된 딸이 있다. 김연우 가정의 현재 연간 생활비는 50,000천 원이다.

〈유가족의 필요자금〉

- 김연우 사망에 따른 사후정리자금: 20,000 천 원
-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김연우 사망 시 전액 상환)
 - 김연우 부부는 7년 전 주택구입 시 200,000천 원의 대출(대출기간 20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3.5% 월복리)을 받았으며, 2023년 12월 말까지 84회차 상환
- 김연우의 배우자 사망 시까지의 유족 생활비
 - 막내 자녀 독립(26세에 독립함) 전: 현 생활비의 80%
 - 막내 자녀 독립 후: 현 생활비의 60%
 - 김연우의 배우자는 89세 말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함

〈준비자금〉

- 정기예금: 10,000천 원
- 적립식편드: 30,000천 원
- 김연우의 종신보험(피보험자 김연우) 사망보험금: 200,000천 원
- 김연우 사망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김연우 사망시점부터 현재물가기준으로 연 5,000천 원이 지급됨(유족연금의 지급정지는 없다고 가정함)

〈경제지표 가정〉

• 물가상승률: 연 3.0%

• 세후투자수익률: 연 6.0%

※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액은 고려하지 않음

※ 유족 생활비는 매년 초 필요하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매년 초 수령하며, 유족 생활비와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됨

① 약 658,875천 원

② 약 681,548천 원

③ 약 702,587천 원

④ 약 752,665천 원

⑤ 약 815,248천 원

3. 김미선(35세) 씨는 20년 동안 사망보험금 100,000천 원을 보장받는 보험이 필요하다. 상품 조사결과 해약환급금이 있는 종신보험과 해약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김미선 씨의 선택을 돕기 위해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저축금액을 산출한 후 정기보험의 보험료와 더한 금액을 종신보험의 보험료와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망보장 100,000천 원의 종신보험 보험료(20년납)는 연간 2,500천 원이며, 20년 경과시점의 해약환급금은 45,000천 원으로 예상됨
- 사망보장 100,000천 원의 정기보험 보험료(20년 만기, 전기납)는 연간 500천 원이며, 해약환급금은 없음
- 저축금액 산출을 위해 지금부터 20년간 매년 말 정액으로 세후투자수익률 연 5.0% 상품에 저축함

- ① 연간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연간 정기보험 보험료와 연간 저축금액의 합계액보다 583천 원 더 적다.
- ② 연간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연간 정기보험 보험료와 연간 저축금액의 합계액보다 670천 원 더 적다.
- ③ 연간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연간 정기보험 보험료와 연간 저축금액의 합계액보다 386천 원 더 많다.
- ④ 연간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연간 정기보험 보험료와 연간 저축금액의 합계액보다 639천 원 더 많다.
- ⑤ 연간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연간 정기보험 보험료와 연간 저축금액의 합계액보다 704천 원 더 많다.

4. 박예은 씨는 생명보험 보장액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고 생명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 다음 A생명 종신보험과 B생명 종신보험의 벨쓰방식에 의한 단위 보험금액 100천 원당 코스트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단, 박예은 씨와 자격인증자가 정한 이자율은 연 4%이며, A생명은 유배당, B생명은 무배당 상품임)

구분	A생명 종신보험	B생명 종신보험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000천 원	100,000천 원
당해 보험연도 말의 해약환급금	7,500천 원	7,200천 원
직전 보험연도 말의 해약환급금	6,240천 원	5,950천 원
연간 납입보험료	1,800천 원	1,620천 원
연간 배당금	150천 원	-

	A생명 종신보험	B생명 종신보험
①	77원	73원
②	180원	162원
③	750원	720원
④	769원	725원
⑤	932원	725원

5. A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상 주택화재로 지급될 보험금은 얼마인가?

- 보험가입내용
 - 보험가액: 300,000천 원
 - 보험가입금액: 120,000천 원
- 화재로 인한 손해액 및 비용
 - 재산손해액: 40,000천 원
 - 잔존물 제거비용: 10,000천 원
 - 손해방지비용: 5,000천 원
 - 기타협력비용: 5,000천 원

- ① 27,000천 원 ② 29,000천 원 ③ 30,000천 원
 ④ 31,500천 원 ⑤ 32,500천 원

6. 이정후 씨는 공장 건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300,000천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3개월 후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에 대한 재산손해액 380,000천 원, 잔존물 제거비용 30,000천 원, 손해방지비용 5,000천 원, 기타협력비용 5,000천 원이 발생하였다. 화재보험 보통약관상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보험가액은 400,000천 원임)

- ① 308,750천 원 ② 315,570천 원 ③ 384,840천 원
 ④ 408,460천 원 ⑤ 420,100천 원

7. 4인 가족의 가장인 길형인 씨는 신축된 지 2년 경과한 122.1㎡의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길형인 씨는 연봉 60,000천 원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구조의 20층짜리 아파트이다.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새로 장만한 가구가 많고 고가품도 많다(주택종류상 '상' 으로 분류). 다음 간이건물신축단가표와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를 위한 항목별 기준액 및 가중치를 활용하여 길형인 씨의 아파트 및 가재도구에 대한 간이 보험가액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 아파트와 가재도구의 현재가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간이 건물신축단가표〉

용도	구조	㎡당 단가 (천 원)	경년 감가율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5층 이하)	624.24	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6~14층)	627.27	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15층 이상)	642.42	1%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를 위한 항목별 기준액 및 가중치〉

구분	주택종류	주택규모	가족 수	월평균수입
고객상황	아파트(상)	115.5~132㎡	3~4인	4,500~5,500천 원
금액(천 원)	14,454	17,057	11,326	39,506
가중치(%)	11.80	29.99	19.81	38.40

	건물	가재도구
①	75,058천 원	17,057천 원
②	76,871천 원	24,235천 원
③	77,655천 원	31,511천 원
④	78,440천 원	82,340천 원
⑤	78,440천 원	24,235천 원

8. 이승민 씨의 창고에는 상품 및 재고품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판매상황에 따라 재고품은 매월 변동이 있다. 이러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재고품을 실제 재고가액으로 보상받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재고가액통지특별약관을 추가하여 가입하였다. 보험가입 후 매월 정해진 시기에 재고가액을 통지해왔으나 마침 기일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이승민 씨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재고가액통지특별약관의 보험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험 및 보험사고 관련 정보〉

- 보상한도액: 1,200,000천 원
- 손해액: 200,000천 원
- 최종통지 재고가액: 700,000천 원
- 최종통지 재고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 재고가액: 1,000,000천 원
- 사고시점의 실제 재고가액: 1,500,000천 원

- ① 52,000원 ② 93,333천 원 ③ 113,333천 원
 ④ 140,000천 원 ⑤ 160,000천 원

9.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한종국이 증여받은 상가A와 관련된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상가A 관련 정보〉

- 한종국이 증여받아 소유 중인 상가A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에 해당함
- 한종국 소유 상가A의 임차인은 상가A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식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 ① 한종국은 상가A에 대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 ② 상가A 임차인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 ③ 한종국이 상가A에 대해 특수건물화재보험 보통약관 가입 시 화재로 인한 소방손해나 피난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 ④ 상가A 임차인이 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임차한 부동산의 화재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 ⑤ 한종국이 상가A에 대해 장기화재보험 가입 시 1회의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이면 몇 번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을 수 있다.

10.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 약관상 박영민 씨에게 지급되는 후유장해보험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박영민은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여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평가율) 60%의 판정을 받았음
 - 사고일: 2024년 5월 10일
 - 박영민의 과실비율: 30%
 - 박영민의 인적사항
 - 연령: 37세(취업가능월수: 324개월)
 - 월평균 현실소득액: 4,500천 원
 - 적용 호프만계수: 204.7727
- ※ 상대방 가해 승용차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되어 있음

① 약 403,085천 원

② 약 452,078천 원

③ 약 552,886천 원

④ 약 575,836천 원

⑤ 약 661,099천 원

11. 김정현 씨는 노년의 장기개호상태에 대비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자 한다. CFP® 자격인증자로부터 제안받은 상품은 100세가 될 때까지 개호상태 발병 즉시 정액으로 30,000천원씩 매년 초 3년간 지급하는 조건이다. 김정현 씨가 해당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시점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금액(일시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호비용 관련 정보〉

- 김정현은 현재 45세로 89세 말까지 45년간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개호상태 예상기간: 본인이 사망하기 5년 전(85세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 개호상태 발생 시 필요비용(현재물가기준): 연 20,000천 원
 - 세후투자수익률: 연 5.0%
 - 개호비용상승률: 연 3.0%
- ※ 개호비용은 매년 초 필요하며, 매년 개호비용상승률만큼 상승함

- ① 약 25,232천 원 ② 약 32,419천 원 ③ 약 39,523천 원
 ④ 약 177,633천 원 ⑤ 약 228,229천 원

12.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오영훈(40세) 씨가 오늘 일반사망 시 유가족들이 유동자산만으로 실질적인 가계지출(부양비)을 유지하며 생활 가능한 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연간 가계지출: 50,000천 원(오영훈 본인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10,000천 원 포함)
 - 유동자산
 - 종신보험: 일반사망 시 주계약에서 200,000천 원, 60세 만기 정기특약에서 50,000천 원이 지급되며, 59세 말까지 재해사망 시 100,000천 원이 추가로 지급됨
 - 정기예금: 27,080천 원
 - 대출현황: 현재 주택담보대출 미상환 잔액 100,000천 원(오영훈 사망 시점에 전액 상환)
 - 세후투자수익률: 연 5.0%
 - 물가상승률: 연 2.0%
- ※ 부양비는 매년 초 필요하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함

- ① 1년 초과~2년 이하 ② 3년 초과~4년 이하 ③ 4년 초과~5년 이하
 ④ 6년 초과~7년 이하 ⑤ 9년 초과~10년 이하

1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정민 씨는 상가를 상속받음에 따라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국민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가. 이정민의 연간 보수외소득이 48,000천 원 미만인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나. 만약 이정민의 연간 보수외소득(상가 임대사업소득)이 50,000천 원이라면 이정민의 소득월액보험료는 88,625원이다.
다. 이정민에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정민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라. 이정민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의 1/12을 매월 보수월액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 이정민의 건강보험료율은 7.09%임

- ① 다 ② 가, 나 ③ 다, 라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라

14. 다음 사례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이영희는 2024년 6월 생명보험의 종신보험계약(무진단 계약, 수익자: 이영희)을 청약하였고,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였다.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가. 이영희는 청약 시 지정한 보험수익자를 계약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

나. 이영희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않음)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 이영희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 이영희의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법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영희는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6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15. 다음 사례에서 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김지영은 2018년 1월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고 있던 중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2024년 7월 보험료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였다.

- ①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 ②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 ③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김지영의 보험계약 부활청구 가능 최대 기간은 해지된 날부터 1년 이내이다.
- ④ 김지영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경우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 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김지영이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더라도 김지영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Ⅲ절

투자설계

1. 증권시장선(SML)을 이용하여 주식 A~C 중에서 펀드 편입대상을 선정하려고 한다. 투자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단,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의 차이가 큰(+) 주식의 우선순위가 높음]

구분	수익률의 표준편차	주식시장과의 상관계수	기대수익률
A	15.0%	0.70	10.5%
B	20.0%	0.90	13.0%
C	10.0%	0.75	7.5%

※ 무위험수익률 3%,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 10%, 주식시장 수익률의 표준편차 15%

- ① A > B > C ② A > C > B ③ B > A > C ④ B > C > A ⑤ C > B > A

2. 자산 A,B,C의 기대수익률, 표준편차와 각 자산 사이의 상관계수가 다음과 같다. 세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 9.0%이고, 자산C의 투자비중이 20%인 경우 자산A의 투자비중과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기대수익률	표준편차	상관계수		
			A	B	C
A	4.0%	0.0%	1.0	-	-
B	10.0%	8.0%	0.0	1.0	-
C	20.0%	15.0%	0.0	0.2	1.0

	자산A의 투자비중	포트폴리오 표준편차
①	20%	4.2%
②	30%	4.2%
③	30%	5.6%
④	50%	4.2%
⑤	50%	5.6%

3. 다음 4년에 걸친 주식투자 내역을 고려할 때 금액가중수익률과 기하평균 시간가중수익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금액 단위: 원)

시점 (기간 말)	투자자금 증감	1주당 가격	투자주식 증감 수	주식 잔고수량
0	5,000,000	10,000	500	500
1	4,750,000	9,500	500	1,000
2	2,200,000	11,000	200	1,200
3	-4,750,000	9,500	-500	700
4		11,000	-700	

※ 배당금은 없다고 가정하며, 4년 말 시점에서 투자자금은 주식을 매도하여 전액 회수함

	금액가중수익률	시간가중수익률
①	약 1.45%	약 2.14%
②	약 1.45%	약 2.41%
③	약 1.87%	약 2.41%
④	약 2.41%	약 2.14%
⑤	약 2.41%	약 1.87%

4.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A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주식의 수익률 확률 분포는 정규분포 형태를 나타낸다고 가정함)

〈A주식 관련 정보〉

- A주식의 기대수익률(평균값): 5.0%
- A주식 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 5.0%

참고: 정규분포 확률의 계산

- 평균 $\pm$ (1 $\times$ 표준편차): 약 68%
- 평균 $\pm$ (2 $\times$ 표준편차): 약 95%
- 평균 $\pm$ (3 $\times$ 표준편차): 약 99%

- ① A주식의 실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50%이다.
- ② A주식의 실제 수익률이 15% 이상이 될 확률은 약 16%이다.
- ③ A주식의 실제 수익률이 -1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약 2.5%이다.
- ④ A주식의 실제 수익률이 -5~15% 구간에 있을 확률은 약 68%이다.
- ⑤ A주식의 실제 수익률이 0~10% 범위를 벗어날 확률은 약 32%이다.

5. 원화와 달러화 간의 현물환율이 1,200원/\$이며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예상될 때, 1년 후의 원/달러 환율의 기대치를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에 따라 각각 계산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한국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율	4.0%	1.0%
명목이자율	5.0%	3.0%

	구매력평가설	이자율평가설
①	1,236원/\$	1,223원/\$
②	1,256원/\$	1,233원/\$
③	1,266원/\$	1,243원/\$
④	1,276원/\$	1,253원/\$
⑤	1,286원/\$	1,263원/\$

6.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정률성장배당할인모형으로 계산한 K전자의 적정주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K전자 관련 정보
 - 배당성향: 40%
 - 자기자본이익률(ROE): 10%
 - 금년도 배당금(D0): 2,000원/주
 - K전자 주식의 베타계수: 1.2
-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 10%
- 무위험수익률: 3.0%

- ① 약 28,600원 ② 약 37,037원 ③ 약 39,259원
 ④ 약 41,500원 ⑤ 약 44,402원

7. A기업에 대한 다음 자료를 참고로 계산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기업 관련 정보〉

- 부채 비중: 40%, 우선주 비중: 10%, 보통주 비중: 50%
- A증권 수익률과 주식시장 수익률의 상관계수: 0.9
- A증권 수익률의 표준편차: 13%, 주식시장 수익률의 표준편차: 9.0%
- 무위험수익률: 3.5%
- 주식시장의 위험프리미엄: 7.0%
- 세전 부채비용: 6.0%, 실효법인세율: 20.0%
- 우선주 주가: 11,000원, 우선주 주당 배당금: 550원

① 8.72%

② 9.24%

③ 9.86%

④ 10.38%

⑤ 11.72%

8. A기업에 대한 다음 정보를 참고할 때 A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 변화요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구분	2022년	2023년
매출액	1,200,000천 원	1,400,000천 원
당기순이익	99,600천 원	172,200천 원
평균 총자산	1,000,000천 원	1,250,000천 원
평균 자기자본	800,000천 원	1,000,000천 원

- ① 2022년 ROE는 12.45%이다.
- ② 2023년 ROE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매출액순이익률의 증가이다.
- ③ 2023년 재무레버리지는 2022년 대비 증가하여 ROE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④ 2023년의 총자산회전율은 2022년 대비 감소하여 ROE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⑤ 2023년 A기업의 배당성향이 30%라고 한다면 A기업의 잠재적인 성장률(g)은 약 12.05%이다.

9. A, B, C 세 기업의 재무자료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을 선택하려고 한다. 저평가 여부를 PER, PBR, EV/EBITDA를 통해 판단할 때 각각의 지표 기준으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은?

(단위: 원, 배)

구분	A기업	B기업	C기업
현재주가(P)	10,000	20,000	40,000
EPS	2,000	5,000	4,000
BPS	1,000	4,000	10,000
EV/EBITDA	7.0	8.0	9.0

	PER기준	PBR기준	EV/EBITDA기준
①	A기업	A기업	B기업
②	A기업	B기업	C기업
③	B기업	C기업	A기업
④	B기업	C기업	C기업
⑤	C기업	B기업	A기업

10. 다음의 정보를 고려할 때 A기업의 적정 PER과 PBR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기업 관련 정보〉

- 배당성향: 60%
- 배당성장률: 4%
- A기업 주식의 요구수익률: 10%

	적정 PER	적정 PBR
①	6.0(배)	1.0(배)
②	6.0(배)	10.0(배)
③	10.0(배)	1.0(배)
④	10.0(배)	10.0(배)
⑤	15.0(배)	1.0(배)

11. 나영선 씨가 다음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채권 매입 시 매매단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 채권종류: 연 단위 복리채
- 채권 액면가: 10,000원
- 발행조건: 발행일 2023년 11월 20일, 만기일 2026년 11월 20일, 표면금리 5.0%
- 매매일: 2024년 8월 2일
- 매매수익률: 3.0%

① 10,207원

② 10,704원

③ 10,814원

④ 10,911원

⑤ 11,579원

12. 2년 만기 할인채 발행 및 매매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024년 6월 1일 매매일 기준 할인채의 매매단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발행조건(액면가: 10,000원)
 - 발행일: 2023년 6월 1일
 - 만기일: 2025년 6월 1일
 - 표면금리: 1.5%
- 매매조건
 - 매매일: 2024년 6월 1일
 - 매매수익률: 2.0%

- ① 9,803원 ② 9,852원 ③ 10,000원
 ④ 10,100원 ⑤ 10,150원

13.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해당 채권의 듀레이션과 볼록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채권종류: 연단위 후급 이표채(액면가: 10,000원)
- 채권만기: 3년(잔존만기 3년)
- 표면이자율: 3.0%, 채권수익률: 5.0%

	듀레이션	볼록성
①	2.59	10.45
②	2.91	10.45
③	2.91	11.53
④	3.00	10.45
⑤	3.00	11.53

14.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채권수익률이 4.0%에서 2.5%로 1.5%p 하락할 경우 수정듀레이션과 볼록성을 가지고 추정한 이표채의 가격 변동으로 맞는 것은?

〈이표채 관련 정보〉

- 만기 3년 연단위 후급 이표채
- 표면이자율: 3%, 액면가격: 10,000원
- 현재 채권가격: 9,722원
- 듀레이션: 2.91
- 볼록성: 10.66

- ① 약 396원 상승 ② 약 408원 상승 ③ 약 420원 상승
 ④ 약 436원 상승 ⑤ 약 1,185원 상승

15. 다음과 같은 채권 등을 편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채권펀드의 경우 향후 시중금리 하락이 예상 될 때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채권투자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만기 1년 할인채
- 만기 3년 표면금리 5.0% 할인채
- 만기 3년 표면금리 3.0% 이표채
- 만기 5년 표면금리 5.0% 이표채
- 기타 현금성 단기 유동성자산

- ①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한다.
 ② 단기 유동성자산을 줄이고 장기채 비중을 늘린다.
 ③ 만기 5년 표면금리 5% 이표채를 만기 5년 표면금리 5% 할인채로 교체한다.
 ④ 만기 3년 표면금리 5% 할인채를 만기 5년 표면금리 5% 복리채로 교체한다.
 ⑤ 만기 3년 표면금리 3% 이표채를 만기 1년 표면금리 3% 이표채로 교체한다.

16. 현재 10억 원 상당의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손예진 씨는 향후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보아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KOSPI200지수선물 매도헤지 거래를 하였다. 다음 표와 같은 시장상황을 가정할 경우 주식포트폴리오와 선물헤지전략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단, 보유한 주식포트폴리오의 하락률은 KOSPI200지수의 변동과 베타계수를 감안하여 계산하기로 하며, 거리에 따른 세금 및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현재: 선물헤지 계약시점 (7월 15일)	- 주식포트폴리오(현재가치기준): 1,000,000천 원 보유 - 주식 포트폴리오 베타계수: 1.3 - KOSPI200지수: 260 - KOSPI200지수선물 가격: 262 ※ 선물을 이용하여 주식포트폴리오 100% 헤지(베타 조정)
선물만기시점 (9월 8일)	- KOSPI200지수: 234 ※ 헤지하였던 선물을 100% 만기정산

※ KOSPI200지수선물의 승수는 250천 원임

- 가. 베타 조정 후 위험을 헤지한 선물계약에서 130,000천 원의 이익이 실현될 것이다.
 나. 보유한 주식포트폴리오를 헤지하기 위한 선물계약수는 베타를 감안한 경우 20계약이 적절하다.
 다. KOSPI200지수의 변동과 베타계수를 감안하였을 때 현재시점 대비 선물 만기시점(9월 8일)에 주식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손실 금액은 100,000천 원이다.
 라. 주식포트폴리오와 베타 조정 후 위험을 헤지한 선물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합을 계산하면 선물 만기 시점에 10,000천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 ① 가, 나 ② 나,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17.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이론선물가격과 실제 선물가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차익거래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현재 KOSPI200지수: 200.00
- 최근월물 KOSPI200 선물가격: 201.00
- 선물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92일
- 예상 배당수익률: 0.0%
- CD 유통수익률: 5.0%

	이론선물가격	차익거래종류
①	198.50	매도차익 거래
②	200.52	매수차익 거래
③	200.52	매도차익 거래
④	202.52	매수차익 거래
⑤	202.52	매도차익 거래

18. 김국채 씨는 투자자금 60,000천 원으로 이자율 5%인 미국국채에 투자하였다. 투자 당시의 환율이 1,200/\$이었고 1년 만기 선물환율은 1,200원/\$이었다. 1년 후 실제 환율이 1,180원/\$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단, 선물환 거래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가. 투자 당시의 금액을 달러로 환산하면 \$50,000이다.
- 나. 선물환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1년 후 원화표시 투자수익률은 3.25%이다.
- 다. 선물환 거래를 이용하여 환헤지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1년 후 원화표시 투자수익률이 1.5%p 더 많다.
- 라. 선물환 거래를 이용하여 환헤지를 하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1,050천 원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19. 옵션의 투자 전략 중에서 변동성 전략을 활용하여 옵션 거래를 하려고 한다. 행사가격별 콜 옵션/풋옵션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기초자산인 KOSPI200지수가 만기시점 220pt인 경우 아래 2개 전략의 각각의 만기 시 수익을 가장 적절하게 계산한 것은? (단, 옵션 1계약당 거래승수는 250천 원이며, 거래에 따른 세금 및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가) 전략 (스트래들 매수 전략)		(나) 전략 (스트랭글 매수 전략)	
200pt 콜옵션과 200pt 풋옵션을 각각 10계약 매수		205pt 콜옵션과 195pt 풋옵션을 각각 5계약씩 매수	
Call 프리미엄	행사가격	Put 프리미엄	
8pt	195pt	1pt	
4pt	200pt	6pt	
1pt	205pt	9pt	

	가	나
①	2,500천 원	3,250천 원
②	2,500천 원	16,750천 원
③	25,000천 원	3,250천 원
④	25,000천 원	16,250천 원
⑤	25,000천 원	37,500천 원

20. 다음 A펀드 관련 정보를 고려할 때 A펀드의 켄센척도, 샤프척도, 트레이너척도, 정보비율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균 수익률	수익률의 표준편차	펀드의 베타	추적오차 (Tracking Error)
12.5%	9.0%	1.2	1.0%

※ 무위험수익률: 3%, 벤치마크 수익률(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 10%

	켄센척도	샤프척도	트레이너척도	정보비율
①	1.1%	1.004	0.079	1.2
②	1.1%	1.056	0.079	2.5
③	1.1%	1.056	1.242	1.2
④	2.3%	1.004	1.242	2.5
⑤	2.3%	1.056	0.079	9.5

제Ⅳ절

부동산설계

1.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원가법에 따른 A부동산 건물의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부동산 건물의 연면적: 330㎡
- 경과연수: 7년(완공된 지 7년 지남)
- 내용연수는 40년이며, 잔존가치는 10%임
- 재조달원가: 7년 전 ㎡당 700천 원, 평가시점 현재 ㎡당 1,000천 원
-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함

① 약 278,025천 원

② 약 315,844천 원

③ 약 348,354천 원

④ 약 410,842천 원

④ 약 420,487천 원

2. 박해일 씨는 아파트A를 매수하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아파트A의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파트A 관련 정보〉

- 아파트A 면적: 112㎡
- 거래사례 가격: 5,652천 원/㎡
- 사정보정: 1.00(거래사례는 거래당사자 간의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
- 시점수정치: 0.9873(아파트매매가격지수 활용)
- 지역요인 격차율: 1.00(본 건은 거래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격차율(개별요인 격차율은 각각의 요인격차율을 곱하여 계산함)
 - 외부요인: 아파트A와 사례부동산 차이 없음
 - 건물요인: 아파트A가 사례부동산보다 10% 우세
 - 기타요인: 아파트A가 사례부동산보다 5% 열세

① 약 534,362천 원

② 약 541,112천 원

③ 약 653,109천 원

④ 약 721,857천 원

⑤ 약 730,976천 원

3. 김길수 씨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노후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40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 노후주택의 매입가격은 1,000,000천 원이며, 기존건물 철거비용 200,000천 원, 건물 신축비용(직접비용) 2,800,000천 원, 간접부대비용 100,000천 원이 예상된다. 신축할 주택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수익가치는 직접환원법에 의해 산정함)

〈신축 검토 중인 다세대주택 관련 정보〉

- 가구당 보증금 150,000천 원 및 월 임대료 500천 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수익의 10%
- 운영경비: 유효총수익의 20%
- 보증금운용이익률: 3.0%
- 종합환원율: 7.0%

- ① 총 매입 및 신축 비용이 수익가치보다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 ② 수익가치는 약 3,245,143천 원이며, 총 매입 및 신축 비용보다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 ③ 수익가치는 약 4,100,000천 원이며, 총 매입 및 신축 비용보다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 ④ 수익가치는 약 4,320,574천 원이며, 총 매입 및 신축 비용보다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 ⑤ 수익가치는 약 5,266,285천 원이며, 총 매입 및 신축 비용보다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4. 다음 상가 관련 정보를 고려할 때 직접환원법(종합환원율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의하여 산정)에 의한 상가의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가 관련 정보〉

- 상가의 예상 순영업수익(NOI): 연 80,000천 원
- 투자자가 기대하는 지분환원율: 10%
- 상가 대출 관련 정보
 - 상가 가치 대비 40%까지 대출받는다고 가정
 - 대출조건은 대출기간 10년, 고정금리 연 4.0% 월복리,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① 약 708,684천 원 ② 약 721,312천 원 ③ 약 736,664천 원
 ④ 약 837,754천 원 ⑤ 약 857,872천 원

5. 박동민 씨는 상가에 투자하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세전할인현금흐름분석(BTCF)에 의한 상가의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가 관련 정보〉

- 현재 시세: 900,000천 원
- 임대보증금: 200,000천 원
- 순영업소득(NOI): 48,000천 원
- 상가 매수 시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을 예정임: 대출금 250,000천 원, 대출기간 20년, 대출 이율 고정금리 연 4.0% 월복리,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상가가치상승률: 연 4.0%

〈상가투자 관련 추가 정보〉

- 박동민은 2024년 1월 초 상가A에 투자하여 15년간 보유 후 15년차 말에 매도할 예정임
- 15년 뒤 상가A 매도 시 미상환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
- 보증금은 15년간 현재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함
- 투자 후 15년차 말 예상 매각금액 및 비용
 - 매각금액: 상가가치상승률만큼 증액된 금액으로 매도
 - 매각비용: 매각금액의 15%
- ※ 박동민의 요구수익률은 10%임
- ※ 연간 순영업소득에서 차감할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월 원리금상환액×12개월’로 계산하며, 대출 만기 전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 ① 약 489,063천 원 ② 약 712,264천 원 ③ 약 855,722천 원
 ④ 약 878,975천 원 ⑤ 약 939,063천 원

6.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토지A 분석 내용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토지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주요 정보〉

• 갑구

순위	등기목적	접수(년.월.일)	비고
3	소유권이전	제54164호 (2019.06.07)	매매
3-1	3번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제84793호 (2019.06.27)	주소변경 (3번 등기의 부기등기임)
4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제100956호 (2023.07.05)	매매예약

• 을구

순위	등기목적	접수(년.월.일)	비고
1	근저당권설정	제84794호 (2019.06.27)	채권최고액 400,000천 원

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나. 근저당권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보다 권리의 순위가 앞선다.

다. 토지A 근저당권에 담보된 현재 실제 채권액은 400,000천 원이 아닐 수 있다.

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① 가,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7. 김상도 씨는 상가를 매수하고자 한다. 상가 매수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 ①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인 김상도는 본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압류등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기재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③ 부부 사이에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법정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상가 소유자가 남편인 경우 남편의 위임장이 없는 부인과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④ 계약서에 해제조건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을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해제조건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 ⑤ 부동산의 현황표시와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건축물대장보다 우선하므로, 상가 현황과 권리 사항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 허재경 씨는 토지A(나대지)를 매입하여 주택 1개 동을 신축하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토지A 및 주택 관련 분석 내용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 토지A 관련 정보

– 지목: 대(垔), 대지면적: 600㎡,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환매등기 있음

•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 관련 정보

– 건축면적: 240㎡

–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960㎡

– 4층 주택

※ 허재경의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며,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은 모두 동일함)은 동일하며, 지하 및 지상의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은 없다고 가정함

가. 허재경이 신축하려는 주택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허재경이 신축하려는 주택의 용적률은 160%이다.

다.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환매기간을 5년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토지A에 대한 환매등기가 3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 환매권리자는 현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나 ② 가, 나 ③ 가, 다 ④ 나, 다 ⑤ 가, 나, 다

9. 재개발 조합원인 박근미 씨는 최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 관련 다음 정보를 안내 받았다. 비례율에 따른 박근미 씨의 조합원 분담금(추가부담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비례율 관련 정보
 - 총 분양수입금: 70,000,000천 원
 - 총 사업비: 40,000,000천 원
 - 종전 자산 총액: 35,000,000천 원
- 박근미의 종전 토지 평가액은 100,000천 원, 종전 건물 평가액은 30,000천 원임
- 조합원(박근미) 분양가: 300,000천 원

- ① 약 170,321천 원 ② 약 178,667천 원 ③ 약 186,251천 원
④ 약 188,571천 원 ⑤ 약 202,505천 원

10.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백주환 씨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백주환은 2024년 4월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A(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임)를 임차하였다. 임차에 따른 보증금은 500,000천 원이며, 월차임은 1,000천 원이다.

- ① 만약 백주환이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② 상가A의 임대인이 조세부담 등 경제적인 여건을 사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증액을 청구할 경우 최대 10% 한도로 가능하다.
-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 규모인지 여부 판단 시 월차임에 5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가산하여 판단한다.
- ④ 백주환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상가 A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백주환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11. 다음 주택A 경매 관련 권리 현황 정보를 고려할 때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순위	권리	권리자	권리금액
1	임차권 (대항력 + 확정일자)	김기만	50,000천 원 (임차보증금)
2	근저당권	이재돈	20,000천 원
3	가압류	최선영	10,000천 원
4	이재돈의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신청		

가. 주택A 경매 시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이다.

나. 채권은 주택A 경매로 인해 무조건 소멸하므로, 임차권자 김기만은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다. 최선영은 주택A 경매 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

라. 배당에 있어 가압류는 등기순위와 관계없이 항상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주택A 경매 시 배당순위는 가압류가 근저당권보다 앞선다.

- ① 다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라 ⑤ 가, 다, 라

12. 이현구 씨는 지금 현재 매수한 부동산A의 매도 시점에 대해 고민 중이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A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임대보증금, 대출, 세금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A 관련 정보〉

- 취득가격: 400,000천 원
- 임대료 수익: 연 18,000천 원(지금부터 매년 말 발생되며, 매년 동일)
- 부동산A 보유기간에 따른 예상 매도가격

보유기간	예상 매도가격
5년(5년 차 말 매도)	500,000천 원
7년(7년 차 말 매도)	500,000천 원

- 이현구의 요구수익률: 6.0%
- ※ 임대료 수익 외 기타 수익 없음

- ① 7년간 보유 후 매도했을 경우 NPV는 66,264천 원이다.
- ② 5년간 보유 후 매도 시 수익성지수(PI)는 약 1.12이다.
- ③ 내부수익률로 판단 시 7년간 보유 후 매도했을 경우 이현구의 요구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없다.
- ④ 내부수익률로 판단 시 7년간 보유 후 매도했을 경우가 5년간 보유 후 매도했을 경우보다 유리하다.
- ⑤ 수익성지수(PI)로 판단 시 7년간 보유 후 매도했을 경우가 5년간 보유 후 매도했을 경우보다 유리하다.

13. 김성윤 씨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노후화되어 현재 시장임대료 수준보다 약 20% 낮은 월 24,000천 원을 매월 받고 있다. 임대수입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리모델링을 계획할 경우,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투자방안 분석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5년 후 리모델링 비용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리모델링 기간 및 리모델링 후의 가치상승은 고려하지 않음)

- 리모델링 비용: 250,000천 원(지금 현재 일시에 지급)
- 리모델링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임대료 수입은 현재 시장임대료 수준으로 회복하게 되며, 임대료는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말에 수령함
- 투자분석 시 적용 할인율: 연 9.0% 월복리

- ① 현재가치로 비교 시 18,768천 원만큼 손실 예상
- ② 현재가치로 비교 시 57,307천 원만큼 손실 예상
- ③ 현재가치로 비교 시 31,768천 원만큼 손실 예상
- ④ 현재가치로 비교 시 39,040천 원만큼 이익 예상
- ⑤ 현재가치로 비교 시 89,040천 원만큼 이익 예상

14. 김진수 씨는 작년에 연 12%의 총투자수익률이 기대되는 근린상가를 10억 원에 매입하기 위해 LTV 60%를 적용하여 연 8%의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였다.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나 현재 대출금리만 연 10%로 상승하였다면, 작년 대비 김진수 씨의 자기자본수익률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자본수익률은 다음 공식을 적용함〉

$$\bullet K_e = K_o + (K_o - K_d) \times (L/V \div E/V)$$

- ① 대출총액은 변화가 없으므로 올해의 자기자본수익률은 작년과 동일하다.
- ② 자기자본수익률은 작년에 15%였으나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3%p 증가하게 되었다.
- ③ 자기자본수익률은 작년에 12%였으나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5%p 감소하게 되었다.
- ④ 자기자본수익률은 작년에 18%였으나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3%p 감소하게 되었다.
- ⑤ 대출금리가 상승하였으므로 올해의 자기자본수익률은 작년에 비해 4%p 감소하게 되었다.

15. 이상민 씨는 상업용 건물에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정보 고려할 때 이상민 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부동산 현황
 - 순영업소득(NOI): 연 96,000천 원
 - 현재 시세: 960,000천 원
 - 은행은 LTV와 DCR 기준 중 낮게 산출된 금액으로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 LTV: 현재 시세의 50%
 - DCR: 1.3 이상
 - 대출조건: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8% 월복리, 대출기간 10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 임대보증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① 약 465,567천 원

② 약 480,000천 원

③ 약 495,000천 원

④ 약 507,209천 원

⑤ 약 535,789천 원

제 V 절

은퇴설계

1. 이석준(45세) 씨는 5년 전부터 은퇴저축을 위해 주식혼합형펀드A에 매월 말일에 500천 원을 납입하고 있다. 은퇴저축은 60세까지 계속 납입할 계획이며, 가입일 이후 현재까지 운용수익률(세전투자수익률)은 연 6.0%이다. 향후에도 주식혼합형펀드A가 연 6.0%로 운용된다면 은퇴시점(60세)에서 주식형혼합펀드를 환매하는 경우 세후평가금액과 세후투자수익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펀드 환매 시 환매차익 전액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단위: 천 원, %)

구분	세후평가금액	세후투자수익률
①	198,341	4.79
②	210,284	5.28
③	210,284	5.32
④	220,422	5.75
⑤	226,719	6.00

2. 유창훈(45세) 씨는 은퇴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5년 전부터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말일에 500천 원을 납입하고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세전투자수익률이 연 4.5%가 예상되는 주식혼합형펀드를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유창훈 씨는 향후 보험료를 15년간 계속 납입하고 60세부터 20년간 매년 초에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 60세 시점의 연금적립금 평가액과 매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변액연금의 사업비 등 제반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단위: 천 원)

구분	60세 시점 연금적립금	연간 연금액
①	192,080	14,130
②	192,080	14,766
③	192,786	14,182
④	192,786	14,820
⑤	194,062	14,276

3. 근로자인 홍동기(40세, 연봉 6,000만 원)씨는 은퇴자산 마련을 위한 저축을 계획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가정조건에서 투자안(A) 또는 투자안(B)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은퇴저축(투자) 상품

투자상품	(월)투자액	납입기간	운용수익률
적립식펀드	매월 말 50만 원	20년	6.0%
연금저축펀드			

- 투자방안(A): 적립식펀드에 투자
 - 60세까지 투자하고, 60세부터 25년간 매년 초에 정액으로 연금으로 수령함
- 투자방안(B): 연금저축펀드에 투자
 - 60세까지 투자하고, 60세부터 25년간 매년 초에 정액으로 분할하여 인출함
- 기타 가정
 -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는 금액은 전액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고, 환급세액은 매년 말에 수령하며 전액 연금저축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은퇴저축펀드의 은퇴기간 중 분할금은 매년 초에 수령하며, 전액 연금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적립식펀드에서 60세부터 수령하는 분할금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의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가정함

- ① 60세 시점에서 연금저축펀드의 세전적립금액은 적립식펀드의 세전적립금보다 30,882천 원이 많다.
- ② 가정조건과 같이 연금 또는 분할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세전연금액은 연금저축펀드가 18,882천 원으로 적립식펀드보다 2,151천 원이 더 많다.
- ③ 가정조건에 따라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은 207,346천 원이다.
- ④ 가정조건에 따라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7,489천 원이 많다.
- ⑤ 가정조건에 따라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투자수익률은 투자안(A)의 세후투자수익보다 약 1.48%p가 더 크다.

4. 안만호(45세) 씨는 65세가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부부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은퇴생활을 시작하려고 한다. 은퇴자산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50%는 양도소득세 등 양도비용과 귀촌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은퇴소득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은퇴시점에서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의 세후일시금 평가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퇴 관련 정보]

- 안만호 나이 65세에 은퇴 예정
- 주택의 시가는 현재시점 기준 600,000천 원이며, 주택의 가치상승률은 연 3.0%
 - 주택 매각 시 예상되는 매도비용과 양도소득세는 매각대금의 2.0%
- 은퇴자산으로 활용하는 매각대금은 (세전)이율이 연 3.0%로 예상되는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에 납입하고 은퇴기간(25년) 동안 매년 초에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
-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은 납입원금 인출 이후의 기간에 지급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가정

- ① 457,849천 원 ② 500,275천 원 ③ 513,634천 원
 ④ 524,116천 원 ⑤ 541,833천 원

5. 김영준(45세) 씨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 마련을 위해 은퇴저축을 하려고 한다. 다음 김영준 씨의 은퇴설계 정보를 참고하여 은퇴저축 목표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준 씨가 올해 초에 저축해야 할 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 은퇴기간: 김영준 나이 65세부터 20년
- 은퇴시점에 추가로 필요한 은퇴일시금: 600,000천 원
- 저축방법: 지금부터 20년간 매년 초에 물가상승률로 증액하여 저축
- 추가 저축에 대한 세후투자수익률: 연 4.0%
- 물가상승률: 연 2.0%

① 14,998천 원

② 16,363천 원

③ 16,690천 원

④ 19,754천 원

⑤ 20,149천 원

※ 자영업자인 김상혁(45) 씨는 65세부터 20년간 은퇴생활 계획을 세우고 CFP® 자격인증자를 찾아 은퇴설계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다음 김상혁 씨의 은퇴설계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문제6~7번]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은퇴설계 관련 정보]

- 은퇴생활을 위해 필요한 연간 은퇴생활비는 현재물가기준으로 연간 48,000천 원이다.
- 총은퇴일시금은 은퇴 첫째 부족한 소득액을 4.5%(초기인출률)로 나누어 산출한다.
- 저축 여력은 매년 5.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추가저축 여력은 월 2,500천 원이다.
- 준비하고 있는 은퇴자산은 5년 전에 가입한 변액연금보험뿐이다.
 - 매월 말일에 500천 원을 납입하고 있으며, 60세까지 15년간 추가로 납입할 계획임
 - 변액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연 3.0%로 예상됨
 - 연금은 65세부터 20년간 수령할 계획임
-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매년 초에 매년 현재물가기준으로 12,000천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물가상승률은 연 2.0%를 적용한다.

6. 김상혁 씨가 은퇴기간 중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은퇴시점에서 부족한 은퇴일시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① 610,543천 원 | ② 636,573천 원 | ③ 862,440천 원 |
| ④ 999,301천 원 | ⑤ 1,025,331천 원 | |

7. 김상혁 씨는 은퇴시점에서 부족한 은퇴일시금 마련을 위한 은퇴저축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추가저축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김상혁 씨가 목표은퇴소득 충족을 위해 추가로 올해 말 저축해야 하는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퇴시점에서 부족한 은퇴일시금: 900,000천 원
- 추가로 저축하는 은퇴저축
 - 추가저축은 지금부터 20년간 저축 여력 증가율만큼 증액하여 매월 말일에 납입한다.
 - 추가저축의 세후투자수익률은 연 6.0%이다.

- ① 1,244천 원 ② 1,318천 원 ③ 1,384천 원
 ④ 1,455천 원 ④ 1,528천 원

※ 자영업자인 박세혁 씨(45세)의 은퇴설계 정보를 참고하여 [문제8~9]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 박세혁은 65세에 은퇴하여 25년간 은퇴생활을 희망하고, 현재물가기준으로 연간 48,000천 원 수준의 은퇴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 박세혁의 투자성향은 적극투자형이다.
-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매년 초에 12,000천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은퇴소득으로 사용할 목적을 갖고 저축하고 있는 자산은 적립식펀드A 하나뿐이다.
 - 펀드 유형: '다소 높은 위험'의 주식혼합형펀드
 - 현재 적립금 평가액: 52,000천 원(납입원금 46,000천 원)
 - 추가 투자액: 20년간 매월 말일에 500천 원을 정액으로 투자
 - (세전)투자수익률: 연 6.0%
 - 펀드환매차익은 전액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
- 은퇴 첫해 은퇴소득은 초기인출률(IWR) 4.0%를 적용하여 인출하고, 이후 매년 필요한 은퇴소득은 직전년도 은퇴소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 물가상승률은 연 2.0%로 예상된다.

8. 박세혁 씨가 목표로 하는 은퇴생활수준 충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506,510천 원
- ② 541,543천 원
- ③ 943,863천 원
- ④ 978,896천 원
- ⑤ 1,022,640천 원

9. 박세혁 씨는 CFP® 자격인증자에게 현재 은퇴소득으로 사용할 계획인 적립식펀드A 이외에 매년 사업결산 후 추가로 저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CFP® 자격인증자는 박세혁 씨에게 적립식펀드B(세전 투자수익률 연 6.0%)에 올해 말 20,000천 원을 시작으로 은퇴 시까지 직 전년도 대비 1,000천 원씩 증액하여 추가로 저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박세혁 씨가 자격인증자의 제안에 따라 적립식펀드B에 추가저축을 하고 은퇴시점에서 전액 환매를 할 경우 적립식펀드B의 세후평가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856,400~856,500천 원
- ② 923,100~923,200천 원
- ③ 949,900~950,000천 원
- ④ 978,800~978,900천 원
- ⑤ 1,044,700~1,044,800천 원

10. 김남석(40세) 씨는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추가저축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은퇴자산의 세후투자수익률을 충족하는 추가저축(투자) 상품의 세후투자수익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김남석 위험수용성향: 위험중립형
- 은퇴까지의 기간: 20년
- 현재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저축(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

(단위: 천 원)

구분	세후투자수익률	현재시점 적립금 평가액	매월말 저축액	추가 저축기간
주식혼합형펀드	6.0%	50,000	500	20년
변액연금보험	3.0%	20,000	200	20년

- 추가로 필요한 은퇴일시금: 200,000천 원
- 은퇴저축을 위한 투자포트폴리오의 세후투자수익률: 연 5.0%
- 저축기간: 20년간 매월 말일에 정액으로 저축

(단위: 천 원, %)

구분	월 저축액	세후투자수익률
①	541	4.15
②	520	4.52
③	487	5.10
④	474	5.35
⑤	450	5.82

11. 이민석(40세) 씨는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60세까지 25년간 은퇴저축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목표로 하는 은퇴자산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1투자기간 말 투자목표금액과 올해 매월 저축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퇴기간: 65세부터 25년
- 은퇴시점에서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금액: 3억 원
- 투자기간별 월 저축액

(단위: %, 천 원)

구분	1투자기간(15년)	2투자기간(10년)	총투자기간
위험수용성향	공격투자형	위험중립형	-
목표수익률	6.0	4.0	5.0
월 저축액	?	600	-

- 저축방법
 - 1투자기간 중에는 매년 초에 임금인상률(연 5%)만큼 증액하여 매월 말일에 저축
(증액은 매년 초에 년 단위로 증액하는 것으로 함)
 - 2투자기간에는 정액으로 매월 말일에 저축

(단위: 천 원)

구분	1투자기간 말 투자목표금액	저축 첫해 매월 저축금액
①	127,315	324
②	127,315	325
③	143,208	359
④	143,208	366
⑤	155,980	398

※ 이석준(45세) 씨는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주식형펀드와 채권혼합형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매월 말일에 1,000천 원씩을 투자하려고 한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문제12~13]의 질문에 답하시오.

- 위험성향: 위험중립형
- 투자기간: 20년
- 투자기간 중 목표수익률: 연 5.0%
- 위험허용범위: 포트폴리오 표준편차 8% 이내
- 리밸런싱 기준: 포트폴리오의 위험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자산군별 투자비중 조정
-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표준편차

(단위: %)

구분	기대수익률(연)	표준편차	상관계수
주식형펀드	6.0	12.0	0.2
채권혼합형펀드	4.0	5.0	

12. 은퇴저축의 목표수익률을 충족하기 위한 매월 저축(투자)액의 자산군별 투자비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

구분	저축액의 자산군별 투자비중		60세 시점 자산군별 투자비중	
	채권혼합형펀드A	주식형펀드B	채권혼합형펀드A	주식형펀드B
①	40.12	59.88	34.56	65.44
②	46.84	53.16	41.28	58.72
③	53.16	46.84	47.67	52.33
④	59.88	40.12	52.08	47.92
⑤	65.55	34.35	58.44	41.56

13. 다음은 위 조건에서 제시한 은퇴저축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한 경우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가. 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3.85~3.99% 수준이다.
- 나. 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6.68~7.15% 수준이다.
- 다. 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9.42~9.79% 수준이다.
- 라. 은퇴저축 포트폴리오 구성조건에서 정한 위험허용범위 이내이다.
- 마. 은퇴저축 포트폴리오 구성조건에서 정한 위험허용범위를 벗어난다.

- ① 가, 라 ② 나, 라 ③ 다, 마 ④ 가, 라 ⑤ 다, 라

※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맞벌이 부부인 윤형준(47세), 이경희(47세)씨의 요청에 따라 은퇴 설계 상담을 하고 있다. 다음 부부의 은퇴설계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문제14~15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시오.

- 부부 은퇴기간
 - 부부 모두 60세에 현 직장에서 퇴직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은퇴생활은 65세부터 시작할 계획임
- 부부의 은퇴자산에 대한 위험수용성향
 - 위험중립형
-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은퇴자산
 - 윤형준 퇴직급여
 - 현 직장 근속기간: 올해 1월 현재 12년
 - 직전년도 과세대상 연봉: 60,000천 원
 - 현재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은 주식혼합형펀드를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음

- 현재시점에서 퇴직연금 평가액: 56,000천 원
- 퇴직 시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는 채권혼합형펀드로 운용하면서 65세부터 25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임
- 이경희 퇴직급여
 - 현 직장 근무기간: 올해 1월 현재 12년
 - 직전년도 과세대상 연봉: 60,000천 원
 - 현재 회사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 현재시점에서 퇴직급여: 60,000천 원
 - 퇴직 시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는 채권혼합형펀드로 운용하면서 65세부터 25년간 연금을 수령할 계획임
- 총은퇴일시금 산정
 - 은퇴기간 중 목표은퇴소득은 현재물가기준으로 연 60,000천 원으로 합의하였다.
 - 총은퇴일시금은 은퇴 첫째 부족한 은퇴소득을 초기인출률(IWR)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66세부터 필요한 은퇴소득은 직전년도 인출액을 매년 직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여 인출한다.
- 기타
 - 65세 시점에서 예상하는 국민연금 수령액(현재물가기준)
 - 윤형준: 12,000천 원, 이경희: 10,800천 원
 - 60세 퇴직 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예상액
 - 윤형준: 8,063천 원, 이경희: 4,498천 원
 -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수익률
 - 주식혼합형펀드: 연 6.0%, 채권혼합형펀드: 연 4.0%
 - 부부의 임금인상률: 연 3.0%
 - 물가상승률: 연 2.0%

14.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이들 부부에게 은퇴기간 중 필요한 은퇴소득을 충족하기 위한 총 은퇴일시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가. 총은퇴일시금은 은퇴 2차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직전년도 인출금액에 직전년도 물가상승률 만큼 증액한 금액을 인출하여 은퇴소득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 나. 은퇴 첫째 초 부족한 은퇴소득은 현재물가기준으로 37,200천 원이지만, 은퇴시점(65세) 물가기준으로 환산하면 41,072천 원이 됩니다.
- 다. 초기인출률을 5.0%로 적용하여 산정한 총은퇴일시금은 은퇴시점 물가기준으로 744,000 천 원 수준입니다.
- 라. 초기인출률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총은퇴일시금은 은퇴기간 은퇴자산의 세후투자수익률이 4.0%가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은퇴자산의 지속기간은 25년이 됩니다.
- 마. 은퇴자산의 소진기간을 25년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자산의 세후투자수익률이 연 4.0%를 초과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은퇴자산의 세후투자수익률은 위험수용성향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률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라, 마

④ 다, 라, 마

⑤ 가, 다, 라, 마

15. 김재무 CFP® 자격인증가가 이들 부부에게 퇴직급여 수준과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가. 퇴직 시 세전 퇴직급여는 윤형준 씨는 233,498천 원, 이경희 씨는 183,567천 원 수준입니다.
 나. 윤형준 씨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이경희 씨의 퇴직급여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 IRP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 시 산출된 퇴직소득세가 전액 과세가 됩니다.
 라. 윤형준 씨가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에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연차 1~10차년도에 과세되는 연금소득세는 매년 564천 원입니다.
 마. IRP의 운용수익을 원천으로 하는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 수급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마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라, 마

※ 이승재(65세) 씨는 은퇴기간 중 기본생활비를 연금보험의 연금 상품과 분할지급식 펀드상품으로 준비하려고 한다. 다음 이승재 씨의 은퇴설계 정보를 참고하여 [문제16~17번]의 질문에 답하시오.

- 은퇴기간: 65세부터 25년
- 월간 은퇴기본생활비: 3,000천 원
- 은퇴자산에 대한 투자성향: 위험중립형
- 은퇴자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산
 - 연금보험: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현재시점에서의 연금적립금은 158,422천 원임
 - 보통예금: 현재시점에서 잔액은 350,000천 원이며, 이중 부족한 기본생활비에 총당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은퇴예비자금으로 보유할 계획임
- 국민연금: 65세부터 매월 1,000천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함
- 경제적 가정치
 - 은퇴자산에 대한 세후투자수익률: 연 4.0%
 - 은퇴기간 중 연금보험의 공시이율: 연 2.5%
 - 분할지급식 채권형펀드의 수익률: 연 5.0%
 - 은퇴기간 중 물가상승률: 연 0.0%
- 기타 가정조건
 - 은퇴기본생활비, 연금보험의 연금 및 분할지급식 채권형펀드의 분할금은 25년간 매월 초에 발생하고 인출 시 세금과 인출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매년 초에 물가상승률만큼 증액되어 매월 초에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함

16. 이승재 씨는 은퇴기간 중 필요한 기본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의 연금으로 부족한 금액을 분할지급식 채권형펀드로 운용하면서 인출하려고 한다. 기본생활비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할지급식 채권형 펀드에 투자할 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① 198,040~198,070천 원 | ② 223,640~223,680천 원 |
| ③ 224,560~224,590천 원 | ④ 247,610~247,640천 원 |
| ⑤ 248,360~248,360천 원 | |

17. 이승재 씨는 은퇴기간 중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기본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해야할 금액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CFP[®] 자격인증자에게 문의를 하고 있다. 만약 이승재 씨의 은퇴기간 중 물가상승률을 2.0%로 가정하는 경우 기본생활비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할지급식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223,060~223,090천 원 | ② 298,510~298,540천 원 |
| ③ 313,000~313,030천 원 | ④ 345,720~345,750천 원 |
| ⑤ 371,430~371,460천 원 | |

18.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서진수(60세) 씨의 목표은퇴소득을 충족할 수 있도록 CMA 잔액 중 일부를 분할지급식 펀드에 투자하여 은퇴소득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퇴자산의 세후투자수익률을 충족하면서 목표은퇴소득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인 은퇴자산의 규모와 추가적인 은퇴자산의 수익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수익률은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은퇴기간: 60세부터 30년
- 은퇴기간 중 목표은퇴소득: 36,000천 원
- 연금보험 적립금 및 연금액
 - 60세 시점의 연금적립금 평가액은 200,000천 원임
 - 60세부터 30년간 매년 초에 연금을 수령할 예정임
 - 은퇴기간 중 공시이율은 연 3.0%를 적용함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연 12,000천 원
- 증권회사 위탁증거금(CMA) 잔액: 232,000천 원
- 경제지표 가정
 - 은퇴자산의 세후투자수익률: 연 5.0%
 - 은퇴기간 중 물가상승률: 연 0.0%

(단위: 천 원, %)

구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	분할지급식 펀드의 세후수익률
①	227,481	2.0
②	227,481	3.0
③	227,481	5.0
④	187,386	5.0
⑤	187,386	7.0

19. 은퇴생활을 시작한 나용균(65세)씨는 은퇴기간 중 안정적인 은퇴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CFP® 자격인증자를 찾아 상담을 하고 있다. 다음의 추가정보를 참고하여 안정적인 은퇴소득 인출을 위한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계정별 배분금액과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세후수익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용균 씨의 은퇴 관련 정보〉

- 은퇴기간: 나용균 나이 65세부터 30년간
- 기본생활비: 연간 36,000천 원
- 은퇴소득으로 활용할 자산: 보통예금 4억 원
 - 은퇴기간 중 매년 21,600천 원을 기본생활비로 총당하고, 기본생활비 총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은퇴예비자금으로 보유
- 국민연금 예상액: 65세부터 매월 1,200천 원이 지급되나, 매년 초에 14,400천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방향
 - 은퇴소득은 매월 초에 1,800천 원을 인출할 것이지만, 매년 초에 21,600천 원을 인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은퇴자산 포트폴리오는 생활비계정, 저축계정, 투자계정 3종류로 구성함

(단위: 천 원, %)

구분	생활비계정	저축계정	투자계정
세후수익률	0.0	3.0	6.0
계정유지금액	2년 생활비	3년 생활비	30년-Tn
65세 배분금액	?	?	?

* Tn: 65세 기준 5년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가산한 연수

-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저축계정에서 생활비계정으로 1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며, 동시에 저축계정 기시배분금액 미달액을 투자계정에서 저축계정으로 이체함
- 기타: 은퇴기간 중 물가상승률은 0.0%로 가정함

(단위: 원, %)

구분	생활비계정	저축계정	투자계정	포트폴리오 세후수익률
①	42,570	59,318	238,386	5.23
②	43,200	59,318	252,701	4.42
③	43,200	61,098	238,386	5.17
④	43,200	61,098	252,701	4.78
⑤	43,200	59,318	238,386	5.22

20. CFP® 자격인증자는 은퇴를 맞이한 김원제(65세) 씨에게 은퇴기간별 목표로 하는 은퇴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은퇴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안하고 있다. 김원제 씨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매각대금과 평소 저축해온 금액 10억 원을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다. 김원제 씨는 보통예금 예치금액 중 은퇴기간 중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남은 자금은 자녀 지원과 예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다음 김원제 씨의 목표은퇴소득 충족을 위한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금융상품별 투자비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퇴기간: 20년
- 은퇴자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보통예금): 1,000,000천 원
- 은퇴기간별 (월)필요소득

(단위: 천 원, %)

구분	65~74세 말(10년)	75~79세 말(5년)	80~84세 말(5년)
필요소득(월)	5,000	4,000	3,500

-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는 분할지급식 정기예금과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에 배분하여 구성
 - 금융상품의 세후투자수익률

(단위: 천 원, %)

구분	분할지급식 정기예금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
수익률	연 3.0%	연 4.0%	연 5.0%

- 은퇴소득 인출
 - 은퇴소득은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에서 매월 초에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
 - *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은 정액 정기분할지급 방식임
 - 최초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10년 동안 매월 초에 연금을 수령
 - 채권형펀드는 10년 후 전액 환매하여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5년간 연금 수령
 - 채권혼합형펀드는 10년 후 전액 환매 후 채권형펀드에 5년간 투자하고, 5년 후 채권형펀드를 전액 환매 후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5년간 연금수령
- 국민연금매월 초에 1,000천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은퇴기간 중 물가상승률은 0.0%로 가정함

(단위: 천 원, %)

구분	포트폴리오 계	분할지급식정기예금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
①	586,724	415,286	113,182	58,256
②	587,224	415,286	113,682	58,256
③	599,703	416,073	113,182	70,448
④	698,361	416,073	167,536	114,752
⑤	723,223	416,073	167,536	139,614

제 VI 절

세금설계

1.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 김민기 씨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단,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음)

〈김민기의 2024년 귀속 소득 내역〉

- 근로소득(총급여액): 65,000천 원
 - 기타소득(일시적 강의로 소득) 총수입금액: 5,000천 원
- ※ 김민기의 강의일은 2024년 3월 7일이며, 강의 관련 경비에 대해 증빙 없음

가. 기타소득금액은 5,000천 원이다.

나. 근로소득금액은 65,000천 원이다.

다.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600천 원이다.

라. 김민기의 종합소득공제가 5,000천 원이라면,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⑤ 가, 다, 라

2.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개인사업자 한현수 씨가 복식부기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2024년 귀속 공동사업소득금액 산출 시 한현수 씨만의 사업소득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한현수 씨와 송명석 씨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님]

〈한현수의 개인사업(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함) 관련 정보〉

- 한현수는 친구 송명석과 공동으로 개인사업(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음
-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
 - 한현수: 60%
 - 송명석: 40%
- 한현수와 송명석은 복식부기장부에 의해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

〈2024년 귀속 공동사업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정보〉

- 매출액: 700,000천 원
 - 매출원가: 300,000천 원
 -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10,000천 원(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00천 원 포함)
 - 종업원 인건비: 80,000천 원
 - 사무실 임차료: 48,000천 원
 - 기타 사업 관련 경비: 40,000천 원(한현수의 가사 관련 경비 20,000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사업 관련 필요경비임)
 - 벌금: 5,000천 원
- ※ 상기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① 142,200천 원 ② 145,200천 원 ③ 148,200천 원
 ④ 242,000천 원 ⑤ 247,000천 원

3.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하고자 하는 경우 박규진(개인 사업자) 씨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박규진 씨는 항상 복식부기장부에 의해 소매업 및 상가A 임대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

〈박규진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내역〉

- 2024년 귀속 사업소득 관련 내역
 - 소매업 사업소득금액: 결손금 10,000천 원
 - 상가A 임대사업소득금액: 40,000천 원(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전)
- 2024년 귀속 소매업 및 상가A 임대사업 이월결손금 내역
 - 소매업 이월결손금: 1,000천 원(2016년 발생분)
 - 상가A 임대사업 이월결손금: 5,000천 원(2019년 발생분)
- 박규진의 종합소득공제: 5,000천 원

- ① 19,000천 원 ② 20,000천 원 ③ 24,000천 원
 ④ 29,000천 원 ⑤ 30,000천 원

4.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이진환 씨의 2024년 귀속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이진환 씨는 복식부기장부에 의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

〈2024년 귀속 상가 임대 관련 정보〉

- 이진환은 2024년 3월 중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임대를 시작함
 - 이진환이 2024년 임대한 일수: 275일(2024년 4월 1일~2024년 12월 31일)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400,000천 원, 월 임대료: 6,000천 원(부가가치세 별도,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수령함)
 - 상가 건설비 상당액은 281,000천 원을 적용함
- ※ 정기예금이자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2024년 현재 연 3.5%로 가정하며, 상가의 월 임대료 외 관리비 등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없으며, 보증금 운용수익 없음

- ① 54,000천 원 ② 57,129천 원 ③ 64,519천 원
④ 72,000천 원 ⑤ 75,129천 원

7. 다음은 근로소득자 이수현(여성, 2년 전에 이혼함) 씨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2024년 귀속 소득 현황이다. 이수현 씨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나이	소득 내역	비고
이수현(본인)	39세	총급여액 40,000천 원	-
자녀	9세	-	-
부친	65세	사업소득금액 50,000천 원	-
모친	63세	이자소득 10,000천 원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
동생	35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모친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임

〈2024년 귀속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15,000천 원 초과~45,000천 원 이하	7,500천 원 + 15,000천 원 초과액의 15%

- ① 6,000천 원 ② 7,500천 원 ③ 8,000천 원
 ④ 8,500천 원 ⑤ 9,000천 원

8. 다음 근로소득자 송정아 씨의 2024년 귀속 의료비 지출 내역을 고려할 때 송정아 씨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비세액공제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24년 귀속 의료비 지출 내역
 - 송정아 본인을 위한 의료비: 2,000천 원
 -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2,000천 원
- 2024년 귀속 소득 내역
 - 송정아의 총급여액: 50,000천 원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000천 원을 초과함

※ 송정아가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이고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고려하지 않음

- | | | |
|----------|----------|----------|
| ① 225천 원 | ② 248천 원 | ③ 352천 원 |
| ④ 375천 원 | ⑤ 585천 원 | |

9. 다음은 개인사업자 이희경(도·소매업) 씨의 2024년 지출 및 거래 내역이다. 해당 지출 및 거래 내역이 이희경 씨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이희경 씨는 도·소매업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으며,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 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가정함)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납부함
-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3,600천 원을 납입함
- 다. 자녀(15세, 소득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함
- 라.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0,000천 원이 발생함
- 마. 실손의료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이희경 본인) 보험료를 매월 납부함

※ 이희경은 복식부기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임

- ① 이희경은 '가'에 대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나'에 대해 이희경은 최대 1,000천 원을 한도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이희경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다'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④ '라'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⑤ '마'에 대해 이희경은 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10. 다음 장미숙 씨의 2024년도 귀속 금융소득 정보를 고려할 때 장미숙 씨의 금융소득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음의 금융소득은 모두 원천징수 전의 금액임)

금융소득	금액
은행정기예금 이자	20,000천 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5,000천 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0,000천 원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일반배당)	60,000천 원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제외한 상기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임

- ① 66,000천 원 ② 110,000천 원 ③ 116,000천 원
 ④ 119,000천 원 ⑤ 121,000천 원

11.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신용철 씨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음의 금융소득은 모두 원천징수 전의 금액임)

〈신용철의 2024년 귀속 소득 및 소득공제 내역〉

- 소득 내역
 - 근로소득금액: 56,750천 원
 - 상가 임대사업소득금액: 36,250천 원
 - 이자소득: 10,000천 원
 -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000천 원
 - 배당소득[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현금배당(일반배당)]: 30,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 6,000천 원

※ 상기 금융소득은 모두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이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임

- ① 21,420천 원 ② 23,578천 원 ③ 27,435천 원
 ④ 31,247천 원 ⑤ 32,784천 원

12. 비상장법인 (주)A산업의 주주인 김남순 씨의 법인 설립 후 최근까지의 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의 변동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24년 3월 중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율은 얼마인가?

〈지분율 변동 내역〉

- 2016년 8월 법인 설립: 20%(보유 지분)
- 2021년 6월 주식 지분 10% 취득: 30%(보유 지분)
- 2024년 3월 주식 지분 30% 취득: 60%(보유 지분)

- ① 0% ② 10% ③ 20% ④ 30% ⑤ 60%

13.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김유성 씨가 아파트A를 매매로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분석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 김유성은 2024년 10월 중 아파트A를 취득함(10월 중 아파트A 등기 완료)
- 아파트A의 사실상취득가격: 600,000천 원
- 아파트A의 시가표준액: 450,000천 원

- ① 아파트A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 ② 아파트A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450,000천 원이다.
- ③ 2024년도분 아파트A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김유성이다.
- ④ 만약 김유성 부부가 아파트A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김유성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보다 부부의 아파트A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 ⑤ 김유성이 아파트A를 취득한 날(사실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는 경우 등기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4. 이정민 씨는 부친 이관우 씨의 사망에 따라 2024년 2월 중 상가A를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상가A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 ① 이정민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가A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상가A의 부속토지(건축물 제외)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한다.
- ③ 만약 이정민이 상속받은 상가A의 지분 50%를 2024년 4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세 세율(부가세 포함)은 3.16%이다.
- ④ 만약 이정민이 아파트B를 보유하고 있다면 아파트B의 시가표준액과 상속받은 상가A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⑤ 만약 이정민이 상속받은 상가A 지분 50%를 2024년 4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부는 2024년도 상가A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15. 이남호 씨는 상가A를 매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부를 2024년 2월 완료하였다. 높은 임대료를 위해 2024년 5월부터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단, 상가A 전체를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가정함)

- ① 2024년 5월 상가A에 고급오락장이 설치되는 경우 이남호는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상가A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A의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 ③ 상가A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A의 부속토지(건축물 제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 ④ 상가A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2%이다.
- ⑤ 상가A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A의 부속토지(건축물 제외)는 종합부동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다.

16. 성지원 씨는 2024년 3월에 보유 중이던 토지A(10년 보유)를 양도하고 양도차손 150,000천 원이 발생하였다. 2024년 9월에 보유 중인 다음 토지B(17년 보유)를 양도 후 예정신고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성지원 씨는 최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함)

〈토지B 양도 관련 정보〉

- 양도가액: 800,000천 원(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400,000천 원(실지거래가액)
 - 기타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함
- ※ 토지A 및 토지B는 취득 당시 등기하였으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 ① 29,185천 원 ② 30,600천 원 ③ 44,250천 원
④ 46,150천 원 ⑤ 75,600천 원

17.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백경희 씨가 2024년 10월 중 아파트A(양도가액 요건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 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아파트A 취득일 및 양도일
 - 취득일: 2018년 8월(취득 즉시 등기하였으며, 2019년 2월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함)
 - 양도일: 2024년 10월
- 양도가액: 1,500,000천 원(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1,000,000천 원(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등 기타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함

- ① 5,145천 원 ② 6,660천 원 ③ 7,080천 원
④ 8,100천 원 ⑤ 8,220천 원

18. 다음 '가~다'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및 세율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단, 모두 대주주가 아니며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주식은 없다고 가정함)

가. 이민우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10,000천 원에 구입하여 2024년도 중 20,000천 원에 매도하였다(상장주식의 장내거래).

나. 김철수는 친구A가 사장으로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10,000천 원에 구입하여 2024년도 중 다른 친구B에게 20,000천 원에 매도하였다.

다. 이영희는 비상장기업(중소기업 아님)의 주식을 10,000천 원에 구입하여 2024년도 중 20,000천 원에 매도(보유기간 8개월)하였다.

	가	나	다
①	과세대상 아님	과세대상(세율: 10%)	과세대상(세율: 20%)
②	과세대상 아님	과세대상(세율: 20%)	과세대상(세율: 10%)
③	과세대상 아님	과세대상(세율: 20%)	과세대상 아님
④	과세대상(세율: 10%)	과세대상 아님	과세대상(세율: 20%)
⑤	과세대상(세율: 20%)	과세대상 아님	과세대상 아님

19. 근로소득자였던 송기천 씨는 2024년 1월 중 (주)ABC에서 퇴직하였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송기천의 근속연수: 10년
- 송기천의 퇴직급여액(퇴직소득금액): 300,000천 원

〈참고: 2024년 귀속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대비 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0천 원 + 2,000천 원 × (근속연수 - 5년)

- 환산급여대비 소득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70,000천 원 초과 ~ 100,000천 원 이하	45,200천 원 + 70,000천 원 초과분의 55%
100,000천 원 초과 ~ 300,000천 원 이하	61,700천 원 + 100,000천 원 초과분의 45%
300,000천 원 초과	151,700천 원 + 300,000천 원 초과분의 35%

- ① 35,450천 원 ② 38,990천 원 ③ 40,244천 원
 ④ 50,024천 원 ⑤ 55,574천 원

20. 이준성 씨 부부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계좌에 투자하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가~다’ 중 2024년 귀속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이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가~다’는 각각 별개의 사례이고, 각각 산출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가정함)

- 이준성의 2024년 귀속 총급여액: 80,000천 원
- 박희진의 2024년 귀속 총급여액: 45,000천 원

가. 박희진이 2024년도 중 연금저축펀드에 7,000천 원 납입(이준성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없음)한 경우 박희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

나. 이준성이 2024년도 중 연금저축펀드에 4,000천 원을 납입 및 박희진이 본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본인 부담으로 3,000천 원을 납입한 경우 이준성의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과 박희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의 합계액

다. 이준성이 2024년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7,000천 원을 납입(박희진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없음)한 경우 이준성의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

① 가 > 나 > 다

② 나 > 가 > 다

③ 나 > 다 > 가

④ 다 > 가 > 나

⑤ 다 > 나 > 가

제Ⅵ절

상속설계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평소 우울증을 앓던 이현기는 2009년 2월 10일 집을 나가 10년이 넘도록 생사불명의 상태이다. 이현기의 가족들은 실종선고(보통실종)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2021년 2월 12일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다.

- ① 이현기 사망에 따른 상속세 관할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이현기 상속인의 주소지이다.
- ②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이현기의 사망 간주 시점(상속개시일)은 2021년 2월 12일이다.
- ③ 실종선고에 따른 이현기 상속재산에 대한 원칙적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31일이다.
- ④ 만약 이현기가 2021년 5월 살아 돌아왔다면, 민법상 이현기가 생존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실종선고의 효과는 자동으로 부인된다.
- ⑤ 만약 실종선고가 취소된다면 민법상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박영재 씨는 자필증서유언을 남기고 2024년 5월 사망하였다. 박영재 씨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선희, 아들 박상우, 딸 박현선이 있다. 다음 박영재씨의 유언 및 상속 관련 재산 정보를 고려할 때, 민법상 특별수익을 고려한 박상우 씨의 구체적 상속분(부친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모든 재산 금액은 상속개시시점 기준의 민법상 평가가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박영재의 유언 내용〉

- 아파트A는 배우자 김선희에게 상속함
- 토지B는 딸 박현선에게 상속함

〈박영재 사망 당시 상속 관련 재산 현황〉

- 사망 당시 박영재 명의의 재산 금액
 - 아파트A: 1,000,000천 원
 - 토지B: 500,000천 원
 - 주식C: 500,000천 원
 - 예금D: 300,000천 원
- 사전증여 현황
 - 2008년 1월 중 박현선에게 200,000천 원 증여
 - 2015년 7월 중 박상우에게 300,000천 원 증여

- ① 80,000천 원 ② 300,000천 원 ③ 400,000천 원
 ④ 500,000천 원 ⑤ 800,000천 원

3. 다음 사례에서 민법상 장남 김권진 씨의 상속분[부친 김현수 씨 사망 당시 상속재산(490,000천 원)에서 민법상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각 재산의 금액은 상속개시시점 기준의 민법상 평가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김현수는 유족으로 배우자 최미희, 장남 김권진, 차남 김광우를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490,000천 원이다. 김현수는 사망하기 6개월 전 김광우에게 70,000천 원을 증여하였으며, 김권진의 기여분은 140,000천 원으로 결정되었다.

- ① 50,000천 원 ② 90,000천 원 ③ 100,000천 원
④ 180,000천 원 ⑤ 260,000천 원

4. 다음 사례에서 민법상 A씨 사망에 따른 F의 법정상속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의 가족으로는 배우자B와 자녀C 및 D가 있다. D는 2019년 E와 결혼하여 자녀F가 있다. D는 2023년 5월 사망하였으며, A는 2024년 1월 상속재산 1,500,000천 원을 두고 사망하였다. B는 A 사망에 대한 상속결격자이다.

- ① 300,000천 원 ② 450,000천 원 ③ 600,000천 원
④ 650,000천 원 ⑤ 750,000천 원

5. 김문기 씨는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유언장 전문이 다음과 같을 경우 민법상 유언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유 언 장〉

- 유언자: 김문기(510712-1XXXXXX)
- 주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A아파트 XXX동 XXX호
- 유언사항
 - 가. 지금 살고 있는 A아파트는 아내에게 상속한다.
 - 나. 본인 소유의 B은행에 있는 예금은 장남이 결혼했을 때 장남에게 상속한다.
 - 다. 본인 소유의 C주식은 D대학에 기부한다.
 - 라. 유언집행자로 내 동생 김형기를 지정한다.

2024 2월 11일

작성자: 김문기

(인)

- ① ‘라’ 항목 유언은 민법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② 상속인이 김문기 사망 후 유언서를 발견하였으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만약 김문기가 유언장 작성 이후 C주식을 차남에게 증여했다면 C주식 유언에 대한 내용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④ 유언의 내용에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B은행 예금은 김문기가 사망한 경우 장남이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시 장남에게 상속된다.
- ⑤ 유언장의 전문은 김문기가 자서하였지만 날인은 인장 대신 무인(捺印)에 의한 방식으로 했다면 이 유언장은 자필증서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6. 다음 사례에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민경수(90세)는 2024년 4월 1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민경수의 가족으로 배우자 이예린(90세), 자녀 민현구(60세), 손녀 민혜영(30세)이 있다.

가. 이예린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할 수 있는 고려기간은 이예린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나. 만약 이예린이 상속을 포기하고, 민현구가 한정승인한 경우 손녀 민혜영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 이예린과 민현구가 2024년 5월 1일 상속포기를 했다면 민혜영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의 기산점은 2024년 4월 1일이다.

라. 이예린과 민현구가 2024년 5월 1일 단순승인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2024년 7월 1일에 알게 되었다면(귀책사유 없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한은 2024년 8월 1일까지이다.

- ① 나 ② 가, 나 ③ 가, 다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7. 김길동 씨는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을 유족으로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민법상 배우자의 유류분액으로 맞는 것은? (단, 모든 재산 및 채무 금액은 상속개시시점 기준의 민법상 평가가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김길동 사망 당시 재산, 부채 및 사전증여 현황〉

- 상속개시 시의 상속재산: 200,000천 원
- 상속개시 시의 금전채무: 100,000천 원
-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300,000천 원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음): 400,000천 원
 -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100,000천 원

- ① 120,000천 원 ② 150,000천 원 ③ 210,000천 원
 ④ 270,000천 원 ⑤ 300,000천 원

8. 2024년 5월 15일 사망한 오희택 씨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 부동산 처분 내역 및 채무 부담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 부동산 처분 내역

- 2022년 8월 2일 보유 토지를 230,000천 원에 처분하였으며, 이 중 사용용도가 입증되는 금액은 210,000천 원임
- 2024년 1월 9일 보유 상가를 300,000천 원에 처분하였으며, 이 중 사용용도가 입증되는 금액은 200,000천 원임

• 채무 부담 내역

- 2022년 4월 17일 금융기관에서 400,000천 원을 차입하였으며, 이 중 사용용도가 입증되는 금액은 300,000천 원임
- 2023년 7월 30일 금융기관에서 300,000천 원을 차입하였으며, 이 중 사용용도가 입증되는 금액은 250,000천 원임

① 14,000천 원

② 40,000천 원

③ 50,000천 원

④ 54,000천 원

⑤ 70,000천 원

9. 김영숙 씨는 2024년 8월에 사망하였다. 김영숙 씨의 유족으로는 모친 박정순 씨와 아들 이재현 씨가 있으며, 아들 이재현 씨는 문은진 씨와 결혼하여 자녀 이권진을 두고 있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김영숙 씨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망 당시 김영숙 재산 현황〉

- 상가A
 -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상업용 건물(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 500,000천 원
 - 임대차 관련 사항: 상속개시 이전 1년간 임대료 24,000천 원, 임대보증금 400,000천 원
- 사망 당시 상가A외에 다른 재산은 없으며, 상가A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
- 채무는 상가A 임대보증금(400,000천 원) 외에는 없음

〈장례비〉

- 장례비: 15,000천 원(적격증빙이 있으며,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없음)

〈김영숙의 사전증여 내역〉

수증자	증여일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가액
박정순(모친)	2015.7.	주식B	200,000천 원
이재현(아들)	2018.12.	아파트C	400,000천 원
문은진(며느리)	2020.5.	예금D	100,000천 원
이권진(손자)	2023.10.	상가E	300,000천 원

- ① 590,000천 원 ② 890,000천 원 ③ 985,000천 원
 ④ 990,000천 원 ⑤ 1,390,000천 원

10. 김창훈 씨는 2024년도 중 사망하였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김창훈 씨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창훈 씨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이 있음)

- 상속세 과세표준은 '본래의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공제'로 산출함
- 본래의 상속재산: 1,500,000천 원
- 김창훈이 사전 증여한 재산

수증자	증여일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증여재산 평가가액
배우자	2010.3.	상가	200,000천 원
아들	2016.5.	아파트	300,000천 원

- 상속공제는 다음 항목만 적용함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500,000천 원을 적용함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 순금융재산가액은 50,000천 원이라고 가정함

- ① 750,000천 원 ② 780,000천 원 ③ 790,000천 원
 ④ 980,000천 원 ⑤ 1,280,000천 원

11.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강현수(40세) 씨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강현수의 동거가족 현황〉

- 배우자: 구은교, 40세
- 자녀: 강창희, 17세(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는 2년이라고 가정함)
- 부친: 강일남, 70세, 장애인(기대여명 연수는 15년이라고 가정함)
- 모친: 최혜진, 68세

- ① 70,000천 원 ② 150,000천 원 ③ 270,000천 원
④ 300,000천 원 ⑤ 320,000천 원

12. 다음 김영준(40세) 씨가 현재까지 증여받은 내역을 고려할 때 2024년 5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증여자	증여일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가액
부친	2009.2.	현금	50,000천 원
조부	2017.8.	아파트	500,000천 원
모친	2024.5.	주식	100,000천 원

- ① 0원 ② 10,000천 원 ③ 20,000천 원
④ 30,000천 원 ⑤ 50,000천 원

13. 다음 ‘가, 나’는 2024년도 중 거래된 내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별개의 사례이며, 모두 그 대가가 정당하다고 입증되지 않음)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500,000천 원에 상당하는 상가를 특수관계인에게 1,000,000천 원에 양도하였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100,000천 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780,000천 원에 양도하였다.

	가	나
①	50,000천 원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②	200,000천 원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③	200,000천 원	20,000천 원
④	300,000천 원	20,000천 원
⑤	300,000천 원	120,000천 원

14. 이근우 씨는 사업승계를 위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희망의 주식 중 일부(5,000주)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2024년 1월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주식 평가액(5,000주)으로 적절한 것은? [단,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하지 않으며, (주)희망 관련 현황(지분 현황, 순자산가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변동이 없다고 가정함]

- 2024년 1월 현재 이근우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희망(중소기업이며 비상장법인) 관련 현황
 - 순자산가액(2024년 1월 현재): 400,000천 원
 - 발행주식총수: 10,000주
 -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1주당 순손익액	14,550원	16,530원	16,520원

※ (주)희망의 영업권평가액은 없다고 가정하고,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을 순손익액으로 계산하지 않았으며,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① 127,600천 원 ② 397,333천 원 ③ 565,850천 원
 ④ 640,000천 원 ⑤ 1,112,000천 원

15. 김중찬(60세) 씨는 토지A를 배우자 박희애(55세) 씨에게 부담부증여하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2024년 10월 중 토지A를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채무액 및 증여재산공제만 고려함)

• 토지A 부담부증여 관련 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토지A 증여재산 평가가액: 1,000,000천 원
- 토지A에 담보된 채무액(저당권): 300,000천 원(세법상 채무액 인수 인정)

- ① 10,000천 원 ② 30,000천 원 ③ 40,000천 원
- ④ 135,000천 원 ⑤ 150,000천 원

복합사례

제 2 장

I. 복합사례 I	114
II. 복합사례 II	127
III. 복합사례 III	141
IV. 복합사례 IV	156
V. 복합사례 V	172
VI. 복합사례 VI	188

제 | 절

복합사례 I

김형구 씨는 회사 사정으로 2024년도 중 조기퇴직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조기퇴직 후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싶어 한다. 김형구 씨는 2024년 1월 초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를 만나 재무 상담을 진행하였다.

I. 고객정보(나이는 2024년 1월 초 만 나이임)

- 동거가족
 - 김형구(52세): 대기업 영업부 차장, 상가B 임대사업(개인사업) 운영
 - 이윤희(50세): 부인, 미용실(개인사업) 운영
 - 김보미(20세): 딸,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됨
 - 김수진(18세): 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됨
- 주거상황
 - 경기도 소재 아파트A
 - 아파트A는 2016년 1월 초 구입(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3억 원 받음)
 - 주택담보대출은 20년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대출이율 연 5.0% 월복리 (2023년 12월 말까지 96회차 상환)

II. 고객 재무목표

1. 위험관리(보험설계) 관련

- 김형구 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으로 조기사망 또는 장애 발생에 대비한 충분한 보장이 되는 지 궁금해 한다.
- 김형구 씨는 현재 추가적인 저축 여력이 있어 보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적정수준의 보장금액을 확보할 계획이다.
- 김형구 씨는 커피전문점 운영을 위해 상가를 매수 후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해 한다.

2. 부동산설계 관련

- 김형구 씨는 올해 조기퇴직할 경우를 대비해 상가를 추가로 매수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경우 상가의 수익가치와 매수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3. 세금설계 관련

- 김형구 씨는 추가로 상가를 매수하기 위해 자금이 부족하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가를 매도하고자 하며 이때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될지 궁금해 하고 있다.
- 김형구 씨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경우 세금납부 및 신고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4. 상속설계 관련

- 김형구 씨는 올해 조기 퇴직 후 사업을 하는 도중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 김형구 씨는 사업 중 본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주택을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상속인들 간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III. 경제지표 가정

- 세후투자수익률: 연 4.0%
- 물가상승률: 연 2.0%

IV. 부동산 관련 자산 현황(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 원)

구분	취득일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원가	현재기준시가 /적정시세	비고
아파트A	2016.1.	400,000 /500,000	600,000 /850,000	• 소유자: 김형구 • 김형구 세대가 취득 이후 계속 거주
상가B	2019.8.	200,000 /-	250,000 /350,000	• 소유자: 김형구 • 임대보증금: 100,000 • 월 임대료: 800

※ 기준시가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2024년 기준시가는 2023년도 말과 변동 없음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상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가 건물의 기준시가(부수토지 포함)를 의미

※ 상가B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임

• 상가B에 대한 세부 정보

- 상가B는 김형구가 부친으로부터 2019년 8월(상속개시일) 단독상속(상속받은 즉시 등기함) 받았으며, 상속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시가)은 250,000천 원이었음
- 부친은 상가B를 2015년 8월 200,000천 원에 취득하였음

V. 부부의 국민연금 관련 정보(2023년 12월 31일 현재)

- 김형구의 현재시점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 18년
- 이윤희의 현재시점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

VI. 부부의 보험 가입 정보(2023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종신보험 ^{주1)}	CI보험 ^{주2)}
보험계약자	김형구	이윤희
피보험자	김형구	이윤희
수익자	이윤희	김형구
보험가입금액	150,000천 원	50,000천 원
계약일(년.월)	2013.7.	2014.6.
보험료납입기간	20년납	20년납

주1)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시 주계약에서 150,000천 원, 60세 만기 정기특약에서 50,000천 원이 추가로 지급됨

주2)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시 50,000천 원이며, 재해사망 시(80세 만기) 50,000천 원이 추가로 지급됨

Ⅶ. 자녀 교육 및 결혼 비용 관련 정보

- 자녀교육 관련 정보
 - 김보미는 22세까지 3년간 매년 초에 현재물가기준으로 10,000천 원 필요
 - 김수진은 19세부터 4년간 매년 초에 현재물가기준으로 12,000천 원 필요
 - 대학교육비는 매년 연 3.0%씩 상승
- 자녀결혼 관련 정보
 - 예상 결혼 연령: 김보미 나이 30세, 김수진 나이 32세
 - 결혼비용: 현재물가기준으로 150,000천 원 필요
 - 결혼비용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

※ 상기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답하시오.

(질문하지 아니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문제의 가정은 다른 문제와 관련 없음)

1. 김형구 씨는 조기 퇴직 후 커피전문점 운영에 앞서 혹시 모를 조기사망 위험에 대비하고자 한다. 다음 추가 정보를 고려할 때 2024년 1월 초 김형구 씨가 일반사망 시 니즈분석방법에 따른 추가적인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은 얼마인가?

〈추가 정보〉

- 부인과 자녀의 필요자금(다음의 항목만 필요자금으로 고려함)
 - 2024년 1월 초 현재 아파트A 주택담보대출 잔액
 - 2024년 1월 초 현재 두 자녀의 대학 교육자금(일시금)
 - 2024년 1월 초 현재 두 자녀의 결혼 필요자금(일시금)
 - 막내 독립(김수진 결혼 시점) 전까지 가족양육비: 배우자 이윤희가 계속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을 가정하여 현재물가기준으로 연 24,000천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함
- 준비자금(다음의 항목만 준비자금으로 반영함)
 - 김형구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 김형구 사망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막내 독립 전 까지 수령하는 금액만 고려): 현재물가기준으로 연 7,000천 원이 지급됨(유족연금의 지급중지는 없다고 가정함)

※ 가족양육비는 매년 초 필요하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매년 초 수령하며, 가족양육비와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됨

※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부양가족연금액은 고려하지 않음

① 324,813천 원

② 538,879천 원

③ 543,761천 원

④ 580,406천 원

⑤ 693,761천 원

2. 김형구 씨는 추가적인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을 마련하기 위해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다음 중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의 특징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해약환급금이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나. 보장 니즈의 변경에 따라 사망보험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적립금이 충분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이자부담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수령할 해약환급금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마. 투자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변동하는데, 투자 상황이 악화되었을 시점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나, 다, 라, 마

3. 김형구 씨는 커피전문점 운영을 위해 상가C(보험가액은 300,000천 원이라고 가정함)를 매수하고 화재보험(일반물건) 보통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보험가입금액을 200,000천 원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손해액 100,000천 원과 잔존물제거비용 20,000천 원, 손해방지비용이 10,000천 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재산손해액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손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① 김형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화재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② 재산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은 83,333천 원이다.
- ③ 잔존물제거비용에 대한 보험금은 16,667천 원이다.
- ④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금은 8,333천 원이다.
- ⑤ 화재로 발생된 비용손해가 있다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이므로 재산손해와 마찬가지로 비례보상이 되어 보험금은 총 101,666천 원이다.

4. 김형구 씨는 상가C를 추가로 매수하여 조기퇴직 후를 대비할 예정이다.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가C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상가C의 직접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치를 구해보고 적절한 투자판단을 한 것은?

〈상가C 관련 정보〉

- 상가C의 예상 순영업수익(NOI): 월 4,000천 원
- 김형구가 상가C 투자 시 생각하는 요구수익률: 8.0%
- 은행의 대출이자율: 연 6.0%
- 대출가능 금액: 매입가의 25%
- 상가C의 매도인이 제시하는 금액: 550,000천 원
- 세금과 부대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

- ① 투자가치는 360,000천 원이므로 매도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매수한다면 190,000천 원 손해이다.
- ② 투자가치는 480,000천 원이므로 매도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매수한다면 70,000천 원 손해이다.
- ③ 투자가치는 600,000천 원이므로 매도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매수한다면 50,000천 원 이익이다.
- ④ 투자가치는 640,000천 원이므로 매도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매수한다면 90,000천 원 이익이다.
- ⑤ 투자가치는 800,000천 원이므로 매도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매수한다면 250,000천 원 이익이다.

5.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김형구 씨가 상가C 매수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중 맞는 것은? (단,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 ① 경매기입등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기재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② 상가C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00천 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현재 실질 채무액은 300,000천 원으로 계산한다.
- ③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중도금의 지급 등)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
- ④ 상가C를 매수할 때 기존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단,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므로 상가C를 매수하여 직접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부동산의 현황표시와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건축물대장보다 우선하므로, 상가C 현황과 권리 사항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김형구 씨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가B를 임대(일반과세사업자)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김형구 씨는 상속받은 시점부터 공실 없이 계속 임대 중이며 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상황임)

- ① 김형구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월 임대료 × 6개월 - 재산세 + 간주임대료) × 10%로 계산한 금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만약 김형구가 상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김형구의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④ 김형구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 ⑤ 만약 김형구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500천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한다.

7. 김형구 씨는 개인사업으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싶지만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걱정된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김형구 씨는 사업이 실패하여 채무가 발생한 채로 사망하는 경우 상속채무를 남은 가족들이 승계 받을까 걱정이다. 민법상 김형구 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승인·포기·한정승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가. 이윤희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할 수 있는 고려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

나. 만약 김형구 사망 당시 김보미가 이미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김이수가 있는 경우, 김보미와 김수진은 상속포기를 하고 이윤희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김형구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인은 이윤희와 김이수가 된다.

다. 이윤희가 한정승인을 하려는 경우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 김수진이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였지만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심판하기 전에 이윤희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8. 김형구 씨는 커피전문점 운영을 위한 상가C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가B를 매도하고자 한다. 다음 추가 정보를 고려할 때 상가B 양도 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상가B 양도 관련 추가 정보〉

구분	내용
양도가액	시나리오상 현재 적정시세
취득가액	시나리오 참고
기타필요경비	10,000천 원

- 상가B의 경우 장부 작성 시 건물분 감가상각액을 계상하지 않음

- ① 13,080천 원 ② 13,512천 원 ③ 13,944천 원
 ④ 14,112천 원 ⑤ 14,652천 원

9. 김형구 씨는 2024년 7월 회사에서 퇴직하고 1개월 준비기간을 걸쳐 8월에 커피전문점(개인 사업, 일반과세사업자)을 개업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2024년에 귀속되는 커피전문점 매출과 경비가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가정함)

- 가.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22,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하였다.
 나. 커피전문점 종업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였다.
 다. 2024년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결손금 10,000천 원이 발생하였다.
 라. 김형구는 커피전문점 매출 중 30,000천 원을 본인 급여로 처리하였다.
 마. 2024년 귀속 2기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3,000천 원이 발생하였다.

- ① ‘가’는 복식부기로 작성한 경우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나’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③ ‘다’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④ ‘라’는 사업소득 계산 시 인건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마’는 2024년 귀속분에 해당하므로 2024년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여야 하고 납부시점인 2025년 귀속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10. 김형구 씨는 개인사업을 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 남은 가족들 간 상속재산으로 다툼이 없도록 상속관계를 미리 정해놓고 싶다. 이를 위해 유언으로 아파트A는 이윤희 씨에게 주고 나머지 재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졌으면 한다. 민법상 김형구 씨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가. 이윤희는 아파트A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고 아파트A에 대하여 나머지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나. 김수진의 특별대리인과 김보미가 이 아파트A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그 협의는 유효하다.
다.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개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유효하다.
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김보미가 상가B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갚기로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김보미에게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가 ② 가, 다 ③ 가, 라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제II절

복합사례II

결혼 3년차인 여승준 씨는 주거지 이동 등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재무설계 상담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주변지인을 통해 2024년 1월 초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를 만나게 되었다. 여승준 씨 부부는 이전에 재무설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CFP® 자격인증자와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재무설계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I. 고객정보(나이는 2024년 1월 초 만 나이임)

• 동거가족

- 여승준(35세): 대기업 대리, 근무연수 5년, 은퇴 희망연령 60세
- 장효정(35세): 부인, 외자계기업 과장, 근무연수 8년, 은퇴 희망연령 55세
- 여소영(1세): 딸
- 현재 둘째 계획은 없음

• 부모 및 형제자매

여승준: 2남 1녀 중 막내

- 여인택(70세): 부친, 공무원 은퇴 후 연금생활, 거주용 아파트만 보유
- 성유정(65세): 모친, 전업주부

장효정: 2녀 중 차녀

- 김장선(65세): 장인, 임대소득 및 연금생활
- 서인화(65세): 장모, 전업주부

• 주거상황

- 경기도 소재 아파트A(여승준 명의)
- 아파트A는 2022년 6월 말 3억 원에 전세 입주, 전세자금담보대출 1억 원 받음
- 전세자금담보대출 정보: 변동금리 연 7%, 2023년도 상반기 이후 연 5% 적용 받음
(원금상환은 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417천 원 정도 이자만 내고 있는 중임)
- 여승준 씨 가정은 이전에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아이 출산을 대비하여 현재 아파트로 전세 이주하였음

II. 재무적(정량적) 정보

• 수입 내역

- 여승준: 연수입 60,000천 원, 실수령액 월 3,500천 원 연 1회 보너스(금액은 변동)
- 장효정: 연수입 75,000천 원, 실수령액 월 4,800천 원, 연 1회 보너스(금액은 변동)
- 장효정 씨는 2023년 3월부터 육아휴직 중이며 2024년 3월부터 복직 예정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현재 월 750천 원)

• 지출 내역

- 여승준 용돈 월 300천 원, 장효정 용돈 월 500천 원
(장효정 용돈은 현재는 생활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복직 시 예상금액임)
- 자녀양육비 월 1,500천 원
(이중 1,000천 원은 장모님이 방문하여 자녀 돌보시는 비용으로 지급 중)
- 기타생활비 월 2,000천 원
- 종신보험 포함 보장성보험료 월 500천 원
(이 중 450천 원은 여승준, 장효정 명의 보험으로 양가 부모님이 납입 중. 2022년 9월 장효정 씨가 태아보험 가입 후 보험료 50천 원을 납입 중)

• 자산 내역

- 국내주식 투자액 20,000천 원 (여승준 명의, 5개 종목, 현재시점 종가합산 시 15,000천 원)
- 여승준·장효정 급여통장에 평잔으로 각각 (-)5,000천 원, 15,000천 원
- 자동차(부친 명의 차량 이용 중)

• 부채 내역

- 급여통장을 마이너스통장으로 사용. 현재 잔액은 (-)5,000천 원, 대출금리 6%(1년 고정)

• 저축·투자 내역

- 청약종합저축 매월 100천 원 (여승준 명의, 2019.6. 가입)
- 청약종합저축 매월 100천 원 (장효정 명의, 2017.3. 가입)
- 연금저축 매월 250천 원(여승준 명의, 2023.1. 가입, 연말정산 목적)

- 퇴직급여 내역

- 부부 모두 입사 때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적립금 평가액은 각각 18,000천 원, 32,000천 원

III. 비재무적(정성적) 정보

- 위험수용성향은 여승준, 장효정 모두 성장형임
- 돈 관리의 주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양쪽에서 번갈아 지출하고 있음

IV. 고객 재무목표

1. 부동산설계 관련

- 여승준 씨 부부는 경기도 소재 B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 한다. 매매 또는 전세를 고려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매매를 하고 싶어 한다.

2. 재무관리 관련

- 돈 관리의 주체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지출을 하다 보니 현재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늘어나고 있어 부담스러워 한다. 이에 따라 현금흐름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 있다. 여승준 씨는 가능하다면 빨리 마이너스통장을 없애고 싶어 한다.
- 장효정 씨의 복직으로 수입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기회에 현금흐름 관리를 통해 저축액을 늘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 한다.
- 여승준 씨 부부는 이번 기회에 막연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자녀 양육·교육자금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3. 위험관리(보험설계) 관련

- 여승준 씨 부부의 양가 부모님은 이제껏 납입하고 있던 여승준·장효정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들을 여승준 씨 부부가 가져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 여승준 씨 부부는 딸인 여소영의 돌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필요한 사망보험금을 계산해 보고 이를 고려하여 보험을 정리하고자 한다. 개인실손의료보험은 여소영만 가지고 있고, 여승준 씨 부부는 회사단체실손을 가지고 있다.

4. 투자설계 관련

- 여승준 씨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재작년 주가가 고점일 때, 주변 지인의 조언을 받아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KOSPI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금액은 꾸준히 상환해 왔으며, 현재 보유한 주식들의 투자가치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종목들은 정리하여 재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

V. 경제지표 가정

- 물가상승률 연 4.0%, 세후투자수익률 연 5.0%, 임금인상률 연 3.0%

VI.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 원)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항목		금액	명의	항목		금액	명의
금융 자산	현금성자산			유동 부채	마이너스통장	5,000	여승준
	현금				신용대출		
	CMA			비유동 부채	전세담보대출	100,000	여승준
	보통예금 등	15,000	장효정		임대보증금		
	저축성자산			총부채		105,000	
	정기적금						
	청약종합저축	5,500	여승준				
	청약종합저축	8,200	장효정				
	연금저축	3,000	여승준				
	투자자산						
	해외주식						
	국내주식	15,000	여승준				
	펀드, ETF 등						
	금융자산 총액		46,700				
부동산 자산	주거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토지 등						
	부동산자산 총액						
사용 자산	거주 부동산						
	임차 보증금	300,000	여승준				
	자동차 등						
	사용자산 총액		300,000				
기타 자산	퇴직연금(DC)등	18,000	여승준				
	퇴직연금(DC)등	32,000	장효정				
	보험해약환급금	12,000	가족합계				
	투자목적 미술품 등						
	기타자산 총액		62,000				
총자산		408,700	순자산		303,700		

주) 연금저축은 기납입보험료로 표기하였음

• 월간 현금흐름표(2024년 12월)

(단위: 천 원)

구분	항목	금액
I. 수입		4,250
II. 변동지출	본인 용돈	(300)
	배우자 용돈	-
	부모님 용돈	-
	자녀(보육비, 사교육비 등)	(1,500)
	기타생활비(의식주, 공과금 등)	(2,000)
	변동지출 총액	(3,800)
III. 고정지출	보장성보험료 등	(50)
	대출이자 등	(442)
	고정지출 총액	(492)
저축 여력(I - II - III)		(42)
IV. 저축·투자액	대출상환원금	-
	정기적금	-
	청약종합저축	(200)
	개인연금(연금저축)	(250)
	저축·투자액 총액	(450)
추가저축 여력(순현금흐름)(I - II - III - IV)		(492)

주) 여승준 연소득 60,000천 원, 장효정 연소득 75,000천 원

주) 마이너스통장의 월 대출이자 25천 원, 전세담보대출 월이자 417천 원

※ 상기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답하시오.

(질문하지 아니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문제의 가정은 다른 문제와 관련 없음)

1. 여승준 씨 가정의 현금흐름 관리에 대한 CFP® 자격인증자의 조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장효정의 보통예금통장 잔액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가계비상예비자금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나. 여승준 가정의 경우 가계 현금흐름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금융비용 지출의 결과를 낳았다.
- 다. CFP® 자격인증자인 김재무는 가계 순현금흐름이 (-)이므로 소비통제를 통한 저축 여력 확보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지출의 세부항목들을 일일이 파악하여 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라. 상담시점에서는 가계 순현금흐름이 (-)이므로 장효정 복직에 따른 예상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조언하였다.
- 마. CFP® 자격인증자인 김재무는 여승준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이 여승준 부부의 재무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부합하지 않는 금융상품 등을 조정하여 저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다.

- ① 모두 적절함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⑤ 다, 라, 마

2. 여승준 씨의 딸 여소정의 교육자금으로 19세에 4년제 대학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물가기준으로 대학교 교육비는 연간 10,000천 원이며, 자녀교육비 명목으로 현재 확보된 자산은 없다. 교육비상승률은 연 5.0%, 세후투자수익률은 연 5.0%로 가정하였을 때 매월 말 필요한 저축액은 얼마인가? (대학자금이 필요한 시기는 19세 초이고, 대학자금을 위한 저축은 올해 1월 말부터 한다고 가정)

- ① 300천 원 수준 ② 400천 원 수준 ③ 500천 원 수준
④ 600천 원 수준 ⑤ 700천 원 수준

3. 여승준 씨 부부는 6개월 후 경기도 소재 B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하며 최근 실거래가액은 8억 원이다. 현재시점의 재무상황에서 CFP® 자격인증자의 조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단, 전세만기는 0.5년, 주택가격상승률은 연 2.0%, 물가상승률은 연 4.0%, 세후투자수익률은 연 5.0%, 담보대출가능액은 250,000천 원이라고 가정)

가. 전세만기 시점에서 산정한 부동산 가격은 815,706천 원 정도이다.

나. 아파트B 매수를 위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금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가액인 291,700천 원이 된다.

다. 보유한 금융자산을 전부 부동산구입자금에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이외 필요한 부동산자금 부족액은 약 315,000천 원이다.

라. CFP® 자격인증자인 김재무는 6개월간 저축을 통해 부족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임을 설명하고 부동산 매수 시기를 조정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

① 모두 적절함

② 가, 나

③ 가, 라

④ 나, 다

⑤ 다, 라

4. 다음 중 CFP® 자격인증자가 여승준 씨 가정의 저축 여력 장단기 배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CFP® 자격인증자는 여승준 부부가 원하는 재무목표에 해당하는 필요저축액만을 계산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 나. 이제껏 부모님이 내주시던 보험을 인수하는 시점에 필요한 사망보험금을 계산해 보고 이를 고려하여 보험들을 정리하거나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행위는 투자자산 운용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여승준 부부의 딸 여소정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저축은 안정자산 운용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라. 가계 현금흐름을 통합하여 마이너스통장 등을 상환하고 일정액을 급여통장이 아닌 CMA 등으로 이체하여 가계비상예비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운용자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마. 현재 보유한 주식들의 투자가치를 파악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부 종목들은 정리하여 재투자하는 것은 투자자산 운용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바. 부동산 이전을 위한 단기저축을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투자자산 운용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모두 적절함

② 가, 라, 마

③ 가, 라, 마, 바

④ 나, 다, 바

⑤ 다, 라, 마, 바

5. 여승준 씨는 오늘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을 생애가치방법으로 계산해 보고 준비자금이 필요보장액을 초과할 경우 감액을 통해 보험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입되어 있는 생명보험 가입정보가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으로 적절한 것은?

- 여승준 세후 연소득: 42,000천 원
- 가족부양비: 세후 연소득의 70%
- 예상정년: 59세 말까지 근무 가능
- 부양비에 대한 할인율: 연 5.0%
- 현재 여승준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상품은 종신보험으로 일반사망 시 1억 원, 암 사망 시 1.5억 원, 재해사망 시 2억 원이 지급됨
- ※ 가족부양비는 매년 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① 241,945천 원 ② 314,362천 원 ③ 441,945천 원
 ④ 591,945천 원 ⑤ 621,542천 원

6. 여승준 씨 부부에게 가입되어 있는 4세대 단체실손의료보험이 다음 정보와 같을 경우 CFP® 자격인증자인가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원의료비는 단체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함)

〈단체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

- 2022년 1월 기본형(자기부담금 20%)에 특별약관(자기부담금 30%)이 포함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됨(보험기간 1년, 계약자는 회사, 피보험자·수익자는 여승준 본인임)
- 질병 및 상해 입원 시 통원합산 50,000천 원 한도 보상
- (급여 보장대상 의료비) 질병 및 상해 통원 시 회(건) 당 200천 원
- (비급여 보장대상 의료비) 질병 및 상해 통원 시 회(건) 당 200천 원(연간 100회 한도)

〈질병 통원(외래) 내역〉

통원일	진단명	진료기관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공단부담	
2023년 2월 21일	위궤양	A병원	50,000원	200,000원	165,000원
2023년 3월 13일	위염	B상급종합병원	50,000원	200,000원	205,000원

* 비급여 진료비에는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는 없고 증명서 발급비용이 5,000원씩 포함된 금액임

- ① A병원의 통원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2,000원이다.
- ② B상급종합병원의 통원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00원이다.
- ③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470,000원 중 통원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22,000원이다.
- ④ 최소자기부담금은 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한 병원이 의원급이면 1만 원, 병원급은 1.5만 원, 상급병원은 2만 원이 공제된다.
- ⑤ 회사를 퇴직했을 때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요청 시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이 300만 원 이하로 수령한 경우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7. 여승준 씨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A 주식의 정보가 다음과 같다면 주가를 구하는 과정과 평가가 잘못된 것은?

- 기업의 요구수익률: 10.0%
- 배당성향: 30%
- 자기자본수익률: 8.0%
- 올해 주당순이익: 9,500원
- * 1년 후 추정 주당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PER는 다음과 같다.

$$PER = \frac{\text{배당성향}}{\text{요구수익률} - \text{성장률}}$$

- ① 기업 A의 성장률은 연 5.60%이다.
- ② 1년 후 추정 주당순이익은 10,032원이다.
- ③ 1년 후 추정 주당순이익을 기초로 한 PER는 8.89이다.
- ④ 산업평균의 PER가 7.50일 때 올해의 주당순이익 기준 적정주가는 71,250원이다.
- ⑤ 내년도 추정 주당순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적정주가는 산업평균 PER(올해의 주당순이익을 기준)를 기초로 한 적정주가보다 낮다.

8.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여승준 씨와 투자설계 상담 이후 개별 주식의 고유위험과 시장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목투자보다는 충분한 분산투자를 통해서 시장위험에만 노출되는 연기금의 투자방식의 활용을 조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글로벌 자산에 충분히 자산배분하는 다음의 4가지 펀드를 추천 받았다면 이를 활용한 투자조언 중 적절하지 못한 무엇인가?

구분	연 수익률	표준편차	베타	젠센척도	샤프척도	트레이너척도
펀드A	3.78%	3.55%	1.15	1.23%	0.50	1.55%
펀드B	3.52%	3.12%	1.07	1.28%	0.49	1.42%
펀드C	3.16%	1.95%	1.15	1.29%	0.59	1.21%
펀드D	2.95%	2.10%	0.89	1.26%	0.45	1.07%

* 수익률과 표준편차는 3년 평균 연환산. 4개 펀드 모두 동일한 BM사용

- ① 시장의 수익률 민감도가 가장 높은 펀드는 A, C이다.
- ② 샤프척도는 총 투자위험 대비 펀드의 초과성과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는 펀드는 C이다.
- ③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의 경우 젠센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젠센척도가 가장 높은 펀드C가 투자목적에 적합하다.
- ④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A가 펀드C보다 샤프척도가 낮은 이유는 펀드A의 표준편차가 펀드C보다 높기 때문이다.
- ⑤ 펀드D의 경우 베타가 1미만이므로 4개 펀드 중 상대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9. 여승준 씨 부부는 경기도 소재 B아파트 매입을 알아보던 중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음의 매물을 소개받았다. 다음의 B아파트 정보를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B아파트의 가치로 적당한 것은?

- B아파트 면적: 120㎡
- 거래사례 가격: 6,000천 원/㎡
- 사정보정: 1.00(거래사례는 거래당사자 간의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
- 시점수정치: 0.98(아파트매매가격지수 활용)
- 지역요인 격차율: 1.00(본 건은 거래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격차율(개별요인 격차율은 각각의 요인격차율을 곱하여 계산함)
 - 외부요인: 아파트B와 사례부동산 차이 없음
 - 건물요인: 아파트B가 사례부동산보다 5% 우세
 - 기타요인: 아파트B와 사례부동산 차이 없음

- ① 약 652,280천 원 ② 약 672,000천 원 ③ 약 740,880천 원
 ④ 약 787,250천 원 ⑤ 약 892,460천 원

10. CFP® 자격인증자가 여승준 씨 부부의 종합재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위험관리 상태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으로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여승준 부부와 딸 여소정의 상해, 질병은 일반적 위험에 해당되므로 다른 위험에 비해 후순위로 고려할 수 있다.
- 나. 딸 여소정을 위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심할 경우 주택매입을 잠시 보류할 필요가 있고, 서인화가 손녀딸 여소정을 돌봐주고 있으므로 주택 주변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크게 검토할 필요가 없다.
- 다. 현재 보유 중인 주식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을 상환 후 남은 자금과 보통예금으로 딸 여소정의 대학교육자금(18년 뒤 40,000천 원)을 준비하고자 할 경우 부족자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세후투자수익률은 주식의 경우 연 5.0%, 보통예금의 경우 연 2.0% 가정)
- 라. 여승준이 딸 여소정의 대학졸업시점까지 22년 동안 조기사망에 대해 대비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가 비싼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고려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마. 2024년 3월부터 장효정이 복직하게 되면 현재 추가 저축 여력이(-)에서 (+)로 전환되므로 여승준 가정은 향후 순자산이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나, 다

③ 다, 라, 마

④ 나, 라, 마

⑤ 가, 다, 라

제 III 절

복합사례 III

최수호 씨는 모친이 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설계 방안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고 있다. 최수호씨는 2024년 1월 초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를 만나 재무상담을 진행하였다.

I. 고객정보(나이는 2024년 1월 초 만 나이임)

• 동거가족

- 최수호(50세): 소매업 운영 및 상가임대업 운영, 은퇴 희망연령 80세
- 박은정(45세): 부인, 중소기업 차장, 은퇴 희망연령 55세
- 최현우(18세): 아들, 올해 고2
- 최민주(15세): 딸, 올해 중3

• 부모 및 형제자매

최수호: 3남 중 차남

- 최기돈:부친, 2021년 1월 5일 사망, 사망 당시 나이 80세
- 차윤정(78세):모친,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24년 1월 1일 사망하였으며, 입원하기 전까지 아파트D에서 홀로 거주
- 최인호(54세):형, 배우자 김주희(50세), 자녀 최선영(19세)이 있으며, 가족 모두 최인호 소유 주택에 거주
- 최종인(49세):남동생, 배우자 나미연(48세), 자녀 최한일(16세) 및 최수빈(15세)이 있으며, 가족 모두 최종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

박은정: 3녀 중 막내

- 박선미(75세): 장모, 전업주부, 큰 딸과 동거(자녀 부양)

• 주거상황

- 빌라A는 2016년 8월 초 구입하였으며,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음
- 담보대출은 대출기간 15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4.5% 월복리(2023년 12월 말까지 89회차 상환)

II. 재무적(정량적) 정보

• 수입 내역

- 최수호: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매업 월 평균 매출액 10,000천 원 정도이고, 매출액이익률은 25%이다. 상가 임대수익으로 월 2,500천 원(관리비 포함)이 발생하고 있다.
- 박은정: 연수입 70,000천 원, 실수령액 월 4,500천 원, 연 1회 보너스(금액은 변동)
- 박은정의 은퇴 희망연령은 55세이나, 중소기업 사정상 50세 정도에 은퇴를 예상하고 있다.

• 지출 내역

- 최기돈 용돈 월 1,500천 원, 박은정 용돈 월 800천 원, 박선미(장모) 용돈 월 1,000천 원
- 자녀 용돈 아들, 딸 합해서 월 500천 원
(대학등록금은 6개월 마다 아들, 딸 합쳐서 8,000천 원 정도 발생)
- 기타생활비 월 3,000천 원
- 종신보험 포함 보장성보험료 월 600천 원

• 자산 내역

- 부부의 부동산 관련 정보(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 원)

구분	취득일자	취득당시 취득원가	현재 적정시세	비고
빌라A	2016.8.	650,000	850,000	• 소유자: 최수호 • 최수호 세대가 거주
상가B	2015.5.	400,000	600,000	• 소유자: 최수호 • 최수호가 소매업 운영 중
상가C	2021.1.	-	400,000	• 소유자: 최수호 • 임대보증금: 100,000 • 월임대료: 2,500 •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음 • 부친은 2015년 8월에 취득하였음

※ 상가C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상가로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계약은 2022년도 10월에 이루어져 2024년도 말까지 변동이 없음

• 금융재산 현황

구분	현재 금액	비고
주식	100,000천 원(현재 평가액)	• 5종목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최초 투자금액은 120,000천 원
채권	300,000천 원(액면금액)	•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임 • 이표채 200,000천 원, 복리채 100,000천 원 투자
예금	200,000천 원(현재 금액)	•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임

- 주식, 채권, 예금은 모두 최수호 씨 명의임
- 2023년도 말 박은정 씨 보통예금통장 금액은 45,000천 원
- 노란우산공제 250천 원(최수호 2023.1. 가입, 소득공제 목적)

• 부채 내역

- 최수호 씨는 운전자금 통장으로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잔액은 (-)20,000천 원, 대출금리 연 7.0%(1년 고정)

• 퇴직급여 내역

- 박은정 씨는 2013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적립금 평가액은 64,000천 원

Ⅲ. 비재무적(정성적) 정보

- 위험 수용성향은 최수호 씨는 위험선호형, 박은정 씨는 안정성장형임
- 기타생활비는 박은정 씨가, 그 외 지출은 최수호 씨가 담당하고 있음

Ⅳ. 고객 재무목표

1. 상속설계 관련

- 최수호 씨의 모친은 사망 전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실시했다. 최수호 씨는 사전증여가 상속 설계에서 어떻게 절세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또한 모친 사망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고 있다.
- 상속설계 관련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최기돈(부친) 사망 당시 상속재산 및 상속인 분배 현황(2021년 1월 5일 상속개시일 현재)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평가액	비고
상가C	300,000천 원	* 최수호가 상속받고 등기함
아파트D	500,000천 원	* 차윤정(모친)이 상속받고 등기함
토지E	400,000천 원	* 최윤호(형)가 상속받고 등기함
주식F	200,000천 원	* 최종인(동생)이 상속받고 등기함

② 차윤정(모친) 사망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 및 사전증여 현황(2024년 1월 1일 현재)

• 부동산 재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취득일자 (년. 월)	취득당시 취득원가	현재 적정시세	비고
아파트D	2021.1.	-	600,000	• 소유자: 차윤정 • 최기돈으로부터 상속받음
상가G	2012.5.	250,000	300,000	• 소유자: 차윤정 • 임대보증금: 50,000 • 월임대료: 1,500

※ 상가G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상가로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계약은 2022년도 1월에 이루어져 2024년도 말까지 변동이 없음

• 사전증여 현황

수증자	증여일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가액
최종인 (최수호의 동생)	2008.8.	현금	200,000천 원
최인호 (최수호의 형)	2015.5.	현금	200,000천 원
최수호	2017.1.	현금	100,000천 원

2. 재무관리 관련

- 최수호 씨는 개인사업자로서 80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나, 경기침체로 소매업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 소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해 경기회복시기를 궁금해 하고 있다.
- 최수호 씨는 재무목표 설정에 있어서 은퇴 후 생활비 기반으로 현재 상가C의 임대수익을 더 유지할지 아니면 향후 딸(최민주)에게 부담부증여를 할지에 대해 고민 중에 있다.

3. 투자설계 관련

- 최수호 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의 적정성과 향후 운용방법 등을 궁금해 하고 있다.

4. 부동산설계 관련

- 최수호 씨는 새로운 상가를 매수하여 아들 결혼시점에 증여할 마음이 있어 상가의 현재 시장 가치를 궁금해 하고 있다.

5. 세금설계 관련

- 최수호 씨는 최기돈(부친) 씨로부터 상속받아 보유 중인 상가C를 딸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관련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다.
- 최수호 씨는 경기침체로 인해 현재 소매업 운영 중인 상가B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V.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 원)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항목		금액	명의	항목		금액	명의
금융 자산	현금성자산			유동 부채	마이너스통장	20,000	최수호
	현금				신용대출		
	CMA			비유동 부채	주택담보대출	117,774	최수호
	보통예금 등	45,000	박은정		임대보증금	100,000	최수호
	저축성자산			총부채		237,774	
	정기적금						
	노란우산공제	3,000	최수호				
	정기예금	200,000	최수호				
	연금저축						
	투자자산						
	국내채권	300,000	최수호				
	국내주식	100,000	최수호				
	펀드, ETF 등						
	금융자산 총액		648,000				
부동산 자산	주거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1,000,000	최수호				
	토지 등						
	부동산자산 총액		1,000,000				
사용 자산	거주 부동산	850,000	최수호				
	임차 보증금						
	자동차 등						
	사용자산 총액		850,000				
기타 자산	퇴직연금(DC)등	64,000	박은정				
	퇴직연금(DC)등						
	보험해약환급금	15,000	가족합계				
	투자목적 미술품 등						
	기타자산 총액		79,000				
총자산		2,577,000		순자산		2,339,226	

주) 2024년 1월 시점에서 빌라A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7,774천 원

• 월간 현금흐름표(2023년 12월)

(단위: 천 원)

구분	항목	금액
I. 수입		8,800
II. 변동지출	본인 용돈	(1,500)
	배우자 용돈	(800)
	부모님 용돈	(1,000)
	자녀 용돈	(500)
	기타생활비(의식주, 공과금 등)	(3,000)
	변동지출 총액	(6,800)
III. 고정지출	보장성보험료 등	(600)
	대출이자 등	(563)
	고정지출 총액	(1,163)
저축 여력 (I - II - III)		837
IV. 저축·투자액	대출상환원금	(1,084)
	정기적금	-
	청약종합저축	-
	노란우산공제	(250)
	저축·투자액 총액	(1,334)
추가저축 여력(순현금흐름) (I - II - III - IV)		(497)

주) 최수호 씨의 수입은 월 평균 매출액 10,000천 원에서 매출액 이익률 25% 반영한 월 2,500천 원과 상가 임대수익 월 2,500천 원을 합한 월 5,000천 원(세전, 연 소득 60,000천 원)에서 종합소득세율 반영 후 실수령액 4,300천 원을 가정함

주) 2024년 1월 시점에서 빌라A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1,530천 원 중 대출이자 446천 원, 대출상환원금은 1,084천 원

주) 마이너스통장의 월 대출이자 117천 원

※ 상기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답하시오.

(질문하지 아니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문제의 가정은 다른 문제와 관련 없음)

1. 최수호 씨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매업 매출이 줄고 있어 걱정을 하고 있다. 다음 중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고르시오.

- 가. 높은 실업률
- 나. 내구재 재고 증가
- 다. 국내총생산(GDP) 감소
- 라. 기업이익 감소
- 마. 소비자 지출 회복

- ① 모두 해당됨
- ② 가, 나, 다
- ③ 나, 다, 라
- ④ 다, 라, 마
- ⑤ 가, 나, 다, 라

2.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최수호 씨 부부를 위해 재무설계안을 만들기로 하고, 최수호 씨 부부는 자격인증자에게 애기한 상속 등을 포함한 재무설계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재무는 최수호 씨 부부에게 생명보험 분석을 원하는지 물었고, 최수호 씨 부부는 현재 보험료가 부담되어 상속 등 다른 재무이슈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에서 김재무는 이 사실을 기재했다. 몇 주 후 김재무는 재무설계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수호 씨 부부를 만났다. 그는 재무설계안에서 상속 등 다른 재무이슈에 대한 재무설계안과 더불어 최수호 씨 부부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지불할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은퇴자금을 위한 연금가입 등의 재무설계안을 제시했다. 최수호 씨 부부는 김재무에게 투자로서 연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생명보험에는 관심이 없다고 다시 말했다. 재무설계 프로세스 4단계인 재무설계 제안서 작성 및 제시 과정에서 CFP® 자격인증자의 상담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김재무는 최수호 부부가 생명보험 분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 범위에 넣음으로써 계약의 범위를 적절히 정의했다.

나. 김재무는 최수호 부부에게 생명보험을 권유함으로써 서로 간에 합의한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었다.

다. 김재무는 최수호 부부가 설정한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modify)’해야 하는 이유와 동의를 구하면서 제안을 하였다.

라. 김재무는 생명보험과 관련한 설계안이 어떻게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나, 다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라

3. 최수호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정보가 다음과 같다면, 주식평가에 대한 해석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평가금액	PER			
		올해 EPS 기준	내년 예상 EPS 기준	역사적	산업내평균
종목A	25,000,000	10.34	10.10	9.12	10.44
종목B	28,000,000	9.87	10.22	9.99	9.98
종목C	23,000,000	8.67	8.50	10.40	8.77
종목D	10,000,000	4.45	4.56	3.45	5.15
종목E	14,000,000	5.65	6.12	5.12	4.33
합계	100,000,000				

- ① EPS는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며 주가를 EPS 나누면 PER를 구할 수 있다.
- ② PER는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아도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예측할 때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다.
- ③ 종목A의 내년 예상 EPS를 기준으로 한 PER가 올해 EPS를 기준으로 한 PER보다 낮은 것을 볼 때, 내년 예상 EPS 값은 올해보다 낮다고 추정된다.
- ④ 종목A는 역사적 PER보다 최근(올해, 내년) PER가 높아 고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⑤ PER은 종목 간의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산업자체가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었을 때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4. 현재 채권시장의 수익률곡선은 우상향 곡선의 모습이며, 향후 금리가 상승하며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시장전망을 기초로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최수호 씨의 보유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다음의 조언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니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일반적으로 금리상승기에는 롤링효과를 활용한 투자전략이 금리 하락기보다 더 유리하다.
- ③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단기시장금리의 변화가 장기시장금리의 변화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보다 향후에 솔더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
- ④ 시장의 단기금리가 지금보다 더 하락하는 반면, 장기단금리는 더 상승한다면, 단기금리는 일시적으로 고평가, 장기금리는 저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매매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 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기 보유시에는 수익률곡선의 변화와 상관없이 투자 당시 계산했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5. 상가임대업을 하는 최수호 씨는 새로운 상가를 매수하여 아들 결혼 시점에 증여할 계획이다. 매수하고자 하는 상가의 연간 순영업이익은 50,000천 원으로 기대된다. 대출가능금액은 상가건물 가치의 60%이고 대출조건은 대출기간 20년, 이자율 연 8.0% 월복리, 매월 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최수호 씨가 기대하는 지분환원율이 연 12.0%일 때 상가의 시장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합환원율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의하여 산정)

- ① 약 462,000천 원 ② 약 556,000천 원 ③ 약 630,000천 원
- ④ 약 761,000천 원 ⑤ 약 850,000천 원

6. 최수호 씨는 딸(최민주)에게 2024년 11월 중 상가C를 부담부증여를 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다.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가정 시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상가C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정보〉

구분	금액	비고
증여가액	400,000	시나리오상 현재 적정시세
채무액	100,000	상가C 임대보증금
실지취득가액	300,000	상속 당시 상속재산 평가가액
기타필요경비	10,000	

※ 상가C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으며 복식부기장부 작성 시 건물분 감가상각액을 계상하지 않음

- ① 상가C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1년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 ② 상가C의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300,000천 원이다.
- ③ 상가C의 양도차익은 22,500천 원이다.
- ④ 상가C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21,150천 원이다.
- ⑤ 상가C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350,000천 원이다.

7. 최수호 씨는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상가B의 소매업 매출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반등할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4년 12월 중에 상가B를 양도할 생각이다. 상가의 양도 과정에서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2024년도 11월 중에 상가C를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금액은 20,000천 원,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1,365천 원으로 가정)

〈상가B 양도와 관련된 정보〉

- 상가B의 예상 양도가액: 600,000천 원
 - 상가B의 취득가액: 400,000천 원
 - 상가B의 양도 시 기타필요경비: 15,000천 원
- ※ 상가B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으며 복식부기장부 작성 시 건물분 감가상각액을 계상하지 않음

- ① 43,076천 원 ② 43,906천 원 ③ 44,441천 원
- ④ 44,856천 원 ⑤ 45,806천 원

8. 최수호 씨는 차윤정(모친) 사망 전 실시되었던 사전증여가 어떻게 상속세 절세효과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사전증여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CFP® 자격인증자가 안내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 가. 최종인(최수호의 동생)은 2008년 8월에 차윤정(모친)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증여받았다. 이러한 사전증여 전략은 상속세 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나. 만약 부동산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후 부동산 가치상승분 만큼 상속세 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 다. 만약 차윤정(모친)이 2022년에 최수호의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하였다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라. 만약 2021년에 최기돈(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 아파트D를 차윤정(모친)이 상속으로 취득하지 않고 최수호의 형제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9.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차윤정(모친) 씨 사망에 따른 민법상 최수호 씨의 구체적 상속분(차윤정 씨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상속분) 금액으로 타당한 것은? (단, 상가G의 임대보증금 등 상속채무는 없으며, 사망보험금은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함)

- 차윤정은 사망 전 최인호에게 5억 원을 추가 증여함
- 공동상속인들은 최수호의 기여분으로 100,000천 원을 인정하기로 합의함
- 차윤정 상속 관련 재산의 상속개시시점 기준 민법상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함
 - 부동산재산: 시나리오상 '현재 적정시세'
 - 금융재산: 시나리오상 '현재 금액'
 - 사전증여재산: 시나리오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금액'

① 3억 원

② 3.5억 원

③ 5억 원

④ 5.5억 원

⑤ 6억 원

10. CFP® 자격인증자가 최수호 씨의 재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최수호가 상가C를 딸 최민주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임대보증금 1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인 최수호 씨가 부담한다.
- 나. 모친 차윤정이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반환대상이 된다.
- 다. 최수호가 보유한 주식의 PER는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며 낮을수록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할 수 있고, 배당을 하지 않는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 라. 최수호가 본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상속세를 대비해 종신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배우자인 박은정을 계약자 및 수익자, 최수호를 피보험자로 설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 마. 최수호 가정의 경우 순현금흐름은 (-)이지만 순자산이 (+) 상태이므로 지출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재무상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가,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나, 다, 라

⑤ 다, 라, 마

제Ⅳ 절

복합사례Ⅳ

박규진 씨는 모친이 암으로 위독함에 따라 상속설계 방안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고 있다. 지인소개로 2024년 1월 초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를 만나서 상속설계 및 다른 재무목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1. 고객정보(나이는 2024년 1월 초 만 나이임)

- 동거가족
 - 박규진(53세): 소매업 운영 및 상가임대업 운영(개인사업자)
 - 송정아(48세): 부인, 근로소득자, 연봉 30,000천 원, 은퇴 희망연령 55세
 - 박지은(22세): 딸, 올해 대학교 4학년이 됨
 - 박민주(20세): 딸,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됨
- 부모 및 형제자매
 - 박철수: 부친, 2021년 1월 5일 사망, 사망 당시 나이 80세
 - 이종숙(78세): 모친, 전업주부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입원하기 전까지 아파트D에서 홀로 거주
 - 박인호(54세): 형, 김주희(50세)와 결혼하여 자녀 박선영(19세)이 있으며, 가족 모두 박인호 소유주택에 거주
 - 박재용(49세): 남동생, 최수현(48세)과 결혼하여 자녀 박한일(16세), 박수빈(15세)이 있으며, 가족 모두 박재용 소유의 주택에 거주

II. 고객 재무목표

1. 위험관리(보험설계) 관련

- 박규진 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장금액이 충분한지 궁금해 하고 있다.
- 현재 상가에 보험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

2. 부동산설계 관련

- 임대중인 상가의 임차인이 매출감소로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해지 의사를 알려왔고, 박규진 씨는 당분간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 임대보증금은 담보대출을 통해 반환할 계획이다.
- 박규진 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새로운 임차계약 체결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3. 세금설계 관련

- 박규진 씨는 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소매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임대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 박규진 씨의 종합소득세와 송정아 씨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점검 및 추가적인 절세방안을 검토받고자 한다.

4. 상속설계 관련

- 박규진 씨는 모친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 규모와 가족 간에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 박규진 씨는 모친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III. 자산 세부내역(2023년 12월 31일 현재)

1. 금융자산

(단위: 천 원)

구분	명의	가입일	만기일	투자원금	평가금액 ^{주)}	자금용도
CMA	송정아	2015.4.7.	-	30,000	30,200	-
정기예금	박규진	2022.3.5.	2025.3.5.	60,000	64,000	-
적립식 주식형펀드	송정아	2020.2.10.	-	100,000	120,000	자녀결혼
상장주식	박규진	2015.4.7.	-	120,000	200,000	자녀결혼

주) 즉시 인출 가능하며 인출관련 수수료 및 세금은 없음

2. 부동산자산

(단위: 천 원)

구분	취득일자	취득당시기준시가 /취득원가	현재기준시가 /적정시세	비고
다세대주택 A	2014.8.	200,000 /300,000	340,000 /420,000	• 소유자: 송정아 • 박규진 세대가 거주
상가B	2017.5.	250,000 /400,000	400,000 /600,000	• 소유자: 박규진 • 박규진이 소매업 운영 중
상가C	2021.1.	200,000 / -	300,000 /500,000	• 소유자: 박규진 • 박규진이 상가임대업 운영 중 • 임대보증금: 100,000 • 월임대료: 3,500 • 박철수(부친)로부터 상속받음

※ 기준시가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2024년 기준시가는 2023년도 말과 변동 없음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상가는 국세청장이 선정·고시한 개별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부수토지 포함)를 의미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을 의미

※ 상가C는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계약은 2022년도 5월부터 2년간 계약조건임

3. 보장성보험

(1) 생명보험

구분	종신보험 ^{주1)}	실손의료보험 ^{주2)}	실손의료보험 ^{주2)}
보험계약자	박규진	박규진	송정아
피보험자	박규진	박규진	송정아
수익자	송정아	박규진	송정아
보험가입금액	100,000천 원	• 입원: 하나의 질병당 50,000천 원 • 통원(외래): 회(건)당 250천 원, 약제 50천 원	• 입원: 하나의 질병당 50,000천 원 • 통원(외래): 회(건)당 250천 원, 약제 50천 원
계약일	2011.5.	2019.7.	2019.7.
보험료 납입기간	20년납	1년 갱신형	1년 갱신형

주1) 박규진 사망 시 100,000천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60세 전에 사망하는 경우는 정기특약에서 50,000천 원의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됨

주2) 3세대 실손의료보험 선택형(급여 90%, 비급여 80%) 가입됨

(2) 일반화재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박규진
계약일~만기일	2023.5.15.~2026.5.15.
보험가입금액	• 화재손해(건물): 180,000천 원 • 화재배상책임(폭발 포함): 대인 1.5억 원, 대물 10억 원 • 시설소유자배상책임(화재, 폭발 제외, 자기부담금 10만 원) : 대인 1억원, 대물 10억 원
보험료(연납)	190천 원

Ⅳ. 이종숙(모친) 씨 재산 및 사전증여 현황(2024년 1월 1일 현재)

1. 부동산자산

(단위: 천 원)

구분	취득일자	취득당시기준시가 /취득원가	현재기준시가 /적정시세	비고
아파트D	2021.1.	400,000 /-	450,000 /600,000	• 소유자: 이종숙 • 박철수로부터 상속받음
오피스텔G	2014.5.	100,000 /250,000	250,000 /300,000	• 소유자: 이종숙 • 임대보증금: 50,000 • 월임대료: 1,500

※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오피스텔 건물의 기준시가(부수토지 포함)를 의미하며, 2024년 기준시가는 현재와 변동 없음

※ 오피스텔G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오피스텔로서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계약은 2023년도 10월에 이루어져 2024년도 말까지 변동이 없음

2. 금융자산

구분	현재 금액	비고
집합 투자증권H	300,000천 원 (현재 평가액)	•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임 • 국내 채권형펀드로 환매금지형 아님
예금	200,000천 원 (현재 예금액)	•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임
종신보험J	300,000천 원 (사망보험금)	•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종숙 • 수익자: 박재용 • 총 납입보험료: 100,000천 원 - 총 납입보험료 중 40,000천 원은 이종숙이 납부하였고, 나머지 60,000천 원은 박재용이 납부함

3. 사전증여 현황

수증자	증여일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가액
박재용 (박규진의 동생)	2008.8.	현금	200,000천 원
박인호 (박규진의 형)	2015.5.	현금	200,000천 원
박규진	2017.1.	현금	100,000천 원

V. 박철수(부친) 씨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및 상속인 분배 현황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평가가액	비고
상가C	300,000천 원	박규진이 상속받고 등기함
아파트D	500,000천 원	이종숙(모친)이 상속받고 등기함
토지E	400,000천 원	박인호(형)가 상속받고 등기함
주식F	200,000천 원	박재용(동생)이 상속받음

VI. 경제지표 가정

- 세후투자수익률: 연 4.0%
- 물가상승률: 연 2.0%

Ⅶ. 부부의 국민연금 관련 정보(2023년 12월 31일 현재)

- 박규진 씨의 현재시점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 송정아 씨의 현재시점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

Ⅶ. 자녀결혼 관련 정보

- 박지은 결혼 관련 정보
 - 예상 결혼연령: 박지은 나이 33세
 - 결혼비용: 현재물가기준으로 150,000천 원 필요하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
- 박민주 결혼 관련 정보
 - 예상 결혼연령: 박민주 나이 33세
 - 결혼비용: 현재물가기준으로 150,000천 원 필요하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

※ 상기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답하시오.

(질문하지 아니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문제의 가정은 다른 문제와 관련 없음)

1. 박규진 씨 소유 상가B(일반물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상 상가B 화재로 지급될 보험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험가입 내용
 - 보험가액: 300,000천 원
 - 보험가입금액: 180,000천 원
 - 화재로 인한 손해액 및 비용
 - 재산손해액: 40,000천 원
 - 잔존물제거비용: 10,000천 원
 - 손해방지비용: 5,000천 원
 - 기타협력비용: 5,000천 원
 - 배상책임액(대물): 100,000천 원
- ※ 재고자산은 없다고 가정함

- ① 42,750천 원 ② 136,000천 원 ③ 142,650천 원
④ 142,750천 원 ⑤ 146,250천 원

2. 박규진 씨는 상가B의 화재를 처리하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서 골절상을 입고 다음과 같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박규진 씨의 실손의료보험(3세대) 의료비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처방조제비는 고려하지 않음)

〈입원기간 및 진료비 내역〉

입원기간	진단명	진료기관	급여			비급여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19일	골절	B상급 종합병원	1,400천 원	3,000천 원	200천 원	1,000천 원

* 비급여 진료비에는 상급병실차액과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① 급여 보장대상 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 ② 입원기간 중 1인실을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 기준병실과의 차액의 50%를 약관에서 정한 1일 평균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③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
- ④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060천 원이다.
- ⑤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이었을 경우에도 보험금은 2,060천 원이다.

3. 박규진 씨는 상가B 화재를 겪으면서 가장인 본인의 조기사망위험에 대비하여 생명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박규진 씨가 오늘 사망한다고 가정할 경우 니즈분석 방법에 따른 추가적인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은 얼마인가?

- 부인과 자녀의 필요자금(다음 항목만 필요자금으로 고려)
 - 현재 박지은과 박민주의 결혼 필요자금(일시금)
 - 막내 독립(박민주 결혼 시점) 전까지 가족양육비: 현재물가기준으로 연 24,000천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함
 - 준비자금(다음 항목만 준비자금으로 반영)
 - 박규진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 박규진 사망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막내 독립 전 까지 수령하는 금액만 고려): 현재물가기준으로 연 7,000천 원이 지급됨[유족연금의 지급중지는 없다고 가정함]
 - 모친 이종숙의 상속재산 중 준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 150,000천 원(2024년 1월 초 상속받는다고 가정함)
 - 세후투자수익률 및 물가상승률: 시나리오 참고
- ※ 가족양육비는 매년 초 필요하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매년 초 수령하며, 가족양육비와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됨

① 약 134,901천 원

② 약 234,901천 원

③ 약 284,901천 원

④ 약 334,901천 원

⑤ 약 434,901천 원

4. 박규진 씨는 상가C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박규진 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얼마인가?

〈상가C 담보대출 관련 정보〉

- 은행은 LTV와 DCR 기준 중 낮게 산출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대출가능 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 LTV: 현재 시세의 50%
 - DCR: 1.4 이상
-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5.0% 월복리, 대출기간 10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상가C 관련 현황
 - 연간 순영업소득(NOI): '월임대료×12개월'로 산정함

① 약 167,000천 원

② 약 189,000천 원

③ 약 216,000천 원

④ 약 235,703천 원

⑤ 약 250,000천 원

5. 박규진 씨는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계약 시 주의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규진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②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기간이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박규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③ 박규진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박규진과 임차인은 가능한 표준상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박규진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6. 박규진 씨의 소매업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하고자 하는 경우 박규진 씨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박규진 씨는 항상 복식부기장부에 의해 소매업 및 상가C 임대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함)

〈박규진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내역〉

- 2024년 귀속 사업소득 관련 내역
 - 소매업 사업소득금액: 결손금 10,000천 원
 - 상가C 임대 사업소득금액: 37,000천 원(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전)
 - 2024년 귀속 소매업 및 상가C 임대사업 이월결손금 내역
 - 소매업 이월결손금: 7,000천 원(2023년 발생분)
 - 상가C 임대사업 이월결손금: 5,000천 원(2021년 발생분)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5,000천 원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5,000천 원
 - 박규진의 종합소득공제: 3,000천 원
- ※ 상기 금융소득은 모두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이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임

- ① 박규진의 소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상가C 임대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 ② 박규진의 종합소득금액은 25,000천 원이다.
- ③ 박규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20,000천 원이다.
- ④ 박규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15%이다.
- ⑤ 박규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720천 원이다.

7. 다음 송정아 씨의 2024년 귀속 의료비 지출 내역을 고려할 때 송정아 씨가 2024년 귀속 연말 정산 시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송정아는 자녀(박민주)가 2024년에 21세가 되었고, 박규진과 상의 후 요건이 충족된다면 송정아의 인적공제로 반영하기로 함
 - 송정아의 2024년 귀속 연금보험료 등 지출 내역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액: 1,350천 원
 -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액: 1,200천 원
 - 고용보험료 본인부담액: 270천 원
 - 송정아의 2024년 귀속 교육비 지출 내역
 - 자녀(박지은)의 대학교 교육비: 12,000천 원
 - 자녀(박민주)의 대학교 교육비: 8,000천 원
 - 송정아의 2024년 귀속 의료비 지출 내역
 - 송정아 본인을 위한 의료비: 2,000천 원
 - 박규진을 위한 의료비: 1,000천 원
 - 송정아 가족의 2024년 귀속 소득 내역
 - 송정아의 총급여액: 30,000천 원
 - 박규진 사업소득금액: 1,000천 원을 초과함
 - 자녀(박지은, 박민주)의 소득은 없음
 - 송정아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550천 원으로 가정함
- ※ 송정아가 지출한 교육비는 모두 교육비세액공제 적용대상임
- ※ 송정아가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이고,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고려하지 않음
-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총 한도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소득공제의 합계액	세액공제의 합계액
①	5,820천 원	3,163천 원
②	5,820천 원	3,565천 원
③	5,820천 원	3,700천 원
④	6,320천 원	3,565천 원
⑤	6,320천 원	3,163천 원

8.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이종숙(모친) 씨가 오늘 사망 시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천 원)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비고
아파트D	600,000	
오피스텔G	300,000	
집합투자증권H	300,000	
예금I	200,000	
종신보험	()	시나리오 IV의 2. 금융자산 참고
박재용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	시나리오 IV의 3. 사전증여현황 참고
박인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	
박규진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장례비용과 신용대출 차감 전 금액

- 상속재산에 차감되는 장례비용은 7,000천 원, 금융기관 신용대출 200,000천 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함
-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로 산출하며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만 고려함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중 큰 금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 순금융재산가액은 300,000천 원이라고 가정함
- 상속공제 한도액은 1,290,000천 원이라고 가정함

- ① 246,200천 원 ② 261,200천 원 ③ 270,800천 원
 ④ 333,200천 원 ⑤ 341,200천 원

9. 박규진 씨는 이종숙(모친) 씨가 사망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관계를 미리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종숙 씨의 유언을 미리 받아두고자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이종숙이 자필에 의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자의 인장 날인 없이 서명만 한 경우, 그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고 상속인들이 그 내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다.
- ② 이종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기 위하여 박규진을 통하여 주소와 연월일이 적힌 유언장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여 오게 한 다음 그 유언장에 이종숙 본인이 유언의 전문, 서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효하다.
- ③ 이종숙은 암으로 위독하여 곧 사망이 임박하여 다른 유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게 되자 급히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박규진의 배우자 및 간병인은 유언의 증인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이종숙이 박규진에게 아파트D를 유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유언을 한 경우 이종숙 사망 후 박규진이 세금을 이유로 유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포기와 달리 유증포기의 의사표시로 충분하다.
- ⑤ 이종숙은 유언을 한 이후라도 언제든지 유언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유언의 수유자에게 유언 철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한 경우 유언의 철회가 제한된다.

10. 다음 정보를고려할 때 이종숙(모친) 씨가 사망하는 경우 민법상 박규진 씨의 구체적 상속분 (이종숙 씨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단, 오피스텔G의 임대보증금 등 상속채무는 없다고 가정함)

- 이종숙은 박재용에게 오피스텔G를 유증하는 공증유언을 함
-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가 많은 박재용은 이종숙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고 추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 1억 원씩 증여를 받기로 함
- 이종숙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은 박규진의 기여분으로 100,000천 원을 인정하기로 합의함
- 이종숙 상속 관련 재산의 상속개시시점 기준 민법상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함
 - 부동산재산: 시나리오상 '현재 적정시세'
 - 금융재산: 시나리오상 '현재 금액'
 - 사전증여재산: 시나리오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가액'
 - 종신보험J의 사망보험금은 300,000천 원임

- ① 450,000천 원 ② 550,000천 원 ③ 650,000천 원
 ④ 700,000천 원 ⑤ 750,000천 원

제 V 절

복합사례 V

결혼 10년 차인 이영진 씨는 동생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등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고 있다. 이영진 씨 부부는 2024년 1월 초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를 만나 재무 상담을 진행하였다.

I. 고객정보(나이는 2024년 1월 초 만 나이임)

• 동거가족

- 이영진(40세): 대기업 기획부 과장, 근무연수 11년, 은퇴 희망연령 65세
- 김승혜(40세): 부인, 중소기업 과장, 근무연수 14년, 은퇴 희망연령 65세
- 이승현(8세): 아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됨

• 부모 및 형제자매

이영진: 2남 중 장남

- 이순호(68세): 부친, 개인사업 운영, 부동산 다수 보유
- 박미숙(65세): 모친, 전업주부
- 이도현(35세): 동생, 미혼이며, 2023년 12월 31일 자동차 사고로 사망함
이도현 명의의 경기도 소재 아파트(시가 6억) 보유

김승혜: 무남독녀

- 김창수(70세): 장인, 임대소득 및 연금생활
- 서인선(65세): 장모, 전업주부

- 주거상황

- 경기도 소재 아파트A(이영진 부부 공동 명의)
- 아파트A는 2020년 1월 초 8억에 취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3억 원 받음
- 대출은 15년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대출이율 변동금리 연 2.5% 월복리, 2021년 하반기부터 대출이율 상승, 2023년도 상반기에 약간 하락

II. 재무적(정량적) 정보

- 수입 내역

- 이영진: 연수입 85,000천 원, 실 수령액 월 5,500천 원, 연 1회 보너스(금액은 변동)
- 김승혜: 연수입 45,000천 원, 실 수령액 월 2,900천 원, 보너스 없음

- 지출 내역

- 이영진 용돈 월 500천 원, 김승혜 용돈 월 800천 원, 양가 부모님 1,000천 원, 사교육비 월 1,000천 원, 기타생활비 월 2,000천 원
(이 중 1,000천 원은 장모님이 방문하여 자녀 돌보시는 비용조로 지급 중)
- 종신보험 포함 보장성보험료 월 500천 원
- 현재 매월 대출원리금 상환액으로 2,360천 원 정도 지출

- 자산 내역

- 토지투자(김승혜 명의, 충남 00군 임야, 공시지가 15,000천 원)
- 국내주식 투자액 40,000천 원 (이영진 명의, 5개 종목, 현재시점 종가합산 시 30,000천 원)
- 자동차(이영진 명의, 그랜저 2021년식, 현재 자동차보험상 자차 평가금액 15,000천 원)

- 부채 내역

- 급여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 현재 잔액은 (-)1,200만 원, 대출금리 연 6%(1년 고정)

- 저축·투자 내역

- 청약종합저축 매월 100천 원 (김승혜 명의, 2016.6. 가입)
- 정기적금 매월 500천 원(김승혜 명의, 2023.10. 가입, 1년 만기), 가입목적 없이 시작
- 연금저축 매월 250천 원(이영진 명의, 2018.1. 가입)
- 연금저축 매월 250천 원(김승혜 명의, 2018.1. 가입)

- 퇴직급여 내역
 - 부부 모두 입사 때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 2023년 12월 31일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평가액(이영진: 57,300천 원, 김승혜: 37,500천 원)
- 국민연금 내역
 - 이들 부부 모두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월)연금액은 이영진 씨는 현재물가기준으로 950천 원, 김승혜 씨는 750천 원임

III. 비재무적(정성적) 정보

- 위험수용성향은 이영진, 김승혜 모두 공격투자형임
 - 돈 관리의 주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양쪽에서 번갈아 지출하고 있음
- 이영진 씨 부부는 재무상담 중에 상속 관련 사항 이외에도 전반적인 종합재무설계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재무이슈별로 관심사항과 니즈를 말하게 되었다.

IV. 고객 재무목표

1. 상속설계 관련
 - 이영진 씨와 부모님은 동생 이도현 명의 부동산을 아들 이승현 명의로 상속하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2. 재무관리 관련
 - 이영진 씨 부부는 돈 관리의 주체 없이 각자의 수입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지출을 하다 보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늘어나고 있어 부담스러워 한다. 이에 따라 현금흐름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영진 씨는 1년 이내 마이너스통장을 없애고 싶어 하며, 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 이번 기회에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인생목표를 구체화해보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3. 위험관리(보험설계) 관련
 - 이영진 씨는 동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유사 시에 가족들이 보험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해 한다.
 - 현재 추가저축 여력이 (-)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기를 희망하지는 않고 있다.

4. 투자설계 관련

- 이영진 씨 부부는 부동산담보대출의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다. 향후 금리가 다시 더 올라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재작년 주가가 고점일 때, 주변 지인의 조언을 받아 KOSPI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현재 손실을 보고 있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영진 씨는 최소한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는 주식을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

5. 은퇴설계 관련

- 이영진 씨 부부는 모두 65세에 은퇴를 예상하면서 은퇴기간 동안 필요한 은퇴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동생의 부동산자산 상속으로 이승현의 독립자금을 마련해주고 싶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 이영진 씨 부부 모두 가입 이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평균수익률이 1.8% 정도로 나타나 불만이 많은 상태이다. 이들 부부는 투자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하지만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싶어 한다.

V. 경제지표 가정

- 물가상승률: 연 3.0%,
- 세후투자수익률: 은퇴 전 연 5.0%, 은퇴 후 연 4.0%
- 임금인상률: 연 3.0%

VI.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 원)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항목		금액	명의	항목		금액	명의	
금융 자산	현금성자산			유동 부채	마이너스통장	12,000	이영진	
	현금				신용대출			
	CMA			비유동 부채	담보대출	239,489	이영진	
	보통예금 등				임대보증금			
	저축성자산			총부채		251,489		
	정기적금	1,500	김승혜					
	청약종합저축	9,100	김승혜					
	정기예금							
	연금저축	18,000	이영진					
	연금저축	18,000	김승혜					
	투자자산							
	해외주식							
	국내주식	30,000	이영진					
	펀드, ETF 등							
	금융자산 총액		76,600					
	부동산 자산	주거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토지 등		15,000	김승혜					
부동산자산 총액		15,000						
사용 자산	거주 부동산	750,000	공동					
	임차 보증금							
	자동차 등	15,000	이영진					
	사용자산 총액		765,000					
기타 자산	퇴직연금(DC)등	57,300	이영진					
	퇴직연금(DC)등	37,500	김승혜					
	보험계약환급금	12,000	가족합계					
	투자목적 미술품 등							
	기타자산 총액		106,800					
총자산		963,400		순자산		711,911		

주) 연금저축은 기납입보험료로 표기하였음

주) 부부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리금보장상품(00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만기일: 이영진 2024년 6월 30, 김승혜 2025년 12월 31일

- 부부 모두 '만기자동재예치' 약정이 되어 있으나 현재 디폴트옵션은 지정하지 않은 상태임

주) 주거용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액 750,000천 원

• 월간 현금흐름표(2023년 12월)

(단위: 천 원)

구분	항 목	금 액
I. 수 입		8,400
II. 변동지출	본인 용돈	(500)
	배우자 용돈	(800)
	부모님 용돈	(1,000)
	자녀(보육비, 사교육비 등)	(1,000)
	기타생활비(의식주, 공과금 등)	(2,000)
	변동지출 총액	(5,300)
III. 고정지출	보장성보험료 등	(500)
	대출이자 등	(1,060)
	고정지출 총액	(1,560)
저축 여력(I - II - III)		1,540
IV. 저축·투자액	대출상환원금	(1,360)
	정기적금	(500)
	청약종합저축	(100)
	개인연금(연금저축)	(500)
	저축·투자액 총액	(2,460)
추가저축 여력(순현금흐름)(I - II - III - IV)		(920)

주) 이영진 연수입 85,000천 원, 김승혜 연수입 45,000천 원

주) 2024년 1월 시점에서 원리금균등상환액 2,360천 원 중 대출이자 1,000천 원, 대출상환원금은 1,360천 원

주) 마이너스통장의 월 대출이자 60천 원

※ 상기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답하시오.

(질문하지 아니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문제의 가정은 다른 문제와 관련 없음)

1.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자료수집 단계에서 이영진 씨 부부의 다양한 재무이슈와 관심사 및 니즈를 발견하고 이를 이영진 씨 부부와 공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목표 구체화(설정)에 대해 자격인증자가 설명한 다음 사항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생애주기상 주요 재무목표를 언급함으로써 이영진 부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었다.
 나. 이영진 부부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생목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폐쇄형 질문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 이영진 부부가 생각하는 은퇴자금에 대해 기간과 금액 등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고객의 생각대로 준비하게끔 조언하였다.
 라. 그 외 이영진 부부에게 필요한 재무목표를 자격인증자 스스로 설정하여 고객에게 안내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2.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분석내용 중 바람직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이영진 부부는 국내주식, 연금저축 등의 투자와 부채상환을 각각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기에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나. 이영진 부부는 현재 분양시장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상태이지만 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 다. 이영진 가정의 월 가계 순현금흐름은 (+)이다.
- 라. 이영진 부부는 대출원금 상환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가계 순자산을 증가시킨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기에 현재 뚜렷한 목적 없이 불입하고 있는 정기적금을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마. 소비성부채비율은 12.62%로 위험 소견을 낼 수 있다.
- 바. 주거관련부채상환비율은 21.78%로 위험 소견을 낼 수 있다.
- 사. 총부채상환비율은 31.57%로 적정 소견을 낼 수 있지만 36%의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고 있음을 고지한다.

① 가, 나, 라

② 가, 라, 사

③ 나, 라, 사

④ 나, 마, 바

⑤ 다, 라, 바

3. 다음의 보기 중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제안할 만한 부채관리 전략(재무전략)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부채상환 이전에 가계비상예비자금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여 예기치 않은 추가지출로 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 ② 고객이 막연하게 유지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특히,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 고객의 재무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정리하여 마이너스통장대출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③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2,360천 원은 고정지출로 취급하여 그 외 투자를 증가시킬 방법을 모색한다.
- ④ 고객의 추가저축 여력을 파악하여 (+)가 될 수 있도록 지출부분과 저축·투자액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한다.
- ⑤ 추가저축 여력이 확보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정기적으로 조기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자문한다.

4.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될 수 있는 이도현(동생)씨의 사망보험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가정함)

- 사망자: 이도현(1988년 12월 20일)
 - 사망일: 2023년 12월 31일
 - 과실관계: 사고 후 이도현 씨 과실비율은 40%로 판명됨
 - 이도현 씨의 월평균 현실소득액: 4,500천 원, 직업 정년은 65세임
 -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호프만계수 - 359개월: 219.21, 360개월: 219.61
- ※ 상대방 가해 승용차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되어 있음

- ① 245,537천 원 ② 257,537천 원 ③ 368,306천 원
 ④ 445,578천 원 ⑤ 643,844천 원

5.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이영진 씨가 가입한 다음의 보험가입현황을 바탕으로 현재시점에서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영진 보험가입현황

구분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자	김승혜	이영진	이영진
피보험자	이영진	이영진	이영진
수익자	김승혜	김승혜	이영진
보험가입금액	100,000천 원	20,000천 원	50,000천 원
선택특약	50,000천 원 (재해사망특약, 80세 만기)	-	-
계약일	2018.1.	2018.1.	2020.6.
납입기간/보험기간	20년/종신	20년/90세	15년/15년(재가입)

- 종신보험은 사망 시 계약일부터 1년 경과 시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를 체증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고, 보험가입금액의 200%가 최대한도임
- 암보험은 암진단 시(일반암 20,000천 원, 고액암 40,000천 원)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20,000천 원이 추가로 지급됨

- ① 이영진이 암으로 사망 시 종신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120,000천 원이다.
- ② 이영진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종신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150,000천 원이다.
- ③ 이영진이 고액암으로 진단받고 사망 시 암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진단비 포함)은 40,000 천 원이다.
- ④ 이영진이 암으로 사망 시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50,000천 원이다.
- ⑤ 이영진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가입된 보험에서 지급되는 총 사망보험금은 180,000 천 원이다.

6. 이영진 씨 부부는 부부은퇴기간을 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배우자의 은퇴소득은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종신)으로 충당할 생각으로 부부은퇴기간 중에 필요한 은퇴소득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이영진 씨 부부의 은퇴기간 중에 필요한 은퇴소득규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은퇴기간 중 필요한 은퇴소득규모는 은퇴기간, 월간(연간) 목표은퇴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및 은퇴자산의 세후투자수익률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반 가정에 대한 결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적으로 연간 필요한 은퇴소득은 현재소득수준이나 현재소비지출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하지만 희망하는 은퇴라이프스타일을 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 예상하는 은퇴시기까지 25년이 남은 것을 고려하면 은퇴기간 중 희망하는 은퇴라이프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여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라. 은퇴기간 중 필요한 은퇴소득 수준은 은퇴생활비를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은퇴기간 중 해외여행비나 간병비 등 추가적인 상황이 있다면 설계에 반영하고 현재의 재무상황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 연간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현재 부부의 용돈과 기타생활비의 70% 수준으로 정하면 은퇴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생활비는 342,044천 원이며, 현재 세후소득의 70% 수준으로 정하면 2,343,842천 원이 됩니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마

7.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이영진 씨 부부에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까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라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되면 새로운 운용지시를 할 때까지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현금성자산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 나. 은퇴시점까지 25년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원리금보장상품을 해지하거나 만기도래 시 적립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펀드와 ETF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다.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부담되고 자신이 없다면 투자기간 경과에따라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여 투자위험을 자동으로 낮추어가는 타겟데이트펀드(TDF)를 선택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라. TDF를 선택하는 경우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으로 분석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타겟데이트펀드(TDF) 중 'OOTDF 2045' 나 'OOTDF 2050'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 TDF에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TDF에 적립금의 70%를 투자하고, 나머지 적립금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라, 마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마

8. 현재 이영진 씨가 보유하고 있는 A, B, C, D, E 주식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설명한 투자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종목	평가금액	비중	기대 수익률	변동성 (표준편차)	시장과 상관계수	베타
A종목	5,000,000	16.67%	7.50%	12.45%	1.36	1.62
B종목	8,000,000	26.67%	8.60%	13.45%	1.78	2.29
C종목	5,000,000	16.67%	5.78%	14.66%	1.89	(가)
D종목	7,000,000	23.33%	6.55%	12.78%	1.54	1.88
E종목	5,000,000	16.67%	7.88%	15.46%	1.65	2.44
합계	30,000,000					

* 시장변동성: 10.45%, 무위험수익률 : 3.50%

- ① 현재 보유 주식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7.35%이다.
- ② 현재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에서 비중을 반영한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B이다.
- ③ C종목의 베타(가)는 2.44이다.
- ④ 현재 포트폴리오를 상대적으로 베타가 높은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위해서 2종목을 매도 한다면, A와 D를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일부 종목을 매도하여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할 때 매도 대상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C종목과 E종목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각 최종적으로 종목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해서 결정해야한다.

10.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이영진 씨 부부의 종합재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다음 내용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출원금의 상환은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저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축·투자액으로 분류해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정기적으로 순자산의 증감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인 주식에 대해 이영진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마이너스통장을 없애고 싶어 하고, 추가저축 여력이 (-)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주식투자의 목적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③ 자료를 확인 후 2023년 상반기 금리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환율요인으로 분석해 보면 환율이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이영진 부부는 현재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로 불만이 있는 상태이므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검토하고 운용방법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⑤ 이영진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경과 시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가 체증되는 조건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체증과 무관하게 납입기간 동안 일정하다.

제 VI 절

복합사례 VI

김상도 씨는 갑작스런 자녀 김고은의 교통사고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장기 재무계획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이에 2024년 1월 초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를 만나 재무상담을 진행하였다.

I. 고객정보(나이는 2024년 1월 초 만 나이임)

- 동거가족
 - 김상도(56세): 친구 송명석과 동업하여 제조업체 운영
 - 양은숙(53세): 부인, 상가B 임대업 운영(개인사업자)
 - 김남석(35세): 아들, 중소기업 과장(근속기간 7년), 배우자 박소라와 함께 빌라C에서 거주
 - 김고은(33세): 딸, 중소기업 대리(근속기간 7년),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 2023년 12월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인이 됨

II. 고객 재무목표

1. 위험관리(보험설계) 관련

- 김상도 씨는 딸이 장애인이 됨에 따라 자신이 사망할 경우 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남겨주길 원하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싶다.
- 김상도 씨는 딸 김고은의 후유장애 시 보험금 산정기준에 대한 정보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해 하고 있다.

2. 투자설계 관련

- 김상도 씨는 딸 김고은이 지급받게 될 후유장애보험금에 대해 투자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대안을 요청하고 있다.

- 김상도 씨는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딸 김고은이 지급받게 될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투자포트폴리오가 높은 변동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헤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3. 부동산설계 관련

- 김상도 씨는 본인 명의로 상가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경매물건 또는 매매물건에 대해 투자분석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 김상도 씨는 다양한 투자기법에 따라 분석 후 더 유리한 상가를 매수하고자 한다.

4. 세금설계 관련

- 김상도 씨는 제조업체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신고 방법과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 딸 김고은에게 양은숙 씨 명의 상가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하며,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 하게 될 경우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지 검토를 받고자 한다.

5. 상속설계 관련

- 김상도 씨는 장애인인 딸 김고은을 위해 부부가 사망하더라도 생활자금에 지장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또한 유언대용신탁과 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 궁금하다.

Ⅲ. 김상도 씨 부부의 부동산자산 현황(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 원)

구분	취득일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원가	현재 기준시가 /적정시세	비고
아파트A	2015.5.	400,000 /600,000	670,000 /1,000,000	• 김상도, 양은숙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소유 • 김상도, 양은숙, 김고은 거주 중
상가B	2013.8.	200,000 /300,000	450,000 /600,000	• 소유자: 양은숙 • 양은숙은 상가B를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함 • 임대보증금: 200,000 • 월 임대료: 1,500

※ 기준시가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2024년 기준시가는 2023년도 말과 변동 없음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의미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을 의미

※ 상가B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로 임차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계약은 2023년 8월에 이루어져 2024년도 말까지 변동 없음

IV. 김상도 씨의 개인사업 관련 현황(2023년 12월 31일 현재)

-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함
- 송명석 씨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님
-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손익분배비율은 변동 없음)
 - 김상도: 60%
 - 송명석: 40%
- 김상도 씨와 송명석 씨는 복식부기장부에 의해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계산함
- 공동사업(제조업체)의 공동사업소득금액 현황(2023년 기준)
 - 매출액: 700,000천 원
 - 매출원가: 300,000천 원
 -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 10,000천 원(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00천 원 포함)
 - 종업원 인건비: 80,000천 원
 - 사무실 임차료: 48,000천 원
 - 기타 사업 관련 경비: 40,000천 원(김상도 씨의 가사 관련 경비 20,000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사업 관련 경비임)
 - 벌금: 5,000천 원

V. 김상도 씨 부부의 사전증여 내역

- 김상도 씨의 사전증여 현황

수증자	증여일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가액
김고은(딸)	2013.5.	현금	100,000천 원

• 양은숙 씨의 사전증여 현황

수증자	증여일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가액
김고은(딸)	2018.7.	예금	100,000천 원
김남석(아들)	2019.11.	연립주택C	400,000천 원

VI. 김상도 씨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가 관련 정보

• 상가D 관련 정보(경매 물건)

- 경매 방식: 기일입찰
- 상가D 감정가 및 최저매각가격: 감정평가가격 900,000천 원, 최저매각가격 900,000천 원
- 상가D 등기 현황

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권리금액
2012.4.	소유권 이전(매매)	김대진	
2014.4.	근저당권	XX은행	300,000천 원
2021.5.	전세권	이은선	300,000천 원
2023.8.	가압류	정인철	200,000천 원
2023.12.	전세권(2021.5)에 의한 경매기입등기		

※ 상가D 관련 임차인 및 임대보증금 등은 없으며, 아직 경매가 실시되지 않았음

• 상가E 관련 정보(매매 물건)

- 현재 시세: 1,200,000천 원(토지가액: 800,000천 원, 건물가액: 400,000천 원)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200,000천 원, 월 6,000천 원
- 대출금: 400,000천 원(남은 대출기간 10년, 매년 말 이자만 지급하다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5.0%)
- 상가 매수 시 대출금 승계 조건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 상기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답하시오.

(질문하지 아니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문제의 가정은 다른 문제와 관련 없음)

1. 다음과 같은 사고발생으로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김고은은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과속하던 차량에 치여 후유장해평가율(노동능력상실률) 50%의 판정을 받았으며, 김고은의 과실비율은 20%이다.
- 사고일: 2023년 12월 31일
- 김고은의 생년월일: 1990년 8월 24일
- 김고은의 월평균현실소득액은 3,500천 원, 직업정년은 65세로 가정함
- 김고은의 차량가액: 20,000천 원(출고일 2023년 1월 5일)
- 취업가능월수(379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227.086, 라이프니쯔 계수 190.3622
- ※ 상대방 가해 승용차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되어 있음

- ① 김고은의 차량이 가해차량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의 80%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② 차량의 수리비용이 5,000천 원이 발생했다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로 1,000천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 ③ 김고은의 후유장해에 따라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은 약 333,220천 원이다.
- ④ 후유장해보험금에는 위자료 19,125천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 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로 계산한다.

2. 김상도 씨는 장애인이 된 딸을 위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상품 분석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일반사망보험금 100,000천 원을 보장받기 위한 유니버설 종신보험(20년납)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4,400천 원이며, 20년 경과시점의 해약환급금은 40,300천 원으로 예상
- 일반사망보험금 100,000천 원을 보장받기 위한 정기보험(20년 납입, 80세 만기)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1,835천 원이며 20년 경과시점 만기환급금은 15,260천 원으로 예상
- 저축은 기말에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세후투자수익률은 연 3.0%

- ① 종신보험은 가입초기 7년 기간 동안 사업비 등 보험관계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에 가입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 ② 정기보험은 가입초기 7년 기간 동안 사업비 등 보험관계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에 가입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 ③ 20년 뒤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연간저축액과 정기보험의 연간보험료 합산액은 3,334천 원이다.
- ④ 종신보험 가입 이후 의무납입기간이 지나면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도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실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⑤ 김상도가 80세 이전에 사망한다고 가정할 경우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3. 김상도 씨는 경매물건인 상가D 또는 매매물건인 상가E 중 하나를 취득하고자 한다. 상가D의 분석(시나리오 참고)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김상도가 경매로 상가D 취득 시 김상도는 근저당권(권리자 XX은행)을 인수해야 한다.

나. 김상도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가액은 법원이 공고한 최저매각(입찰)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다. 상가D 경매는 기일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김상도가 경매에 참여하려는 경우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해야 한다.

라. 정인철(가압류권자)은 상가D 경매 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라

4. 김상도 씨는 경매물건인 상가D에 투자할지 매매물건인 상가E에 투자할지 고민 중이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상가D 및 상가E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 김상도는 2024년 1월 초에 상가D 또는 상가E를 매수 후 10년간 보유했다가 10년차 말 매각할 예정임

• 상가D와 상가E 투자 시 현금흐름 관련 정보

구분	상가D	상가E
기간 초 투자액 (대출 및 임대보증금 등을 고려한 금액임)	500,000천 원	600,000천 원
매년의 소득수익 (매년 말 정액으로 발생)	30,500천 원	52,000천 원
10년차 말 상가 매각 시 자본수익 (대출 및 임대보증금 등을 고려한 금액임)	654,275천 원	898,400천 원

• 김상도의 요구수익률: 7.0%

가. 상가D의 NPV는 약 31,314천 원이고, 상가E에 투자하는 것보다 약 2,500천 원 더 이익이다.

나. 상가E 투자 시 수익성지수(PI)는 약 1.37이다.

다. 내부수익률로 판단 시 상가D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가E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라. 수익성지수(PI)로 판단 시 상가E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가D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① 가, 라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5. 김상도 씨는 김고은이 교통사고로 받을 후유장애보험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A, B, C, D의 주식을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안 1, 2, 3에 대한 자격인증자의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보유주식	기대수익률	베타계수(β)*	투자안		
			1	2	3
A	8%	1.5	20%	10%	10%
B	11%	0.8	10%	10%	50%
C	7%	-0.8	30%	10%	30%
D	5%	2.0	40%	70%	10%
합 계			100%	100%	100%

- ①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은 3이다.
- ② 투자안 중 베타계수가 가장 높은 투자안은 2이며 이는 베타계수가 가장 높은 종목인 D의 보유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 ③ 향후 시장의 하락이 예상되면 투자안 1이 시장(KOSPI200)의 변동위험을 가장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④ 소형주 지수를 가장 잘 추종하는 투자안은 2이다.
- ⑤ 대형주 지수를 가장 잘 추종하는 투자안을 선정하려고 할 때, 기준 지수를 변경하여 베타계수를 계산하는 경우 선정되는 투자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6. 김상도 씨는 딸 김고은의 후유장해보험금을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시장위험에서 헤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가. 보유포트폴리오의 KOSPI200에 대한 베타가 1, 평가금액이 10억 원 이라고 할 때, 지수선물인 KOSPI200선물의 매도가격이 350, 거래승수가 25만 원이면 헤지를 위해서 필요한 계약수는 11.42이다.

나. 주가하락 시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를 통해서 헤지가 가능하다.

다. 풋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옵션프리미엄이 낮아서 헤지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 보유포트폴리오가 A와 B의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포트폴리오의 베타와 동일하게 지수선물을 이용하는 헤지전략이 개별종목 A, B의 선물을 이용하는 헤지전략보다 헤지효과가 뛰어나다.

① 가, 라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7. 김상도 씨는 현재 친구 송명석 씨와 동업으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사업장 운영과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안내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247,000천 원이다.

나. 제조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750,000천 원이므로 김상도의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만약 친구 송명석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출자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만약 김상도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⑤ 가, 나, 라

8. 양은숙 씨는 딸(김고은)에게 2024년 10월 중 상가B를 부담부증여 하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상가B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정보〉

구분	금액	비고
증여가액	시나리오상 현재 적정시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채무액	상가C 임대보증금	세법상 채무액 인수 인정
실지취득가액	시나리오상 취득당시 취득원가	-
기타필요경비	12,000천 원	

※ 상가B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① 상가B의 양도차익은 88,000천 원이다.
- ② 상가B의 양도소득금액은 74,880천 원이다.
- ③ 상가B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64,380천 원이다.
- ④ 상가B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400,000천 원이다.
- ⑤ 상가B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350,000천 원이다.

9. 김상도 씨는 본인의 사망 이후에도 장애인이 된 딸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과 후견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의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 가. 법원은 김고은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라도 정신적 제약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할 수 없다.
- 나. 김상도는 유언으로 본인이 사망 후 김고은의 후견인을 지정해 놓을 수 있다.
- 다. 김상도는 신탁업자와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통하여 본인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은 아파트 A의 지분 50%에 대한 위탁자 및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하고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김고은으로 이전하도록 할 수 있다.
- 라.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같은 철회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김상도는 유언대용신탁을 한 이후 언제든지 유언대용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라

10.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김상도 씨의 종합재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김상도가 장애인 딸을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해 김상도가 임대차 및 유지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 제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부동산담보신탁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김상도가 김고은을 위해 종신보험 가입을 할 경우 종신보험상품의 보험가격지수를 비교해 볼 것을 안내했고, 이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험가격지수가 낮을수록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도 낮아진다.
- 다. 양은숙이 현재 임대업으로 운영 중인 상가B를 딸 김고은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에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경우 취득가액도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양도가액 2억에 대해서는 증여자인 양은숙이 양도소득세를 낸다.
- 라. 딸 김고은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전용보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가입할 경우 기존에 가입한 일반보장성보험을 해약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마. 김상도 부부가 장애인인 딸 김고은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장애인 특별부양신탁계약을 작성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마

③ 가, 나, 라, 마

④ 가, 나, 다, 마

⑤ 나, 다, 라, 마

종합사례

제 3 장

I. 종합사례 I	204
II. 종합사례 II	228

제 | 절

종합사례 I

이미연 씨는 최종민 씨와 이혼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상민 씨와 사실혼 관계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러던 중 2024년 4월 1일 박상민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이미연 씨는 재무적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연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를 만나 배우자의 사업체 승계 등 상속 관련 문제, 사망보험금 청구 등 보험 관련 문제, 본인의 노후자금 마련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I. 고객정보(나이는 2024년 4월 초 만 나이임)

- 동거가족
 - 이미연(53세): 본인, 부동산임대업, 박상민과는 사실혼 관계
 - 박진수(15세): 박상민과 이미연 사이의 아들,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 박상민(58세): 배우자, 부동산임대업, 2024년 4월 1일 교통사고로 사망
 - 현수옥(78세): 박상민의 모친, 전업주부
- 기타 관계인
 - 김정숙(53세): 박상민의 전 배우자, 박상민과 18년 전 이혼
 - 박미희(23세): 박상민과 김정숙 사이의 딸, 대학 4학년 재학 중
 - 최종민(61세): 이미연의 전 배우자, 이미연과 이혼
 - 최준석(21세): 이미연과 최종민 사이의 아들, 대학 2학년 재학 중
- 주거상황
 - 이미연 씨는 본인 소유 아파트A에서 박상민 씨의 모친 현수옥, 아들 박진수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II. 고객 재무목표

1. 임대사업 상속 및 승계 관련

- 이미연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박상민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건물A의 상속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임대사업용 건물A는 박상민 씨가 2019년 7월 4일 사실혼 배우자인 이미연 씨에게 1/2의 지분을 증여하여 현재 박상민 씨와 이미연 씨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다. 박상민 씨는 평소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하다가 70세부터 은퇴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혀 왔지만, 별도의 유언은 남기지 않은 상태이다.
- 이미연 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던 임대사업을 승계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박상민과 사실혼인 관계로 박상민 소유의 임대사업용 건물A의 지분을 부동산 임대사업을 승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승계할 수 있다면 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리회사에 위임하여 65세까지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다. 만약, 배우자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올해 말에 임대사업용 건물A를 매각할 생각도 갖고 있다.

2. 박진수 교육자금 관련

이미연 씨는 박상민이 사망하기 전부터 평소 아들 박진수의 교육에 대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배우자가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황이 없는 상태이지만 자녀에 대한 교육 열의는 변하지 않은 상태이다.

3. 사망보험금 관련

박상민 씨는 2024년 4월 1일 자차 운전 중 추돌사고로 사망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본인 과실비율은 40%이며, 가해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박상민 씨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종신보험은 이혼한 박상민 씨의 전 배우자인 김정숙 씨가 수익자로 되어 있다. 이미연 씨는 박상민 장례 후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인 관계로 청구자격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4. 세금 관련

이미연 씨는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2024년 1~3월간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 박상민 씨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2023년 2기 부가가치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상태이다.

5. 은퇴설계 관련

이미연 씨는 상속정리가 끝나면 은퇴생활을 위한 은퇴자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와 확보된 은퇴자산으로 은퇴기간 중 월간 은퇴소득을 어느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이미연 씨가 은퇴기간 중 희망하는 은퇴소득 수준은 현재물가기준으로 매월 500만 원 수준이다.

6. 투자설계 관련

이미연 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저축 및 자녀 해외 유학자금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 또한 은퇴기간 중에 안정적인 은퇴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대안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7. 재무관리 관련

이미연 씨는 배우자 사망으로 재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종합적인 재무전략의 수립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도록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면서 자녀교육자금 및 은퇴자금 마련을 방안 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미연 씨는 평소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로 자녀 박진수의 미국유학을 계획하고 있고, 다른 목표에 우선하여 자녀 유학자금을 일시금으로 확보하고 싶어 한다. 다른 재무목표에 우선하여 마련하고 싶어 한다. 임대사업을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수익으로 자녀 지원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Ⅲ. 재무정보(2024년 4월 1일 현재)

1. 금융자산

(단위: 천 원)

구분	명의	가입일	투자원금	평가금액	자금용도
보통예금	박상민	2006.1.	-	43,000	사업용계좌
MMF	이미연	2018.1.	-	25,000	생활자금
정기예금	이미연	2020.1.	100,000	109,000	-
혼합형펀드	이미연	2021.1.	100,000	127,000	목돈마련
채권형펀드1	박상민	2022.1.	100,000	104,000	은퇴자금
채권형펀드2	이미연	2023.1.	100,000	112,000	은퇴자금
상장주식	박상민	2014.6.	100,000	283,000	목돈마련

2. 임대사업 관련 정보

- 임대사업자: 박상민
- 2023년 사업소득 금액: 240,000천 원
- 임대사업용 건물A

소재지	소유자	연면적	용도	기준시가/ 적정시세
경기도 하남시	박상민(1/2) 이미연(1/2) ^{주)}	1,653㎡	비주거용 임대건물	16억 원/ 24억 원

주) 2019년 7월 4일에 박상민 씨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를 하였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2억 원)

• 임대현황

(단위: 천 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일반관리비(월)	비고
1,200,000	20,000	6,000	공실률: 0%

-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과세표준 신고액: 156,000천 원
 - 부가가치세 납부액: 15,600천 원

3. 거주 부동산(아파트A) 현황

(단위: 천 원)

소재지	명의	취득일	취득가액	적정시세
경기도 하남시	이미연	2015.4.	650,000	1,250,000

4. 보험가입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가입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가입금액	해약환급금
종신보험1	2009.7.1.	박상민	박상민	김정숙	500,000	142,000
종신보험2	2020.7.1.	이미연	박상민	이미연	500,000	29,000

5. 국민연금 예상액

- 박상민(가입기간 30년): 박상민 나이 64세부터 월 1,000천 원
- 이미연(예상 가입기간 35년): 이미연 나이 65세부터 월 1,420천 원

IV.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2024년 4월 1일 현재)

(단위: 천 원)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항목		금액	명의	항목		금액	명의
금융 자산	현금성자산			유동 부채	신용카드	8,500	이미연
	현금				신용대출		
	보통예금	43,000	박상민	비유동 부채	담보대출		
	MMF	25,000	이미연		임대보증금	1,200,000	
	저축성자산			총부채		1,208,500	
	정기예금	109,000	이미연				
	투자자산						
	혼합형펀드	127,000	이미연				
	채권형펀드1	104,000	박상민				
	채권형펀드2	112,000	이미연				
	상장주식	283,000	박상민				
	금융자산 총액	803,000					
	부동산 자산	임대용 부동산	2,400,000				
부동산자산 총액		2,400,000					
사용 자산	거주 부동산	1,250,000	이미연				
	임차 보증금						
	자동차 등	50,000	박상민				
	사용자산 총액	1,300,000					
총자산		4,503,000		순자산		3,294,500	

• 월간 현금흐름표(2024년 3월)

(단위: 천 원)

유입 / 유출	항목	금액
I. 수 입		20,000
II. 변동지출	본인 용돈	(1,500)
	부모님 용돈	(500)
	자녀(사교육비 등)	(3,000)
	기타생활비(의식주, 공과금)	(3,000)
	변동지출 총액	(8,000)
III. 고정지출	보장성보험료 등	(1,500)
	고정지출 총액	(1,500)
저축 여력(I-II-III)		10,500
IV. 저축·투자액	MMF	10,500
	저축·투자액 총액	(10,500)
추가저축 여력(순현금흐름) (I-II-III-IV)		0

※ 저축·투자액 중에 MMF에 매월 투자되는 10,500천 원은 매월 변동 및 고정 지출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MMF에 적립됨

V. 경제지표 가정

- 세후투자수익률: 연 5.0%
- 물가상승률: 연 2.0%
- 부동산가치상승률: 연 3.0%

※ 상기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답하시오.

(질문하지 아니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문제의 가정은 다른 문제와 관련 없음)

1. 이미연 씨 부부의 재무제표와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박상민 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절차가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가.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분할대상 상속재산을 확인한다.
 나.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추정해보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연결한다.
 다. 상속세 납부재원과 납부방법을 검토한다.
 라. 상속인 박미희의 상가지분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상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라, 가, 다 ③ 다, 라, 가, 나
 ④ 나, 다, 나, 가 ⑤ 라, 가, 나, 다

2. 상속인 박미희가 상가지분을 상속할 경우 다음의 보기 중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제안한 재무관리 사항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가계 수입측면에서 감소가 발생한다.
 나. 이미연이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않는 한 자녀 박진수의 유학자금을 일시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수입, 지출면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상속세 납부 이후에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유학 준비자금 일시금, 은퇴자금 등은 현재의 투자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가, 나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나, 다, 마 ⑤ 가, 다, 라, 마

3. 박상민 씨가 다음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박상민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고일: 2024년 4월 1일
 - 박상민 생년월일: 1966년 5월 4일
 - 과실관계: 박상민 과실비율 40%
 - 일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400천 원, 직업정년은 65세로 가정함
 - 박상민의 차량가액: 50,000천 원(출고일 2023년 4월 5일)
 - 취업가능월수(85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72.634, 라이프니츠 계수 71.454
- ※ 상대방 가해 승용차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되어 있음

- ① 차량이 가해차량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의 60%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② 자동차가 출고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추돌 당해 수리비용이 15,000천 원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로 2,250천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 ③ 박상민 사망에 따라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149,782천 원이다.
- ④ 사망보험금 중 박상민의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⑤ 혼인의 출생자인 박진수의 친권자로 이미연이 지정된 경우 사망보험금의 50%를 이미연이 수령할 수 있다.

4. 시나리오에 제시된 보험가입 내역을 바탕으로 한 보험상품 관련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박상민이 사망함에 따라 종신보험2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529,000천 원이다.
- 나. 종신보험1의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 수익자가 이혼으로 수령권한이 없어 1순위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 다. 종신보험2의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이자 사실혼 배우자인 이미연에게 지급된다.
- 라. 종신보험1의 보험료를 박상민이 전액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마. 종신보험2의 보험료를 이미연의 임대소득으로 전액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다, 라, 마

⑤ 나, 다, 라, 마

5. 이미연 씨는 박상민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재무 CFP® 자격인증을 통하여 상속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민법상 상속관계에 대해 자격인증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 ①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 ② 상속인이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 의사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④ 미성년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상속재산의 분리는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을 의미한다.

6. 박상민 씨의 사망 시 민법상 상속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단, 상속재산분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 ① 이미연은 박상민의 모친인 현수옥이 사망하는 경우 박상민의 대습상속자로서 상속 받을 수 있다.
- ② 김정숙은 이혼한 배우자로서 재혼 전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③ 최준석, 박진수, 박미희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④ 박미희가 사망하는 경우 박진수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3순위 상속인이 된다.
- ⑤ 박상민의 모친인 현수옥은 유일한 상속인에 해당한다.

7. 박상민 씨 사망에 따른 민법상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가.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세 신고와 달리 정해진 법정 기간이 없으므로, 상속인은 상속이 발생한 이후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나. 이미연이 박진수를 법정대리하여 박미희와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였다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다. 박진수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이다.

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① 가, 나

② 나, 라

③ 가,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다, 라

8. 박상민 씨의 상속인들은 박상민 씨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을 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으며,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의 규모와 납부방법에 대하여 고민 중에 있다. 다음의 정보를 고려하였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장 적절한 설명은?

〈추가 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평가가액
 - 임대사업용 건물A: 상속재산 평가가액은 3,200,000천 원(50% 지분 소유)
 - 사망보험금: 시나리오상 '보험가입 내역의 가입금액'를 참고하며,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150,000천 원이 지급된다.
 - 보통예금: 43,000천 원
 - 채권형펀드1: 104,000천 원
 - 상장주식: 283,000천 원
 - 자동차 등: 50,000천 원
 - 사전증여: 2019년 7월에 임대사업용 건물A를 이미연에게 50%를 부담부증여
 - * 이미연이 증여 당시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2억 원임
- 일반 장례비는 10,000천 원(증빙서류 존재),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는 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보통예금, 채권형펀드1, 상장주식, 보험금만 적용하여 계산하며 그 외의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상기에 제시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으로 가 정하며 위 정보 외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상속세 산출세액은 728,000천 원이다.
- ② 상속세 신고 시 분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 시 순금융재산은 부채를 차감한 480,000천 원이 된다.
- ④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간주상속재산금액(사망보험금)은 1,150,000천 원이다.
- ⑤ 상속세 과세가액은 2,320,000천 원이다.

9. 박상민 씨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은 박상민 씨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시점 기준 민법상 평가는 금융자산, 자동차와 부동산 각각 시나리오에 기재된 '현재 적정시세', '평가금액'으로 함. 단, 자동차 시세는 사고를 고려하지 않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24년 4월 1일 박상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상속재산 중 건물A의 지분 1/2은 박미희의 소유로 한다.

상속재산 중 00은행 보통예금 43,000,000원은 박미희의 소유로 한다.

상속재산 중 00증권사 채권형펀드1 104,000,000원은 박진수의 소유로 한다.

상속재산 중 00증권사 상장주식 283,000,000원은 박진수의 소유로 한다.

상속재산 중 승용차(37-누-1234)는 박미희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24년 4월 00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17-00번지

성명: 000 (인)	주민번호: 000000-1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이하 생략		

가. 박진수와 박미희의 민법상 상속분은 각각 840,000천 원이다.

나. 상가건물A의 임대보증금은 박미희 및 박진수에게 300,000천 원씩 귀속된다.

다. 박상민의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권은 이미연이 승계한다.

라.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유효하다.

마. 협의분할을 한 경우 박진수는 박미희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10. 이미연 씨는 박상민 씨와 임대사업용 건물A를 공동 소유(지분 및 수익분배비율은 50%)하고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 지에 대한 것에 고민을 하고 있다. 다음의 정보를 고려할 때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 관련 정보〉

- 2024년 임대사업 관련 총수입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240,000천 원
- 임대사업 관련 필요경비: 90,000천 원
- 일반관리비는 고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 관련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가정
- 각 인별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종합소득공제: 5,000천 원
- 박상민과 이미연은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며, 건물임대와 관련하여 건물분 감가상각비와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않음
- 박상민 사망일은 2024년 4월 1일이며 박상민의 지분 50%는 이미연이 유증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가정

가. 박상민과 이미연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박상민과 이미연의 임대 관련 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 박상민의 2024년 귀속 소득세 산출세액은 822천 원이며, 2024년 10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라. 이미연의 2024년 귀속 소득세 산출세액은 28,765이다.

※ 단, 2024년은 윤년이 아니며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11. 이미연 씨는 박상민 씨의 사망으로 생전에 임대를 통하여 수취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 중에 있다. 다음의 정보를 고려하였을 때 2024년 1기분(1월 1일~6월 30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안내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24년 1기(1.1. ~ 6.30.)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보〉

- 과세표준 신고액: 156,000천 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5,600천 원
- 일반관리비는 고려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사업자가 아님
- 박상민과 이미연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건물분 감가상각비와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않음
- 박상민 사망일은 2024년 4월 1일이며 박상민의 지분 50%는 이미연이 유증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가정

- ① 이미연의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7,800천 원이 된다.
- ② 만약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500천 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로 인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③ 박상민이 4월 1일 사망하였기 때문에 2024년 1분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납부액 15,600천 원 중 1월~3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에 지분비율만큼 곱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해당 임대사업장에서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 ⑤ 만약 이미연이 건물A를 유증받고 더 이상 임대를 희망하지 않고 건물A를 처분하여 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 전일까지이다.

12. 박미희는 박상민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건물A의 지분 50%를 상속받아 이미연 씨와 함께 계속 임대 중에 있다. 만약, 이미연 씨와 박미희가 2024년 12월 중에 건물A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경우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법상 과세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양도와 관련된 정보〉

- 양도가액
 - 2024년 12월 중 건물A를 3,000,000천 원에 양도
 - 임대보증금 1,200,000천 원을 제외한 1,800,000천 원을 수취
- 취득가액
 - 박상민은 2010년 2월에 임대사업용 건물A를 1,000,000천 원에 매입
 - 이미연은 2019년 7월에 박상민으로부터 지분 50%를 부담부증여로 취득(건물A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1,600,000천 원)
 - 2024년 4월에 박미희는 잔여 50%를 상속 취득(건물A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2,400,000천 원)
- 기타 필요경비
 - 이미연, 박미희 각 필요경비 10,000천 원(적법한 경비에 해당하며 증빙서류 존재) 지출

※ 오피스텔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으며 임대업 장부작성 시 건물분 감가상각액을 계상하지 않음

- 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적용한다.
- ② 이미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223,830천 원이다.
- ③ 자녀(박미희)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90,260천 원이다.
- ④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시 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적용한다.
- ⑤ 이미연의 양도소득금액은 690,000천 원이다.

※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문제13~14번]의 질문에 답하시오.

- 자녀교육 관련 정보
 - 자녀 박진수의 나이 19세에 외국 4년제 대학에 입학함
 - 유학자금: 연속된 기간(4년) 동안 매년 초에 현재물가기준으로 연간 80,000\$
- 유학자금 마련 자원
 - 박진수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세 및 박상민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은 전액 유학자금 마련 재원으로 투자함(박진수의 상속재산은 자동차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462,000천 원으로 가정)
 - 유학자금은 현재시점부터 입학시점까지 4년간은 세후투자수익률 5.0%로 운용
 - 유학기간(4년) 중에는 세후투자수익률 4.0%로 운용
- 박진수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및 박상민의 2023년 및 2024년 1/4분기 귀속 종합소득세는 120,000천 원으로 가정함
- 교육비상승률: 연 3.0%
- 현재시점 환율: 1,300원/1\$

13. 이미연 씨는 평소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로 자녀 박진수를 미국유학 보낼 계획을 갖고 있고, 자녀 유학자금은 다른 재무목표에 우선하여 마련하고 싶어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이미연 씨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박진수가 유학기간(4년) 동안 필요한 유학자금을 현재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평가한 금액은 461,502천 원이다. (현재시점은 2024년 1월 초임)
- 나. 박진수가 상속받은 재산 중 상속세와 박상민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잔액을 유학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37,679천 원을 더 투자하여야 한다.
- 다. 박진수가 상속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상속세와 박상민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상속재산이 필요한 유학자금을 초과한다.
- 라. 만약, 자녀의 유학자금 전액을 이미연 명의의 재산으로 준비하여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마. 자녀의 유학자금은 유학기간 중 미국달러로 지출해야 하므로 장래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환헤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나, 라, 마

④ 가, 나, 라, 마

⑤ 나, 다, 라, 마

14. 이미연 씨는 박진수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기간뿐만 아니라 유학기간 중에 환율이 심하게 변동하는 상황이 되면 준비한 유학자금이 부족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의 위험을 헤지하면서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표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투자(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달러 환전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음)

- 가. 현재의 환율을 기준으로 박진수의 유학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게 되면 유학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하게 되면 필요한 유학자금이 남게 된다.
- 나. 박진수의 유학기간 중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입학시점에 필요한 유학자금의 일시금은 원화기준으로 473,121천 원 수준이 된다.
- 다. 박진수의 유학기간 중 원/달러 환율이 1,200원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현재시점에서 필요한 유학자금의 일시금은 원화기준으로 350,473천 원 수준이 된다.
- 라. 박진수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시점에서 달러표시 금융상품에 200,000\$를 투자하고, 부족한 금액을 원화표시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추가적으로 94,552천 원이 필요하다.
- 마. 박진수의 유학자금을 전액 원화로 투자하고 달러대 원화 환율상승 위험(원화가치 하락)을 헤지할 수 있는 선물환 매도 거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다, 라, 마

⑤ 나, 다, 마

※ 이미연 씨의 은퇴설계와 관련한 다음의 추가정보를 참고하여 [문제15~18번]의 질문에 답하시오.

- 은퇴기간: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
- 목표은퇴소득
 - 은퇴생활비: 현재물가기준으로 연 60,000천 원
- 자녀 지원 및 은퇴 전 생활비
 - 보유재산 중 주택은 박진수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재산으로 합의함
 - 현재부터 65세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수익은 생활비 및 자녀교육자금 지원에 사용
 - 올해 말에 상가건물A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은 자녀 유학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와 생활비 지출에 사용
- 기타 가정
 - 은퇴저축(투자)에 대한 위험수용성향: 안정추구형
 - 은퇴기간 중 은퇴자산에 대한 세후투자수익률: 연 5.0%
 - 금융상품에 대한 세후투자수익률

(단위: %)

구분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	정기예금
세후투자수익률(연)	6.0	5.0	4.0	2.5
표준편차	15	8	5	0

*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의 상관계수: -0.15, 혼합형펀드와 채권형펀드의 상관계수: 0.2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의 상관계수: 0.3

- 은퇴생활비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은 매년 초에 발생하며 물가상승률만큼 증가됨

15.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이미연 씨에게 합리적인 은퇴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언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은퇴생활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비용을 추정하여 은퇴소득 목표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자녀 박진수에 대한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을 자녀교육자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은퇴소득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라.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수익 중 은퇴저축에 사용할 금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 배우자 박상민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실혼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다.

-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16. 이미연 씨는 현재 박상민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을 매월 600천 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미연 씨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65세부터 수급하는 경우 목표로 하는 은퇴생활비 확보를 위한 총은퇴일시금의 규모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817,605천 원 ② 910,543천 원 ③ 1,071,227천 원
 ④ 1,200,680천 원 ⑤ 1,337,163천 원

17.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이미연 씨에게 은퇴자산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은퇴시점에서 확보되어야 할 총은퇴일시금을 12억 원으로 가정함)

가. 이미연의 경우 은퇴까지 12년이 남아있고, 위험수용성향이 안정추구형인 점을 고려하여 은퇴자산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은 위험등급이 낮은 펀드 등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 종신보험2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은퇴소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채권형펀드2와 함께 세후수익률이 연 6.0%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를 하면 은퇴기간 중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 종신보험2의 사망보험금 중 400,000천 원을 은퇴소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채권형펀드2와 혼합형펀드로 세후투자수익률이 연 5.0%인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은퇴시점까지 투자한다면 은퇴기간 중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라. 종신보험2의 사망보험금 전액, 채권형펀드2, 혼합형펀드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은퇴시점까지 투자하여 은퇴자산으로 사용한다면 투자포트폴리오의 세후투자수익률을 약 4.2%가 되도록 구성하여 투자하면 목표은퇴소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마. 만약,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자녀 유학자금 용도로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 채권형펀드2와 혼합형펀드와 임대소득으로 추가저축을 하여 목표로 하는 은퇴자산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저축의 기대수익률을 세후 연 5.0%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약 47,425천 원을 매년 초에 12년 동안 저축(투자)하면 됩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라, 마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다, 라, 마

18. 이미연 씨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 700,000천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은퇴시점까지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포트폴리오는 현재 은퇴자산 용도로 투자하고 있는 채권형펀드2를 포함하여 주식형펀드로 구성하려고 한다. 은퇴자산의 세후투자수익률 연 5.0%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천 원)

구분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①	296,845	403,155
②	331,685	368,314
③	350,000	350,000
④	374,556	325,444
⑤	410,363	289,637

19. 이미연 씨는 임대목적의 상가A를 수익환원법으로 가치평가를 해보기로 하였다. 향후 5년간 더 임대하면서 지금 받는 임대료와 일반관리비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5년 후에는 현 적정시세에 매년 부동산가치상승률을 적용하여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후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여 수익가치를 구하시오. (임대보증금, 각종 세금 및 중개보수는 없다고 가정)

- ① 약 2,391,080천 원 ② 약 2,690,589천 원 ③ 약 2,803,417천 원
 ④ 약 2,935,262천 원 ⑤ 약 3,031,000천 원

20. 이미연 씨가 임대목적의 상가A를 계속 관리 및 운영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점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②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③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 ④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 II 절

종합사례 II

결혼 3년차인 박상우 씨는 부동산 투자 여부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재무설계상담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주변지인을 통해 2024년 1월 초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를 만나게 되었다. 박상우 씨 부부는 이 전에 재무설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자격인증자와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종합재무설계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I. 고객정보(나이는 2024년 1월 초 만 나이임)

- 동거가족
 - 박상우(35세): 외자계기업 대리, 근무연수 5년, 은퇴 희망연령 60세
 - 최윤선(35세): 중소기업 과장, 근무연수 8년, 은퇴 희망연령 55세
 - 2024년 출산 계획(둘째 계획은 없음)
- 부모 및 형제자매
 - 박상우: 2녀 1남 중 막내
 - 박부친(70세): 부친, 공무원연금으로 생활, 서울 아파트(시가 25억) 거주, 시골주택(공시가격 62,100천 원) 보유
 - 최윤선: 2녀 중 차녀
 - 최장인(65세): 장인, 임대소득 및 연금생활
 - 서장모(65세): 장모, 전업주부

- 주거상황

- 경기도 소재 25평 아파트(최윤선 명의)
- 아파트는 2021년 9월 1일 6.1억에 구입
(현재 실거래가액 5.25억,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3.8억 받음)
- 담보대출 대출기간은 1년 거치 후 39년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은 고정금리 연 3.0% 월복리(거치기간 종료 후 2023년 12월 말 현재 16회차 상환)

II. 재무적(정량적) 정보

- 수입 내역

- 박상우: 2024년 연수입 66,000천 원, 실수령액 월 4,400천 원, 연 3회 보너스(금액은 변동)
- 최윤선: 2024년 연수입 64,000천 원, 실수령액 월 4,300천 원, 연 1회 보너스(금액은 변동)
- 최윤선 씨는 이모티콘 제작으로 2023년도 약 4,000천 원(필요경비 2,400천 원)의 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지출 내역

- 박상우 용돈 월 400천 원, 최윤선 용돈 월 400천 원
- 기타생활비 월 2,500천 원
- 실손보험 포함 보장성보험료 월 250천 원

- 자산 내역

- 정기예금 125,000천 원(박상우 명의, 2023.2. 가입, 1년 만기)
- 국내주식 투자액 50,000천 원(박상우 명의, 5개 종목, 현재시점 종가합산 시 45,000천 원)
- 박상우·최윤선 씨 급여통장에 평잔으로 각각 11,000천 원, 16,000천 원
- 자동차(박상우 명의 2021년 구입. 현재 자동차보험상 자차 평가액 20,000천 원)

- 부채 내역

- 담보대출 잔액 373,000천 원
- 최윤선 씨 회사대출로 30,000천 원의 신용대출 사용 중(무이자)

- 저축·투자 내역

- 청약종합저축 매월 100천 원(박상우 명의, 2019. 6. 가입)
- 청약종합저축 매월 100천 원(최윤선 명의, 2017. 3. 가입)

- 연금저축펀드 매월 250천 원(박상우 명의, 2022.7. 가입, 연말정산 목적, 가입 후 수시로 추가납입하였으며 현재 평가액은 35,000천 원)
- 정기적금 매월 300천 원(박상우 명의, 2023.5. 가입, 1년 만기, 현재잔액 2,400천 원)
- 퇴직급여 내역
 - 부부 모두 입사 때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적립금 평가액은 박상우 씨 18,500천 원, 최윤선 씨 28,800천 원

III. 비재무적(정성적) 정보

- 위험수용성향은 박상우, 최윤선 씨 모두 성장형
- 돈관리의 주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양쪽에서 번갈아 지출
- 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

IV. 고객 재무목표

1. 부동산 설계 관련

- 최윤선 씨는 직장 근처이고 인프라가 더 좋은 경기도 소재 B아파트로의 이전에 관심이 있다.
- 박상우 씨는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 갭투자를 한 후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일 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 투자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B아파트의 가격이 10억 원 정도여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2. 재무관리 관련

- 혼인신고 전이라 부동산 관련 대출상환은 최윤선 씨가, 부동산 관련 저축·투자는 박상우 씨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흐름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 있다.
- 부동산 갭투자 플랜과 대출조기상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박상우 씨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비중이 높은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3. 위험관리(보험설계) 관련

- 박상우: 2012.9. 실손의료보험 가입(월 32,000원) 2021.8. 종합건강보험 가입(월 13만 원). 박상우 씨는 모친이 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본인의 암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박상우 씨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1,000천 원이다.
- 최윤선: 2003.8. 건강보험 가입(납입완료), 2012.11. 실손의료보험 가입(월 40,000원)

최윤선 씨는 부모님이 가입하신 건강보험을 본인이 유지하다가 납입을 완료하였다.

최윤선 씨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1,200천 원이다.

- 박상우 씨 부부는 2024년에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어, 현재 보험료 수준이 적절한지 궁금해 하고 있다.
- 박상우 씨 부부는 근무하는 회사의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23년도부터 단체실손 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4. 투자설계 관련

- 박상우 씨는 재작년 주가가 고점일 때 주변 지인의 조언을 받아 KOSPI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 현재 보유한 주식들의 투자가치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고 일부 종목 들은 정리하여 부동산 투자를 원하고 있다.

5. 은퇴설계 관련

- 박상우 씨 부부의 경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현재 연말정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은퇴 이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자 시에 연금저축펀드를 정리하여 보태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 은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월 예상 수령액 등을 궁금해 하고 있다.

6. 세금설계 관련

- 박상우 씨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연금저축펀드의 추가납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액공제 효과를 궁금해 하고 있다.
- 최윤선 씨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모티콘 제작수입)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궁금해 하고 있다.

V. 경제지표 가정

- 물가상승률 연 4.0%, 세후투자수익률 연 5.0%, 임금인상률 연 3.0%

※ 상기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답하시오.

(질문하지 아니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문제의 가정은 다른 문제와 관련 없음)

1.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빈칸을 채워서 상담시점에서의 박상우 씨 가정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시오.

• 재무상태표(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 원)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항목		금액	명의	항목		금액	명의	
금융 자산	현금성자산			유동 부채	마이너스통장			
	현금 / 보통예금		박상우		신용대출		최윤선	
	현금 / 보통예금		최윤선		비유동 부채	주택담보대출		최윤선
	저축성자산				임대보증금			
	정기적금		박상우	총부채		403,000		
	정기예금		박상우					
	청약종합저축		박상우					
	청약종합저축		최윤선					
	연금저축펀드		박상우					
	투자자산							
	해외주식							
	국내주식		박상우					
	펀드, ETF 등							
	금융자산 총액		248,100					
	부동산 자산	주거용 부동산						박상우
수익형 부동산								
토지 등								
부동산자산 총액		62,100						
사용 자산	거주 부동산		최윤선					
	임차 보증금							
	자동차 등							
	사용자산 총액		525,000					
기타 자산	퇴직연금(DC)등		박상우					
	퇴직연금(DC)등		최윤선					
	보험계약환금금		박상우					
				최윤선				
	투자목적 미술품 등							
기타자산 총액		56,300						
총자산				순자산				

주) 주택담보대출 380,000천 원의 작년 말 16회차 원금 445,000원, 이자 934,000원 상환 후 잔액 약 373,000천 원

• 월간 현금흐름표(2023년 12월)

(단위: 천 원)

유입 / 유출	항목	금액
I. 수 입		
II. 변동지출	본인 용돈	
	배우자 용돈	
	부모님 용돈	
	자녀(사교육비 등)	
	기타생활비(의식주, 공과금)	
	변동지출 총액	
III. 고정지출	보장성보험료 등	
	대출이자 등	
	고정지출 총액	
저축 여력(I-II-III)		
IV. 저축·투자액	대출상환원금	
	정기적금	
	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펀드	
	저축·투자액 총액	
추가저축 여력(순현금흐름) (I-II-III-IV)		

주) 박상우 연수입 66,000천 원, 최윤선 연수입 68,000천 원

주) 최윤선 회사대출 월이자 0원

2.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분석내용 중 바람직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박상우 부부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펀드 등의 투자를 하고 있어서 국내주식, 연금저축펀드 등의 투자와 부채상환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나. 상담과정에서 박상우 부부는 현재 분양시장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재무목표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 다. 박상우 가정의 월 가계 순현금흐름은 (-)이다.
- 라. 박상우 부부는 대출원금 상환이 가계 순자산을 증가시킨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막연하게 돈을 모으고자 정기적금을 하고 있다.
- 마. 주거관련부채상환비율은 12.73%로 위험 소건을 낼 수 있다.
- 바. 총부채부담율은 44.65%로 과다 소건을 낼 수 있다.
- 사. 부동산투자 등의 목적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명의별로 자산과 부채가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 전이라도 보유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라, 바

③ 나, 다, 라, 마

④ 다, 라, 마, 바

⑤ 라, 마, 바, 사

3. 재무설계 프로세스 3단계에서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박상우 씨의 부동산 투자플랜을 분석·평가하였다. 시나리오의 재무제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정을 할 경우 박상우 씨가 지금부터 추가로 저축해야 할 매월 말 저축액은?

- 박상우는 현재 10억 원인 경기도 소재 B아파트를 3년 후에 갭투자하려고 한다.
- 해당 B아파트 전세의 최근 실거래가액은 3.5억 원이다.
-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2.24억으로 가정한다.
- 시골주택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 주택가격상승률은 연 2.0%, 물가상승률은 연 3.0%, 세후투자수익률은 연 3.0%, 담보대출 가능액은 임대 이후 3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 전세보증금의 상승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약 1,370천 원 ② 약 13,700천 원 ③ 약 1,850천 원
 ④ 약 18,500천 원 ⑤ 정답 없음

4. 다음의 보기 중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제안할 만한 부채관리 전략(재무전략)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가. 부채상환 이전에 가계비상예비자금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여 예기치 않은 추가지출로 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나. 고객이 막연하게 유지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특히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 고객의 재무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정리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조기상환을 제안한다.

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1,380천 원은 고정지출로 인식시켜 그 외 투자를 증가시킬 방법을 모색한다.

라. 추가저축 여력을 확인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정기적으로 조기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자문한다.

마. 박상우 부부가 부동산투자보다 부채상환을 선행하고자 선택할 경우 사실혼관계에서의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선행하도록 자문한다.

① 가

② 다

③ 라

④ 나, 마

⑤ 가, 라, 마

5. 다음의 보기 중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제안할 만한 재무관리 설계안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가계 저축 여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이전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재무목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나. 혼인신고를 선행하고 배우자 간 수입·지출의 현금흐름을 통합하여 관리할 것을 고려하도록 자문한다.
- 다. 안정자산으로서 연금저축펀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을 자문한다. 또한 보장자산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장플랜을 유지하도록 조정을 유도한다.
- 라. 투자자산으로서 막연한 저축, 투자보다는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조기상환을 검토한다.
- 마. 안정자산의 유지와 집중적인 대출조기상환을 위해 가계비상예비자금의 필요성과 확보를 강조한다.
- 바. 분양시장에 참여할 의사는 없고 청약당첨 가능성도 낮으나 만일을 대비하여 청약종합저축을 현재와 동일한 금액으로 불입해 갈 것을 권고한다.

① 가

② 다

③ 바

④ 나, 마

⑤ 가, 다, 바

6. 박상우 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분석내용과 조기사망에 따른 재무상태 검토결과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박상우 부부의 연간 가계지출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및 박상우 본인의 지출비용의 합으로 계산하되, 박상우 본인의 지출비용은 월 1,000천 원임
- 총부채는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잔액으로 가정함
- 박상우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반영하지 않음
- 금융자산은 별도 투자목적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박상우가 가입한 종합건강보험에서는 질병사망 시 10,000천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됨

- ① 박상우 부부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2세대 실손으로 입원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보장되며,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 차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박상우가 조기사망에 대비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최윤선, 피보험자를 박상우로 하는 월 20만 원대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는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박상우가 질병으로 조기사망할 경우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5년간의 연간 가계지출 비용을 준비해 주고자 한다면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은 316,940천 원이다.
- ④ 보장성보험 부담비중은 약 2.3%로 연령대별 가이드라인 8~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⑤ 보장성보험 부담비중 가이드라인을 10% 이내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조기사망에 대비하여 사망보장보험을 가입 시 보험료는 월 660천 원 수준까지 가능하다.

7.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회사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개인실손의료보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입시켜준 실손의료보험도 중지할 수 있다.
- 나.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하여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다. 단체실손의료보험 보험사와 보험계약자(회사) 간 특약이 체결돼 있다면 박상우 부부가 각각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경우 보험료는 회사로 환급되기 때문에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라. 중지제도를 활용 후 퇴직 시에는 단체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금을 2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는 별도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야 함을 설명했다.
- 마.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단했다 다시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당시 실손의료보험과 재개 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나, 마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8. 박상우 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정보가 다음과 같다면 주식 평가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단위: 원)

구분	A종목	B종목	C종목	D종목	E종목
현재가	10,000	10,000	30,000	15,000	25,000
EPS	1,200	1,200	5,000	2,000	6,000
BPS	5,000	5,000	30,000	3,000	4,000
산업평균 PER	15	15	10	15	5
시장 PER	8				

- ① 단순 PER만 비교할 경우 A종목이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산업평균 PER와 비교할 경우에는 D종목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 ③ PBR 기준으로 볼 때 D종목의 주가가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
- ④ 시장 PER와 비교할 경우에는 E종목의 주가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 ⑤ E종목은 유일하게 PBR이 PER보다 높다.

9. 박상우 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2종목을 처분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구분	평가금액	베타계수 ^{주)}	샤프척도	트레이너척도	상관계수 ^{주)}
종목A	9,000,000	0.73	0.45	1.60	0.67
종목B	9,000,000	1.15	0.50	1.10	0.53
종목C	9,000,000	0.93	0.59	1.30	0.90
종목D	9,000,000	0.85	0.70	1.50	0.97
종목E	9,000,000	1.04	1.00	1.70	0.95
합계	45,000,000				

주) 베타계수, 상관계수는 시장지수(KOSPI200지수) 기준으로 계산

가. 시장지수와 수익률 민감도가 높은 종목은 B, E이다.

나. 보유하고 있는 5종목을 시장지수와 상관관계로 구분하여 2그룹으로 구분하면 A와 B종목을 한 그룹으로, C, D, E 종목을 다른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다. 시장지수와 상관계수 및 총위험대비 수익률을 고려하여 2종목을 처분한다면 D와 E를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연금저축펀드(35,000천 원)와 개별 주식을 종합해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연금저축펀드를 국내 주식시장에 충분히 잘 분산되어 있는 인덱스펀드에 투자한다면, 초과성과를 위해서 종목A와 종목E를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가, 라

② 가,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10. 박상우 씨는 연금저축펀드를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다. 1년 후 실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68.27%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범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것은?

구분	기대수익률	변동성(연)	투자비중	베타
펀드A	3%	5%	50%	0.55
펀드B	7%	12%	50%	1.12

* 펀드A와 펀드B의 상관계수는 0.23

* 베타는 KOSPI200지수 대비의 값이다.

- ① -16.03% ~ 26.03% ② -12.00% ~ 22.00% ③ -9.02% ~ 19.02%
- ④ -3.50% ~ 13.50% ⑤ -2.01% ~ 12.01%
11. 최윤선 씨와 박상우 씨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B아파트는 현재 10억 원 정도인데, 이 가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아지므로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 ② 수요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 ③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구매력이 확실한 사람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 ④ 관심 있는 아파트 주변에 기존의 지하철노선이 연장되는 등 교통정책이 발표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⑤ 아파트 평면도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일자리가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등도 아파트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

12. 최윤선 씨 명의의 경기도 소재 25평 아파트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지금 평가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면적의 바로 아래층 세대와 달리 발코니 확장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가치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6.1억 원으로 구입하였으므로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현 상황에 맞게 보정하여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거래사례를 찾았으나 그 거래사례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해당 사례는 거래사례로 적당하지 않다.
- ④ 아파트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없다.
- ⑤ 매수인 우위시장에서는 평가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실제 거래될 수 있다.

13. 최윤선 씨 명의의 경기도 소재 25평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의 지급이 없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지만 가능한 계약금을 받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 ② 매수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이 매수하는 것인지 법인의 대표자가 매수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둔다.
- ③ 매매가 성립되면 최윤선은 경기도 소재 25평 아파트를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④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아파트 가격 상승 분위기가 되어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싶다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쉽게 해제할 수 있다.
- ⑤ 최윤선이 직장일로 바빠서 남편 박상우에게 대신 매매계약을 맡긴 경우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면 무권대리가 되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14. 최윤선 씨와 박상우 씨 모두 경기도 소재 B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매수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입대금 뿐만 아니라 중개보수, 취득세 등 다양한 부대비용도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
- ②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매수할 것인지, 공동명의로 매수할 것인지 정하고 예상되는 보유세도 계산해 보아야 한다.
- ③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므로 인근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살펴 보아야 한다.
- ④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도 최윤선의 직장 근처라는 장점을 이유로 실거주만족도를 위해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⑤ 갭투자 할 것을 목적으로 매입한다면 실거주할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는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

※ CFP® 자격인증자는 이들 부부가 60세부터 은퇴생활을 시작하기로 하고 은퇴기간 중 (월)은퇴 소득 목표를 현재물가기준으로 퇴직 전 월소득의 77% 수준인 5,500천 원으로 합의하고 은퇴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은퇴설계를 위한 물가상승률은 부부의 동의를 얻어 장기물가상승률인 연 2%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추가적인 은퇴설계 정보를 참고하여 [문제 15~16번]의 질문에 답하시오.

• 은퇴기간

구분	현 직장 퇴직희망연령	은퇴기간	
		은퇴시기	은퇴기간
박상우	60세	60세	25년
최윤선	55세	55세	35년

• 국민연금 관련 정보

(단위: 천 원)

구분	예상 총가입기간	연금수급 개시 연령	2024년 1월 소득액	65세 (월)연금액 ^{주1)}	
				현재의 A값, B값 기준 ^{주2)}	장래의 A값, B값 기준 ^{주3)}
박상우	360개월	65세	5,500	1,284	4,317
최윤선	336개월	65세	5,333	1,223	4,237

주1) 박상우 60세, 최윤선 55세까지 가입하고, 65세에 도달하여 첫째 수급하는 (월)연금액임

- 가입기간에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은 반영하지 않음
- 연금수급직전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 2023년 적용 A값: 2,861,091원, 2053년 적용 A값: 10,656,661원
- 부부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소득월액(B값)
 - 박상우: 17,596,566원, 최윤선: 18,587,950원

주2) 가입자 전체 소득상승률 및 부부 각각의 소득상승률 연 0%, 소비자물가상승률 연 2.0%를 적용

주3) 가입자 전체 소득상승률 연 4.4%, 부부 모두 소득상승률 연 3.0%, 소비자물가상승률 연 2.0%를 적용

• 퇴직연금 관련 정보

(단위: 천 원)

구분	퇴직연금 가입시기	사용자부담금	2024.1월 퇴직연금 평가액	운용방법
박상우	2018.12.	25,186	18,500	성장형MP
최윤선	2015.12.	37,432	28,800	성장형MP

* 이들 부부가 선택한 성장형 모델포트폴리오(MP)의 기대수익률은 5.0%임

* 예상 퇴직시점에서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박상우는 퇴직소득의 5.66%, 최윤선은 2.38%임

* 은퇴기간 중 연간 목표은퇴소득은 월 목표은퇴소득을 12개월로 곱한 금액이 매년 초에 필요한 것으로 가정함

• 은퇴기간 중 은퇴자산에 대한 세후투자수익률: 연 4.0%

15. 박상우 씨 부부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A값) 상승률은 연 4.4%, 박상우 씨의 평균기준소득월액(B값) 상승률은 연 3.0%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가.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5세이며, 65세에 지급받는 매월 연금액은 현재물가기준으로 박상우 씨는 월 2,383천 원, 최윤선 씨는 2,339천 원으로 합산 4,722천 원 수준입니다.
- 나. 부부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은 박상우 씨는 32.5%, 최윤선 씨는 28.8% 수준입니다.
- 다. 부부 모두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지급되는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개시연령 기준 노령연금액의 70%가 평생 지급됩니다. 장래 연금수급 예상기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할지 아니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라. 향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관련된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연금보험료, 연금액 수준 및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기간 중 향후 연금제도 변경에 따른 연금액이 변화하는 경우 추가적인 은퇴소득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나, 라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16. 박상우 씨 부부는 60세부터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부부의 은퇴생활비 총당 방안에 대한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의 제안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최윤선의 경우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액을 은퇴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평가하면 65세부터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을 은퇴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많다.

나. 박상우의 경우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을 은퇴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평가하면 60세부터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액을 은퇴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많다.

다. 박상우 부부가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들 부부가 은퇴기간 중 필요한 총은퇴일시금은 현재물가기준으로 864,037천 원이다.

라. 박상우 부부가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들 부부가 60세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총은퇴일시금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은퇴자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라

17. 박상우 씨는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연말정산 시 절세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자격인증자인 김재무 CFP®가 안내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금저축펀드는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② 박상우가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 ③ 박상우는 현재 월 25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부하고 있다. 추가적인 절세를 고려한다면 해당 연금저축펀드에 월 5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④ 박상우는 현재 월 25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부하고 입사 때부터 가입한 퇴직연금에 월 75만 원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108만 원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⑤ 만약 박상우가 은퇴생활 중에 해당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18. 최윤선 씨는 디자인 전공자로 대학졸업 후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8년차에 과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중에 있다. 그 동안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사업체를 설립하여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윤선 씨에게 간단한 디자인이나 이모티콘 제작을 의뢰하고 있으며 최윤선 씨는 이모티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부수입을 획득하고 있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소득세법상 2024년 귀속분 최윤선 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2024년 예정 귀속 최윤선 소득 및 소득공제 내역〉

- 근로소득금액: 40,000천 원
- 프리랜서 사업수입금액: 4,000천 원(필요경비 2,400천 원)
- 종합소득공제: 5,000천 원

가. 최윤선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나. 최윤선의 종합소득금액은 41,600천 원이다.

다. 최윤선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4,230천 원이다.

라. 만약 프리랜서 사업수입금액이 일시적 용역으로 보아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법정필요경비율 60%, 원천징수세율 20%)으로 과세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으므로 종합과세하는 경우보다 분리과세하는 경우가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 단,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가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⑤ 나, 다, 라

19. 박상우 씨의 부친은 은퇴생활을 위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아파트를 처분하고 시골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소득세법상 2024년 5월 중 서울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서울 아파트 양도와 관련된 정보〉

- 양도가액: 2,500,000천 원
 - 취득일자: 2005년 12월 15일(현재까지 계속 거주)
 - 취득가액: 1,000,000천 원
 - 토지 양도 시 기타필요경비: 20,000천 원
- ※ 서울 아파트는 양도일 기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다고 가정
 ※ 시골주택은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① 만약 시골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769,600천 원이 된다.
- ② 서울 아파트는 중과대상인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므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 ③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888,000천 원이 된다.
- ④ 만약 시골주택이 농어촌주택 중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된다면 그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 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 시 산출세액은 37,599.6천 원이 된다.

20. 박상우 씨의 부친은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고 남은 일부 자금으로 박상우 씨 가게의 부채를 대신 상환해 줄 것을 고려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안내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정이자율은 4.6% 가정)

- ① 박상우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친으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릴 경우 그 자금을 박상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 ② 만약 부친이 박상우에게 무상으로 3억 원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③ 증여예시 규정 중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만약 부친이 박상우의 부채를 대신 상환할 목적으로 3억 원을 변제 조건 없이 금전을 지급한다면 그 3억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⑤ 만약 부친이 박상우에게 1.5%의 이자율로 3억 원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의테스트

제 4 장

I. 단일사례	254
II. 복합사례 I	272
III. 복합사례 II	288
IV. 종합사례 I	301
V. 종합사례 II	328

제 | 절

단일사례

1. 진영민 씨는 5년 전 주택을 구입하면서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상환 부담을 느끼던 중 최근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A은행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 주는 B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진영민 씨가 B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시 매월 감소되는 원리금상환액으로 적절한 금액은? (단, 대환대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 A은행 대출 내역
 - 대출일자: 2019년 1월초
 - 20년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
 - 대출금액: 150,000천 원
 -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9.0% 월복리
- B은행 대환대출 내역
 - 대출일자: 2024년 1월초
 - 15년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
 - 대출금액: A은행 대출금의 60회 상환 후 잔액
 -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6.0% 월복리

- ① 약 80천 원 ② 약 83천 원 ③ 약 227천 원
 ④ 약 230천 원 ⑤ 약 275천 원

2. 한현주 씨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적립식펀드에 2024년 1월부터 투자하고자 한다. 다음 한현주 씨의 재무상태표 정보를 고려할 때 2023년 12월 31일 기준 순자산과 2024년 12월 31일 기준 순자산 금액의 차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세금 및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재무상태표 관련 정보(2023년 12월 31일 현재)〉

- 금융자산
 - CMA 평가금액: 10,567천 원
- 부동산
 - 현재 거주 중인 주택A(사용자산) 평가금액: 600,000천 원
 - 5년 전 주택A 구입 시 250,000천 원의 대출(대출기간 20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4.0% 월복리)을 받았으며, 2023년 12월 31일 현재까지 60회 차 상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 작성을 위한 추가 정보〉

- 적립식 펀드: 2024년 1월부터 5년간 매월 말 500천 원씩 정액으로 투자함
- CMA 수익률: 연 1.5% 월복리
- 주택A: 주택가격상승률 연 3.0%,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상환 중
- 자산의 평가금액
 - 적립식펀드: 투자금액에 대해 세후투자수익률 연 5.0%를 적용하여 평가함
 - CMA, 주택A: 2023년 12월 31일 평가금액에 CMA 수익률, 주택가격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평가함

- ① 약 16,470천 원 ② 약 23,741천 원 ③ 약 24,267천 원
 ④ 약 34,308천 원 ⑤ 약 34,468천 원

3. 임채우 씨는 본인 나이 60세 시점에 은퇴자금으로 300,000천 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임채우 씨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시작한 후 10년이 지난 시점(현재)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모니터링 후 올해 말 저축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0년 전(2014년 1월 초)
 - 임채우 나이: 40세
 - 세후투자수익률 연 6.0%를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20년간 매년 말 정액으로 저축함
 - 현재시점(2024년 1월 초)에서 모니터링 결과
 - 임채우 나이: 50세
 - 과거 10년간 저축한 자금의 세후투자수익률은 연 6.0%를 가정했었으나 실제로는 연 4.0%로 이루어졌음
 - 향후 저축할 자금은 세후투자수익률 연 5%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함
 -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액 적립금 중 긴급 사업자금으로 2024년 1월 초 시점에 30,000천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 신규 저축은 지금부터 10년간 매년 말 정액으로 저축함
- ※ 기존(2014년부터 시작한 저축)에 매년 납입하던 저축액은 현재부터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며, 현재시점의 적립금(사업자금 인출액을 제외한 나머지)을 준비자금으로 반영하고 적립금은 현재시점부터 세후투자수익률 연 5.0%를 적용함

- ① 약 11,171천 원 ② 약 13,816천 원 ③ 약 14,204천 원
 ④ 약 15,056천 원 ⑤ 약 16,614천 원

4.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될 수 있는 이장용 씨의 사망보험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장용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도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음(사고 후 이장용 과실 비율은 30%로 판명됨)
 - 사망일(사고일): 2024년 10월 22일
 - 이장용 인적사항
 - 연령: 48세(취업가능월수: 196개월)
 - 월평균 현실소득액: 3,000천 원
 - 적용 호프만계수: 143.0562
- ※ 상대방 가해 승용차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되어 있음

- ① 약 200,279천 원 ② 약 259,779천 원 ③ 약 286,112천 원
 ④ 약 359,918천 원 ⑤ 약 371,112천 원

5. 이명진(60세), 한성희(57세)씨 부부는 정년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즉시연금상품에 가입하고 부부의 은퇴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 연금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현재가치가 가장 큰 것)은? (단, 답지 ①~④번은 이명진 씨 기준 단생연금 방식임)

- 이명진은 80세 말까지, 한성희는 84세 말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함
- 60세 시점 일시금 계산을 위한 할인율: 연 5.0%

- ① 평준 생애수입방법을 선택하여 60세부터 매년 말 정액으로 40,500천 원을 수령
 ② 확정기간 분할수령방법을 선택하여 60세부터 15년간 매년 초 정액으로 49,000천 원을 수령

- ③ 보증부 생애수입방법을 선택하여 60세부터 매년 말 정액으로 40,000천 원을 수령 하되 15년간은 보증지급
- ④ 이자수령방법을 선택하여 60세부터 매월 초 정액으로 2,100천 원을 지급받고 사망 시 500,000천 원을 수령
- ⑤ 연생 생존자 생애수입방법을 선택하여 이명진 나이 60세부터 부부 모두 생존 시에는 매년 말 정액으로 38,000천 원을, 1인만 생존 시에는 매년 말 정액으로 19,000천 원을 수령

6. 심원우 씨 가족은 금융재산 관리를 위해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분석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주식A	주식B	주식C
기대수익률	8.50%	11.30%	9.50%
수익률의 표준편차	16.00%	18.00%	21.00%
주식시장 수익률과의 상관계수	0.90	0.85	0.80

※ 무위험수익률: 3%,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 10%, 주식시장 수익률의 표준편차: 15%

- ① 주식C의 베타계수는 1.0 미만이다.
- ② 주식B는 요구수익률보다 기대수익률이 낮다.
- ③ 주식A의 베타계수는 주식B 및 주식C보다 크다.
- ④ 주식A는 증권시장선(SML)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 ⑤ 주식B 50% 및 주식C 50%의 투자비중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0.9 미만이다.

8. A건설 회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매매단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원 단위 이하 절사함)

- 채권종류: A건설 회사채(3개월 후금 이표채)
- 발행조건
 - 액면가: 10,000원
 - 발행일: 2022년 7월 20일
 - 만기일: 2025년 7월 20일
 - 표면금리: 5.0%
- 매매조건
 - 매매일: 2024년 6월 19일
 - 매매수익률: 4.0%
 - 매매일이 속하는 이자지급구간의 총일수: 91일
 - 매매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까지의 잔존일수: 31일

① 9,969원

② 10,064원

③ 10,097원

④ 10,188원

⑤ 10,222원

9. 기초자산인 KOSPI200지수가 옵션 만기시점에 260pt인 경우 다음 옵션 투자전략의 만기 시 순손익은 얼마인가? (단, 세금 및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 옵션 투자전략

- 강세 콜 스프레드 전략: 만기가 같은 행사가격 250pt KOSPI200 콜옵션 10계약 매수, 행사가격 255pt KOSPI200 콜옵션 10계약 매도

• 만기가 같은 행사가격별 KOSPI200 콜옵션 프리미엄

Call 프리미엄	행사가격
4pt	250pt
1pt	255pt

※ 옵션거래승수는 1계약당 250천 원으로 계산함

- ① (-)7,500천 원 ② (+)5,000천 원 ③ (+)12,500천 원
 ④ (+)20,000천 원 ⑤ 0원

10. 송기천 씨는 세후할인현금흐름분석(ATCF)으로 상가A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상가A 현재 시세와 ATCF로 산출한 상가A 가치가 동일한 경우의 ATCF의 연 할인율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외에 기타 세금은 고려하지 않음)

- 상가A 관련 정보
 - 현재 시세: 1,500,000천 원
 - 임대보증금: 300,000천 원
 - 순영업소득(NOI): 연 96,000천 원
 - 대출금: 500,000천 원(남은 대출기간 10년, 매년 말 이자만 지급하다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출이율 고정금리 연 5%)
- 송기천의 상가A 투자 관련 정보
 - 2023년 1월 초에 상가A 매수 후 10년간 보유했다가 10년차 말에 매각할 예정임
 - 사업소득세는 매년 말 정액으로 18,600천 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함
 - 10년차 말 상가A 예상 매각금액은 2,000,000천 원, 매각경비(양도소득세 제외)는 매각금액의 5%가 발생하며, 양도소득세는 90,000천 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함
 - 임대보증금은 변동 없으며, 대출금은 10년차 말 매도 시 전액 상환함

- ① 약 연 5.1% ② 약 연 6.3% ③ 약 연 8.7%
- ④ 약 연 10.2% ⑤ 약 연 12.5%

11. 김상진 씨는 토지A 경매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다음 토지A 경매 관련 정보를 고려할 때 토지A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매 방식: 기일입찰
- 토지A 최저매각가격: 900,000천 원
- 토지A 등기 현황

일자	권리	권리자	권리금액
2017.7.	지상권	이만수	
2018.5.	근저당권	XX은행	4억 원
2020.4.	근저당권	허재만	3억 원
2024.8.	허재만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기입등기		

- ① 김상진이 경매 참여 시 입찰가격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 ② 토지A 경매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이기 때문에 임의경매로 분류된다.
- ③ 김상진이 경매로 토지A 취득 시 토지A 지상권은 소멸하고 김상진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 ④ 토지A 경매는 기일입찰방식이기 때문에, 김상진이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해야 한다.
- ⑤ 김상진이 경매에 참여하여 토지A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종전 토지A 소유자가 김상진에게 토지A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대금납부 후 일정 기간 이내라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2. 최진우 씨 부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 최진우 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정보를 고려할 때, 최진우 씨와 박예진 씨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자녀 최예주, 최수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최진우 씨가 모두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며,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음)

〈최진우씨 가족의 2024년 귀속 소득 현황〉

구분	연령	소득	비고
최진우	43세	총급여액 80,000천 원	
박예진	41세	총급여액 45,000천 원	
최예주	11세	배당소득총 수입금액 700천 원	증여받은 금융재산으로부터 발생
최수빈	7세	이자소득총수입금액 500천 원	

※ 상기 금융소득은 모두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이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

2024년 귀속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이 '15,000천 원 초과~45,000천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7,500천 원 + 15,000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임

- ① 박예진은 인적공제로 최대 1,500천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최진우는 자녀세액공제로 최대 150천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최진우가 자녀 최예주를 위해 교육비 5,000천 원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세액공제로 최대 750천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④ 박예진의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이 3,000천 원인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최대 450천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⑤ 박예진이 보장성보험료 납부액 600천 원(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박예진)을 지출한 경우 보험료세액공제로 최대 72천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13. 박형식 씨가 자녀 박민주에게 2024년 4월 상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담부증여 시 박형식 씨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가A 부담부증여 관련 정보〉

구분	금액	비고
증여가액	500,000천 원	현재 적정시세
채무액	300,000천 원	월세: 1,000천 원
실지취득가액	300,000천 원	• 박형식이 박철수로부터 2020년 8월 5일 상속받고 등기함 • 부친(박철수)은 상가A를 2017년 8월 중 취득하고 등기함
기타필요경비	10,000천 원	

- ① 18,797천 원 ② 19,875천 원 ③ 21,191천 원
 ④ 22,066천 원 ⑤ 23,585천 원

14. 송기천 씨는 2024년도 중 (주)ABC에서 퇴직하였다. 송기천 씨의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2024년 귀속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단, 송기천 씨는 복식부기장부에 의해 상가 임대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한다고 가정함)

〈송기천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소득공제 내역〉

- 근로소득금액: 5,000천 원(주)ABC에서 2024년도 중 퇴직하기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임)
 - 상가 임대사업소득금액: 81,800천 원(2024년도 중 매매로 취득함)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15,000천 원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30,000천 원(모두 Gross-up 대상임)
 - 연금소득금액: 12,000천 원(모두 국민연금 노령연금임)
 - 송기천의 종합소득공제: 10,000천 원
- ※ 상기 금융소득은 모두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이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임

- ① 21,940천 원 ② 25,357천 원 ③ 37,248천 원
 ④ 28,065천 원 ⑤ 33,547천 원

※ 자영업자인 홍남석(40세) 씨의 아래 은퇴설계 정보를 참고하여 [문제15~16번]의 질문에 답하시오.

- 은퇴기간: 65세부터 25년
- 은퇴기간 중 목표은퇴소득: 현재물가기준으로 매년 초 36,000천 원
- 현재 저축(투자) 중인 은퇴자산
 - 주식형펀드: 현재시점에서 주식형펀드의 평가액은 64,500천 원이며, 60세까지 매월 말일에 300천 원을 납입할 예정임
- 국민연금: 65세부터 매년 초에 12,000천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
- 은퇴저축을 위한 추가저축 여력: 월 500천 원
- 경제적 가정
 - 소득증가율: 연 5.0%
 - 은퇴기간 중 은퇴자산에 대한 세후투자수익률: 연 4.0%
 - 주식형펀드의 세후투자수익률: 연 6.0%
 - 물가상승률: 연 2.0%
- 기타
 - 목표은퇴소득은 매년 초에 직전년도 물가상승률로 증액됨
 - 은퇴저축을 위한 추가저축 여력은 매년 소득증가율만큼 증가됨

15. 홍남석 씨는 현재 저축(투자)하고 있는 주식형펀드만으로는 은퇴기간 중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을 확보할 수 없다는 CFP 자격인증자의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은퇴저축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중 홍남석 씨가 목표은퇴소득을 충족하기 위해 은퇴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 시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21,000~21,100천 원 | ② 313,400~313,500천 원 |
| ③ 328,500~328,600천 원 | ④ 444,500~444,600천 원 |
| ⑤ 490,400~490,500천 원 | |

16. 홍남석 씨는 은퇴기간 중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저축을 할 계획이다. 다음의 저축조건을 참고하여 홍남석 씨가 저축 첫해 매월 말 저축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가저축 조건]

- 추가저축 목표금액: 350,000천 원
- 저축방법: 지금부터 20년간 매월 말일에 저축하되, 매년 초 직전년도 소득증가율만큼 증액하여 저축함
- 저축상품: 주식형펀드
- 기타: 매월 말 추가저축액이 저축 여력을 초과하는 경우 저축 여력을 한도로 저축을 함

- ① 290~300천 원 ② 320~330천 원 ③ 380~390천 원
④ 430~440천 원 ⑤ 490~500천 원

17. 은퇴생활을 시작한 박상하(65세) 씨는 현재 보통예금 통장잔고 350,000천 원 이외의 은퇴자산은 없다. 다음의 추가적인 정보를 참고하여 박상하 씨의 은퇴기간 중 확보 가능한 연간 은퇴소득 수준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퇴기간: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 은퇴자산 운용계획
 - 전기 은퇴기간(65세부터 10년) 중 필요한 은퇴소득은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에 예치
 - 후기 은퇴기간(75세 이후 10년) 중 필요한 은퇴소득은 분할지급식 채권형펀드로 운용
- 은퇴기간별 은퇴소득 인출계획
 - 전기 은퇴기간: 첫째 초 24,000천 원을 인출하고, 2차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직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지급되는 금액을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매월 정액(1/12)으로 인출
 - 후기 은퇴기간: 75세부터 직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여 인출하여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매월 정액(1/12)으로 인출
- 국민연금: 은퇴시점 물가기준으로 매년 초에 12,000천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
- 가정조건
 - 은퇴기간 중 물가상승률: 연 2.0%
 - 은퇴기간 중 금융상품 세후투자수익률

구분	세후투자수익률	분할지급 조건
보통예금	연 0.0%	-
분할지급식 정기예금	연 3.0%	거치기간 없이 매년 초에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여 원리금 분할지급
분할지급식 채권혼합형 펀드	연 5.0%	10년 거치 10년간 매년 초에 원리금을 정액으로 분할지급

- ① 전기 은퇴기간 중 목표은퇴소득 충족을 위해서는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에 227,551천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 ② 전기 은퇴기간 중 연간 확보 가능한 은퇴소득 수준은 은퇴시점 물가기준으로 36,000천 원이다.

- ③ 전기 은퇴기간 말 은퇴자산 잔액은 195,823천 원이다.
- ④ 후기 은퇴기간 중 연간 확보 가능한 은퇴소득 수준은 은퇴시점 물가기준으로 34,234천 원이다.
- ⑤ 은퇴기간 중 은퇴자산에 대한 세후투자수익률은 연 4.45%이다.

18. 허윤찬 씨는 부친 허정호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함께 사망(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하였다.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민법상 모친 이경희 씨의 최종 상속분(허윤찬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허정호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은 얼마인가?

〈가족관계 및 상속재산〉

- 허윤찬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서민주, 부친 허정호, 모친 이경희, 남동생 허기찬이 있음
- 허윤찬의 상속재산: 100,000천 원
- 부친 허정호의 상속재산: 210,000천 원

- ① 40,000천 원 ② 60,000천 원 ③ 130,000천 원
- ④ 150,000천 원 ⑤ 166,000천 원

19. 다음 김철수(47세) 씨가 증여받은 정보를 고려할 때 금번 2023년 10월 김철수 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증여재산합산과세 및 증여재산공제만 고려함)

증여자	증여일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가액
모친	2013.11.	토지	300,000천 원
조부	2013.12.	주식	400,000천 원
부친	2023.10.	상가	500,000천 원

- ① 155,000천 원 ② 165,000천 원 ③ 175,000천 원
 ④ 185,000천 원 ⑤ 195,000천 원

20. 이종숙 씨 사망 관련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종숙 상속 관련 정보〉

- 이종숙 씨는 자녀 박인호(54세), 박규진(53세), 박재용(49세)을 남겨두고 2024년 1월 1일 사망하였음
- 상속세 과세가액은 1,560,000천 원이라고 가정함
-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로 산출함
- 상속공제는 항목별 상속공제의 합계액과 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
- 항목별 상속공제(다음의 공제만 고려함)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중 큰 금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 순금융재산가액은 600,000천 원이라고 가정함
- 상속공제 한도액은 1,290,000천 원이라고 가정함

- ① 82,000천 원 ② 162,000천 원 ③ 198,000천 원
 ④ 222,000천 원 ⑤ 276,000천 원

제 II 절

복합사례 I

이준승 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은퇴설계 등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전세로 생활하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에 내 집 마련을 결심하고, 2019년 6월 경기도 소재 아파트A를 구입하였다.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구입자금 이 부족하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매월 부부의 급여소득 상당부분이 대출원리금 상환에 지출되고 있어 고민을 하던 중 2024년 1월 초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를 만나 재무상담을 진행하였다.

I. 고객정보(나이는 2024년 1월 초 나이임)

- 동거가족
 - 이준승(40세): 중견IT기업 차장(근속기간 10년)
 - 김유미(40세): 부인, 중소기업 과장(근속기간 10년)
 - 이진하(7세): 딸, 초등학교 1학년
- 주거상황
 - 경기도 소재 아파트A(소유자: 이준승)
 - 아파트A는 2019년 6월에 600,000천 원에 구입
 - 아파트A 구입 시 00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60,000천 원과 신용대출 100,000천 원을 받아 구입자금으로 사용

[대출조건]

구분	대출기간	대출이율(현재)	상환방법
주택담보대출	15년	4.5%(변동금리형)	매월 말 원리균등분할상환
신용대출	3년	6.5%(변동금리형)	수시상환

*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주기는 모두 6개월 단위임

II. 재무적(정량적) 정보

• 수입 내역

- 이준승: 연수입 80,000천 원, 실수령액 월 5,000천 원, 연 1회 보너스(금액은 변동)
- 김유미: 연수입 60,000천 원, 실수령액 월 4,000천 원, 연 2회 보너스(금액은 변동)

• 지출 내역

- 이준승 용돈 월 600천 원, 김유미 용돈 월 600천 원
- 자녀양육비 월 600천 원
- 기타생활비 월 2,500천 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 매월 약 953천 원
- 신용대출 이자 매월 약 398천 원
- 종신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보험료 월 600천 원

• 자산 내역

- 보통예금 2,400천 원(김유미 명의)
- 토지: 이준승 명의, 3년 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지목은 도시지역 내 소재한 잡종지, 현재 시세 250,000천 원
- 자동차: 25,000천 원(이준승 명의)

• 부채 내역

- 주택담보대출 현재 잔액 252,000천 원, 신용대출 현재 잔액 73,500천 원
- 신용대출은 수시상환 약정이며, 자금이 필요할 때 추가로 대출하기도 함

• 저축·투자 내역

- 정기적금 매월 300천 원(김유미 명의, 현재 12회차 납입, 3년 만기, 가입 목적은 구체적으로 없음)

- 연금저축펀드 매월 500천 원(이준승 명의, 현재 12회차 납입)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매월 약 2,600천 원(금리변동에 따라 상환금액이 변동)
- 신용대출 원금은 여유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상환하고 있음(월 평균 500천 원)
- 퇴직급여 내역
 - 부부 모두 입사 때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 현재 적립금 평가액은 이준승 40,270천 원, 김유미 20,900천 원

Ⅲ. 비재무적(정성적) 정보

- 이준승 씨의 투자성향은 적극투자형으로 평가된다.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금융지식 수준은 보통수준이다.
- 김유미 씨의 투자성향은 안정성장형으로 평가된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투자경험이 전혀 없으며, 금융지식 수준은 보통수준이다.
- 이들 부부는 여유자금이면 생기면 적정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를 하여 은퇴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

Ⅳ. 고객 재무목표

1. 재무관리 관련: 대출잔액 계산 및 리파이낸싱
 - 이준승 씨 부부는 현재 매월 상환하는 대출금액상환액이 소득대비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향후 금리 재인상 시 이자부담 증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 이준승 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지, 자녀교육자금이 나 은퇴자산 등 기타 목적자금으로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2. 은퇴설계 관련 (은퇴자산 마련을 위한 대안 수립)
 - 이들 부부는 65세부터 본격적인 은퇴생활을 계획하고 있다. 은퇴기간(30년간) 중 목표은퇴소득은 현재물가기준으로 연간 48,000천 원(매월 4,000천 원)이다.
 - 이들 부부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려고 하고 있다. 예상되는 노령연금은 이준승 씨가 연 11,400천 원(월 950천 원), 김유미 씨는 연 10,200만 원(월 850천 원)이다.
 - 토지를 매각하여 일부는 신용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 중 대부분을 은퇴자산으로 활용하면, 추가적인 은퇴저축(투자)을 하지 않고도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 부부 모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적립금 운용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등록과 관련한 안내를 수회에 걸쳐 받았으나 아직까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부부 모두 가입일 이후 수익률이 연 1.8% 수준으로 매우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3. 투자설계 관련(현재 투자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점검과 토지 매각에 따른 투자방안 마련)

-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안을 선택할 경우 투자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대안제시를 요청하고 있다.

4. 세금설계 관련(종합소득세 절세와 연금계좌 활용에 따른 과세문제 해결)

- 연금저축펀드는 이준승 씨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50세까지 목돈마련을 하여 부부 해외여행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2022년 및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

·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펀드로 운용하고 있다.

· 가입 이후 수익률이 12% 정도 실현했으나 향후 기대수익률은 7.0%로 합의하였다.

-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고 있다.

- 경영평가성과급 수령 시 과세되는 근로소득세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절세방법을 요청하고 있다.

V.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 원)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항목		금액	명의	항목		금액	명의
금융 자산	현금성자산			유동 부채	신용대출	73,500	이준승
	현금				마이너스통장		
	CMA			비유동 부채	담보대출	252,000	이준승
	보통예금 등	2,400	김유미		임대보증금		
	저축성자산			총부채		325,500	
	정기적금 ^{주1)}	3,690	김유미				
	청약종합저축						
	투자자산						
	해외주식						
	국내주식						
	수익증권, ETF						
	연금저축펀드 ^{주2)}	7,450	이준승				
	금융자산 총액	13,540					
부동산 자산	주거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토지 등	250,000	이준승				
	부동산자산 총액	250,000					
사용 자산	거주 부동산 ^{주3)}	750,000	이준승				
	임차 보증금						
	자동차 등	25,000	이준승				
	사용자산 총액	775,000					
기타 자산	퇴직연금(DC)1	40,270	이준승				
	퇴직연금(DC)2	20,900	김유미				
	보험해약환급금	5,000	가족합계				
	투자목적 미술품 등						
	기타자산 총액	66,170					
총자산		1,104,710		순자산		779,210	

주1) 정기적금은 3년 만기로 매월 300천 원을 납입하며, 확정금리 연 5.5%의 이율이 적용됨

주2) 연금저축펀드(주식형펀드로 운용)는 매월 500천 원을 납입하며, 적립금 전액을 주식혼합형에 투자하고 있음
- 2023년 12월 말일 기준 14회 납입하였고, 적립금 평가액은 7,450천 원

주3) 주거용 아파트 현재 실거래가액 750,000천 원

• 월간 현금흐름표(2023년 12월)

(단위: 천 원)

구분	항 목		금 액
I. 수 입	9,000		
II. 변동지출	본인 용돈		(600)
	배우자 용돈		(600)
	부모님 용돈		-
	자녀(보육비, 사교육비 등)		(600)
	기타생활비(의식주, 공과금 등)		(2,500)
	변동지출 총액		(4,300)
III. 고정지출	보장성보험료 등		(600)
	대출이자	주택담보대출	(953)
		신용대출	(398)
	고정지출 총액		(1,951)
저축 여력 (I - II - III)			2,749
IV. 저축·투자액	대출상환원금	주택담보대출	(1,585)
		신용대출 ^{주)}	(500)
	정기적금		(300)
	저축성보험		-
	연금저축펀드		(500)
	저축·투자액 총액		(2,885)
	추가저축 여력(순현금흐름) (I - II - III - IV)		

주) 신용대출 상환은 비정기적이나 평균적으로 상환하는 금액임

VI. 경제지표 가정

- 세후투자수익률: 은퇴 전 연 5.0%, 은퇴 후 연 3.0%
- 물가상승률: 연 3.0%
- 임금인상률: 연 4.0%%
- 토지가치상승률: 연 3.0%

※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이준승 씨 부부의 재무설계 상담 요청에 따라 제반 정보를 확인·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재무전략 옵션 중 다음과 같은 재무전략을 마련하고 제안을 하려고 한다. 본 사례의 시나리오 및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의 설계(안)를 참고하여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답하시오. (질문하지 아니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문제의 가정은 다른 문제와 관련 없음)

1.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상환기간 30년)로 차환한다.
2. 토지는 현재시점에서 매각하여 신용대출잔액을 상환하고, 잔액 중 일부금액은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3. 은퇴설계 관련 추가정보
 - 토지매각 대금 중 170,000천 원과 부부의 퇴직급여는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부부의 퇴직연금 운용 관련 합의 내용

구분	은퇴 전까지 운용방법	은퇴 이후 운용방법
운용상품(변경)	TDF2050주식혼합형-재간접형	원리금보장형 상품 + 채권형펀드
기대수익률	연 5.5%	3.0%

* 부부 모두에서 은퇴시점부터 각각의 IRP에서 30년간 퇴직연금을 수령할 계획임

- 토지매각 대금 중 170,000천 원의 투자방안

구분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비중	기대수익률	표준편차
투자안(A)	채권형펀드	30%	연 3.0%	3%
	주식혼합형펀드	70%	연 7.0%	12%
투자안(B)	대형우량주 10개 종목으로 구성	종목별 시가총액 비례 구성	연 10.0%	15%

* 투자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할 계획임

4. 부동산 매각 및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세금 관련 문제는 박00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다.

1. 2019년 6월 이후 변동금리 대출 금리추이가 다음 표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2024년 1월 초 시점에서 추정한 이론상의 대출잔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대출 시점 사이에는 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대출시점	2019.6.	2020.12.	2021.12.	2022.12.	2023.12.
연간 대출이율(월복리)	3.0	2.7	4.0	6.5	4.5

- ① 약 331,000천 원 ② 약 310,000천 원 ③ 약 291,000천 원
 ④ 약 273,000천 원 ⑤ 약 252,000천 원
2.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이준승 씨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차환(refinancing) 검토를 자문하였는데, 차환조건이 다음과 같을 경우 매월 절감되는 대출 관련 원리금상환액은 얼마인가? (단, 대출잔액은 현재 이준승 씨가 알고 있는 252,000천 원으로 가정한다.)

[B은행 대출조건]

- A은행 대출 전액 상환
- 연 4.5% 월복리(고정),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규대출에 따른 수수료 총액: 대출 총금액의 0.5%
- 대출기간 30년

- ① 약 4천 원 ② 약 1,283천 원 ③ 약 1,255천 원
 ④ 약 950천 원 ⑤ 약 1,585천 원

3.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이준승 씨에게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제안하려고 하는 토지매각 대금 170,000천 원에 대한 투자안 중 투자안(A)에 대한 분석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기대수익률	변동성	투자비중	베타
채권형펀드	3.0%	3.0%	30%	0.35
주식혼합형펀드	7.0%	12.0%	70%	0.75

* 채권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상관계수는 -0.34

* 베타는 KOSPI200지수 대비 베타값이다.

- ①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5.8%로 현재 가입하고 있는 3년 정기예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 ②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9.3%이다.
- ③ 두 펀드의 상관계수가 0이 되면 현재의 포트폴리오보다 변동성은 증가한다.
- ④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0.63이다.
- ⑤ 향후 주식시장이 강세로 갈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포트폴리오보다 초과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펀드B의 투자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4.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이준승 씨에게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제안하려고 하는 투자안 중 투자안(B)에 대형우량주 10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포트폴리오(종목별 투자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결정, 베타 1.5)를 구성하고, 다음의 자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가하락에 대비하여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한 헤지전략을 수립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한 검토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
로만 묶인 것은?

추가적인 자료조사 결과 단기간(1년 이내) 주식의 전망은 10%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KOSPI200선물을 활용하여 헤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월 30일 현재 KOSPI200 가격은 340이고 활용하려는 선물가격은 341이다. (KOSPI200 지수선물의 거래당 외승수는 250,000원을 적용함)

가. 베타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주가하락 위험을 없애기 위해 주가지수선물 2계약을 매도해야 한다.

나. 베타를 감안하는 경우 주가하락 위험을 없애기 위해 주가지수선물 3계약을 매도해야 한다.

다. 예상대로 주가가 10% 하락할 경우 현물시장에서 17,000천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라. 베타를 감안하여 선물거래를 한 경우 선물시장에서는 26,250천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마. 주가지수선물을 통해 헤지거래를 한 결과 최종손익은 750천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다, 라, 마

③ 가,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라, 마

5. 이준승 씨는 주식에 직접투자를 한 경험은 없으나 이번에 3년 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매각해서 호랑주식회사에 투자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에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에게 이와 관련한 문의를 했고 자격인증자는 호랑주식회사의 수익률을 분석하고 있다. 기대수익률은 연 10.0%이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제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현재 호랑주식회사의 주식수익률은 최근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여파로 2.0% 하락한 상태이며 그 외의 특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요인모형에 의한 호랑주식회사의 실제수익률로 가장 적절할 것은?

변수	민감도	예상수치	실제수치
시장이자율	-1.5	5.0%	4.5%
물가상승률	1.5	3.0%	3.5%

- ① 8.0% ② 8.5% ③ 9.0%
- ④ 9.5% ⑤ 10.0%

6.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이들 부부에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2024년 1월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170,000천 원을 투자안(A)와 투자안(B) 중에서 선택하여 은퇴 시까지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설명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가. 은퇴시점 물가기준으로 산정한 총은퇴일시금 규모는 792,400천 원입니다.
- 나. 투자안(A)을 선택하여 은퇴 전까지 투자를 하고, 은퇴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대수익률이 연 3.0%인 채권형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면 퇴직급여를 제외하더라도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다. 투자안(B)을 선택하여 은퇴 전까지 투자를 하고, 은퇴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대수익률이 연 3.0%인 채권형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면 퇴직급여를 제외하더라도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라. 투자안(B)는 투자안(A)보다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투자위험이 높고, 장기간 동안 직접 투자관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마. 은퇴저축의 속성상 장기간 동안 적정수익률을 목표로 시장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분산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퇴자산 마련을 위한 투자를 한다면 투자안(A)가 투자안(B)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나, 다, 마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7.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이준승 씨 부부에게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립금 운용 방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부 모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아 현재 운용하고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되면 만기상환금은 '만기자동재예치약정'에 따라 동일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재예치되어 운용됩니다.
- ② 부부 모두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연 1.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배분형펀드, TDF,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방법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관리에 시간이 부족하고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투자기간 경과에 따라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자동으로 줄여 나가는 TDF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④ 만약 제안한 'TDF주식혼합-재간접형'을 선택한다면 은퇴시기 전후의 TDF, 예를 들면 'TDF2050주식혼합-재간접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좀더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동일한 투자목표시점의 주식형TDF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⑤ 만약 증권형펀드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싶다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8. 이준승 씨 부부는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의 제안에 따라 각각의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TDF2050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변경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토지 매각대금 중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CFP® 자격인증자가 제안하는 투자안(A)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음의 추가 자료를 참고하여 이와 관련한 검토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박00 세무사의 자문결과 부부 각각의 퇴직급여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 원)

구분	퇴직시기	퇴직급여액	실효퇴직소득세율 ^{주)}
이준승	60세	359,709.540	4.43%
김유미	60세	254,750.290	2.91%

주) 실효퇴직소득세율은 퇴직소득산출세액을 세전퇴직소득금액으로 나눈 율(%)이며, 제시한 실효퇴직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값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으로 함

- ① 이준승이 CFP® 자격인증자의 제안대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하면 약 3,507천 원이다.
- ② 이준승이 퇴직 시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은퇴시점에서 평가한 IRP의 세후평가금액은 460,350천 원이다.
- ③ 이들 부부의 퇴직급여가 이전되는 IRP 적립금의 은퇴시점 세후평가액을 800,000천 원이라고 하면, 부동산 매도 자금 중 170,000천 원을 투자안(A)를 선택하여 투자하면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이준승이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원리금보장형상품에서 ‘TDF2050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변경하고 운용하다 퇴직 시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다면 운용중인 TDF를 그대로 이전받을 수 있다.
- ⑤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된 이후 소득세법에 정한 법정인출사유 이외의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IRP계좌의 일부를 해지하여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연퇴직소득이 인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연퇴직소득세의 100%가 과세된다.

9. 이준승 씨는 조부모에게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은퇴자금 마련을 위하여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 2024년 1월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고려할 때 소득세법상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토지 양도와 관련된 정보〉

- 토지 양도가액: 250,000천 원
 - 이준승의 토지 취득 정보
 - 토지 수증일자: 2020년 5월 20일
 - 증여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200,000천 원
 - 증여세 산출세액: 26,000천 원
 - 조부모의 토지 취득 정보
 - 토지 취득일자: 2011년 1월 5일
 - 토지 취득가액: 100,000천 원(일반적 매매 취득)
 - 토지 양도 시 기타필요경비: 10,000천 원
- ※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

- ①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200,000천 원이다.
- ②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40,000천 원이다.
- ③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140,000천 원이다.
- ④ 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103,600천 원이다.
- ⑤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30,055천 원이다.

10. 이준승 씨 부부는 매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안내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이준승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액은 대출형태가 변동금리에 해당하므로 $\text{Min}[8,000\text{천 원}, 953\text{천 원} \times 12] = 8,000\text{천 원}$ 이다.

나. 이준승의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액은 864천 원이다.

다. 이준승의 연금저축세액공제액은 1,350천 원이다.

라. 만약 이준승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연금저축펀드 납부액을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액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 2024년 귀속 총급여액은 이준승 80,000천 원, 김유미 60,000천 원

※ 이준승의 경기도 소재 아파트A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의하여 이준승이 납부하였다고 가정

※ 이준승은 2024년 6월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을 은퇴자금 마련을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3,500천 원을 납부하였음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⑤ 가, 다, 라



복합사례 II

오성규 씨는 부친 사망 후 발견된 유언장에 따른 상속관계와 상속받을 재산의 활용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고 있다. 오성규 씨는 2024년 1월 초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를 만나 재무상담을 진행하였다.

I. 고객정보(나이는 2024년 1월 초 만 나이임)

- 동거가족
 - 오성규(52세): 도·소매업 운영(세법상 개인사업자이며,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최혜경(49세): 부인, 중소기업 차장, 오피스텔B 임대사업(개인사업) 운영
 - 자녀 2명: 딸 박서연(23세), 아들 박우진(22세) 모두 다세대주택A에서 함께 거주
- 주거상황
 - 다세대주택A는 2019년 1월 초 구입(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300,000천 원 받음)
 - 담보대출은 대출기간 15년, 매월 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연 5.5% 월복리(2023년 12월 말까지 60회차 상환)
- 부모 및 형제자매
 - 박영재(85세): 부친, 2024년 1월 1일 뇌장암으로 사망
 - 김선혜(83세): 모친, 전업주부
 - 박현선(54세): 누나, 전업주부, 배우자 이청원(54세), 아들 이우상(22세), 딸 이예슬(21세)과 함께 이청원 소유 주택에서 거주

II. 재무적(정량적) 정보

• 자산 내역

– 부부의 부동산 관련 자산 현황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 원)

구분	취득일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원가	현재 기준시가 /적정시세	비고
다세대주택 A	2019.1.	600,000 /650,000	650,000 /750,000	• 소유자: 오성규 • 오성규 세대가 취득 이후 계속 거주
오피스텔 B	2015.3.	150,000 /300,000	250,000 /-	• 소유자: 최혜경 • 임대보증금: 200,000 • 월 임대료: 1,000

※ 기준시가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2024년 기준시가는 2023년도 말과 변동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오피스텔 건물의 기준시가(부수토지 포함)를 의미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을 의미

※ 오피스텔B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오피스텔로서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계약은 2022년도 10월에 이루어져 2024년도 말까지 변동이 없음

III. 고객 재무목표

1. 재무관리 관련

- 오성규 씨는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A의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높다고 생각되어 낮은 대출 이율이 있다면 리파이낸싱을 하여 매월 말 상환하는 원리금부담을 줄이고 싶어 한다.

2. 투자설계 관련

- 김선혜 씨는 박영재 씨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200,000천 원 중 100,000천 원을 오성규 씨에게 사전증여를 할 생각이고, 오성규 씨는 이 자금으로 평소에 관심이 있던 ELS에 투자를 할까 고민하고 있어 자격인증자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
- 오성규 씨는 박영재 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E의 가치를 분석해 보고 싶어 한다.
- 오성규 씨는 박영재 씨가 보유한 주식E의 현재가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어 한다.

3. 세금설계 관련

- 오성규 씨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더 넓은 면적의 상가G를 매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다.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4. 상속설계 관련

- 오성규 씨는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세 규모와 상속세 절세를 위한 상속공제 등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으며 상속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워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 오성규 씨는 부친 사망 후 발견된 유언장에 따른 상속관계를 궁금해 하고 있다.
- 오성규 씨는 부친 사망 후 추가로 발견된 유언장이 있는 경우 두 유언장과의 관계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Ⅳ. 부친 박영재 씨의 사망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 및 사전증여 현황(2024년 1월 1일 현재)

• 부동산 재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취득일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원가	현재 기준시가 /적정시세	비고
아파트 C	2015.8.	500,000 /700,000	800,000 /1,000,000	부친이 취득 이후 부친과 모친만 계속 거주
토지D	2005.3.	150,000 /300,000	300,000 /500,000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함

• 금융재산 현황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비고
주식E	550,000천 원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식임
예금F	300,000천 원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임

• 사전증여 현황

수증자	증여일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가액
김선희 (오성규 씨의 모친)	2009.4.	현금	200,000천 원
오성규	2016.7.	현금	300,000천 원

• 부친 박영재 씨의 자필증서 유언장

유언장

유언자: 박영재(340101-XXXXXXX)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XX길 XX, XXX동 XXX호
(현석동, 아파트C)

1. 아파트C를 배우자 김선희에게 상속한다.
2. 토지D를 딸 박현선에게 상속한다.
3. 유언집행자는 아들 오성규로 한다.

2023년 5월 31일
작성자 본인 박영재 (인)

V. 경제지표 가정

- 세후투자수익률: 은퇴 전 연 5.0%, 은퇴 후 연 3.0%
- 물가상승률: 연 3.0%

※ 상기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답하시오.

(질문하지 아니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문제의 가정은 다른 문제와 관련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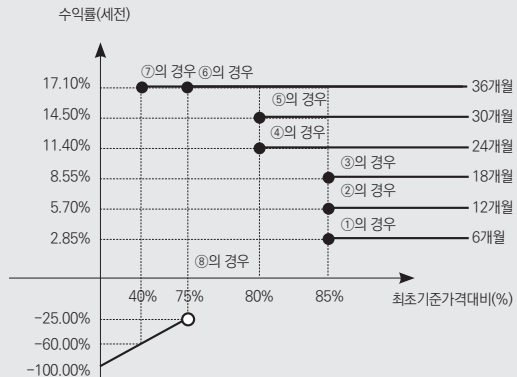
1. 오성규 씨는 다세대주택A의 대출상품을 2024년 1월부터 대출이율 연 5%, 대출기간 20년인 월복리 대출상품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 경우 기존에 은행에 매월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상환액 보다 매월 얼마씩 상환금액이 줄어드는가? (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3년이 지나서 조기 상환수수료와 신규 취급수수료 등은 없음)

- ① 606천 원 ② 701천 원 ③ 856천 원 ④ 905천 원 ⑤ 961천 원

2. 오성규 씨는 모친 김선헌 씨로부터 100,000천 원을 사전증여받을 경우 평소 관심을 가졌던 다음의 ELS에 투자를 할까 생각중이다. ELS의 손익구조 및 상환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ELS 투자개요]

- 기초자산: KOSPI200
- 발행일: 2023년 8월 31일
- 만기일: 2026년 8월 31일
- 투자금액: 100,000천 원
- 기초자산 기준 지수
 - 최초기준: 330.33pt / 85%: 280.78pt
 - 80%: 264.26pt / 75%: 247.74pt
 - 60%: 198.19pt / 40%: 132.13pt



[손익구조]

구 분	결정조건	수익률(세전)
자동 조기 상환	①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85% (연 5.70%)
	②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5.70% (연 5.70%)
	③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8.55% (연 5.70%)

구분	결정조건	수익률(세전)
자동 조기 상환	④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11.40% (연 5.70%)
	⑤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14.25% (연 5.70%)
만기 상환	⑥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17.10% (연 5.70%)
	⑦ ⑥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0% 미만(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17.10% (연 5.70%)
	⑧ ⑥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만기일까지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40% 미만(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25.00%~ - 100.00%

구분	상환금액
①	투자원금 × (100% + 2.85%) 지급 후 상품종료
②	투자원금 × (100% + 5.70%) 지급 후 상품종료
③	투자원금 × (100% + 8.55%) 지급 후 상품종료
④	투자원금 × (100% + 11.40%) 지급 후 상품종료
⑤	투자원금 × (100% + 4.25%) 지급 후 상품종료
⑥	투자원금 × (100% + 17.10%) 지급 후 상품종료
⑦	투자원금 × (100% + 9.00%) 지급 후 상품종료
⑧	투자원금 × (100% + 손실률) 지급 후 상품종료

* 손실률 = 만기기준가격/기초(최초)기준가격 -1

- ① ELS의 조기상환 주기는 6개월이다.
- ② ELS의 연환산 기대수익률은 5.70% 이다.
- ③ 3차 조기상환평가일에 KOSPI200지수가 조기상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상환 시 수령액은 108,550천 원이다.
- ④ 만기일까지 지수(종가)가 120.12pt까지 하락했다가 만기일에 198.20pt라면 만기상환 시 수령액은 75,000천 원이다.
- ⑤ ELS는 일반적으로 스텝다운(Step-Down)형이라 불리며 투자기간 동안 총 5번의 조기상환 기회가 있다.

3. 박영재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E 정보가 다음과 같다면 해당하는 주식의 스타일투자전략 관점에서의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주식E의 스타일분석 리포트 요약]

스타일지수	회귀계수(베타)
소형주 스타일	0.40
중형주 스타일	0.10
대형주 스타일	0.05
가치주 스타일	0.40
성장주 스타일	0.05
합계	1.00
R^2	0.905

- ① 주식E는 소형주, 가치주 스타일 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분석리포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타일지수로 주식E 수익률의 90.5%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스타일분석은 CAPM의 증권시장선(SML)에 기초한 성과분석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 ④ 주식E의 가치주 스타일은 기업의 미래 성장성보다 현재의 수익이나 자산의 가치관점에 집중한다.
- ⑤ 대형주의 경우 산업 내 성숙단계에 돌입한 기업들이 많아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소형주 스타일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같은 조사분석기관에서 대형주, 중형주 대비 많이 분석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편이다.

4. 박영재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E는 작년에 주식Z를 주당 25,000원에 매도한 자금으로 편입하였다. 올해 주식E의 적정가격이 20,000원이라고 하고, E주식의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가수익률(PER)을 고려한 적정가치를 산정할 때 배당성향 값으로 적정한 것은?

- E주식의 올해 주당순이익 추정금액 : 1,000원
- 자기자본이익률(ROE) : 10%
- E주식 투자에 대한 요구수익률 : 8.0%

-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5. 오성규 씨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더 넓은 면적의 상가G를 매수하고자 한다. 다음 추가 정보를 고려할 때 오성규 씨의 상가G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매수시점의 추가 정보〉

-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소유자: 오성규)

다세대주택A	오피스텔 B	상가 G
650,000천 원	250,000천 원 - 토지분: 170,000천 원 - 건물분: 80,000천 원	500,000천 원 - 토지분: 350,000천 원 - 건물분: 150,000천 원

-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상가G의 매매가격(취득가격): 700,000천 원(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졌음)

※ 상가G는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되는 세금은 고려하지 않음

※ 다세대주택A의 재산세 적용 세율: 420천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35%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를 적용하며 과세표준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음

※ 상가G의 재산세 적용 세율: 토지분 0.2%, 건물분 0.25%(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음)

- ① 상가G 매수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이다.
- ② 상가G 매수 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는 20,000천 원이다.
- ③ 오성규의 2024년도 다세대주택A 재산세는 735천 원이다.
- ④ 오성규의 2024년도 상가G 재산세는 1,075천 원이다.
- ⑤ 오성규는 다세대주택A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상가G에 대해서는 7월에 건물분의 재산세와 9월에 토지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오성규 씨의 부친 사망 후 발견된 자필증서유언의 효력과 남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가. 김선헤이 유증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김선헤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아파트C에 대하여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나. 자필증서유언에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도 가능하다.

다. 아파트C와 토지D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

라. 토지D를 유증받은 박현선은 유언의 효력 발생 즉시 토지D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나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라 ⑤ 가, 나, 다, 라

7. 오성규 씨 가족은 부친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한다. 부친의 자필증서 유언장 및 다음 추가 정보를 고려할 때 민법상 특별수익을 고려한 오성규 씨의 구체적 상속분(박영재 씨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가 정보〉

-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상가G의 매매가격(취득가격): 700,000천 원(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졌음)
 - ※ 상가G는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되는 세금은 고려하지 않음
 - ※ 다세대주택A, 오피스텔, 부친 상속 관련 재산의 상속개시시점 기준 민법상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함
 - 부동산 재산: 시나리오상 '현재 적정시세'
 - 금융재산: 시나리오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가액'
 - 사전증여재산: 시나리오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가액'
- 부친 사망 후 아래와 같이 다른 날짜에 작성된 자필증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유언장

유언자: 박영재(340101-XXXXXXX)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XX길 XX, XXX동 XXX호
(현석동, 아파트C)

1. 아파트C를 배우자 김선헌에게 상속한다.
2. 토지D를 아들 오성규에게 상속한다.
3. 현금 3억 원을 딸 박현선에게 상속한다.

2023년 8월 25일

작성자 본인 박영재 (인)

- 부친 사망 전인 2022년 12월 말 딸 박현선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 다세대주택A의 재산세 적용 세율: 420천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35%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를 적용하며 과세표준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음
 - ※ 상가G의 재산세 적용 세율: 토지분 0.2%, 건물분 0.25%(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음)

- ① 약 14,285천 원 ② 약 28,571천 원 ③ 약 85,714천 원
 ④ 약 457,142천 원 ⑤ 약 514,285천 원

8. 다음 추가 정보를 고려할 때 부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추가 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평가가액
 - 부동산 재산: 시나리오상 '현재 적정시세'
 - 금융 재산: 시나리오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 사전증여 재산: 시나리오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평가가액'
- 장례비(증빙 있음): 15,000천 원(일반 장례비 7,000천 원, 봉안시설 사용비용 8,000천 원)
-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로 산출
-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시나리오상 'Ⅳ. 부친 박영재 씨의 사망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 및 사전 증여 현황'에 있는 재산만 고려하며 그 외 비과세상속재산 및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금액, '장례비용을 제외한 상속재산 차감금액(채무, 공과금 등), 세대생략가산액(할증세액)'은 고려하지 않음
-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및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을 적용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며 그 외의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상속세 산출세액은 427,200천 원이다.
- ② 아파트C는 취득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해서 배우자와 거주하고 해당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상속세 과세가액은 2,650,000천 원이다.
-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 시 주식E는 현금과 동일하게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⑤ 상속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30% 이다.

9. 오성규 씨는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하지만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자금 형편상 어려워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안내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 ② 상속세 신고 시 분납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 ④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받지 못한다.
- 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 미달되는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없다.

10.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오성규 씨의 재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파생결합증권의 위험등급은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반영하는데 두 개 위험의 평균값으로 위험등급을 판정한다. 예를 들어 시장위험등급이 4등급이고, 신용위험등급이 2등급인 파생결합증권의 위험등급은 3등급이다.
- 나. 오성규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향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고, 납세담보물 가액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오성규는 추가로 담보물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 다. 오성규는 돌아가신 부친 박영재의 상속재산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는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 라. 오성규는 넓은 면적의 상가를 매수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매도인의 급매로 10% 저가로 나온 상가를 알게 되었다. 이 상가의 거래사례가격이 5억 원이라면 이 상가의 적절한 가격은 약 5.56억 원으로 볼 수 있다.
- 마.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가액이 재산평가액이 되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라,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제Ⅳ절

종합사례 I

결혼 22년차인 이준성 씨 부부는 2024년 1월 초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를 만나 몇 가지 관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대해 상담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 몇몇 기관에서 단편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으며, CFP® 자격인증자의 서비스에 대해 Fee-only 보수규정을 따르고 싶어 한다. 그들은 CFP® 자격인증자가 유료상담사인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Fee-only 베이스로 작업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이준성 씨 부부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웃 중 한 명과 은퇴와 투자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재무적으로 덜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I. 고객정보(나이는 2024년 1월 초 만 나이임)

• 동거가족

- 이준성(50세): 치과원장, 근무연수 23년, 은퇴 희망연령 65세
- 박희진(50세): 부인, 외자계제약회사 근무(약사), 근무연수 25년, 은퇴 희망연령 65세
- 이지호(20세): 아들,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됨, 군 미필
- 이하은(18세): 딸, 올해 고3이 됨

• 부모 및 형제자매

이준성: 2남 중 차남

- 이부친(80세): 부친, 임대소득 및 연금생활, 부동산 다수 보유
- 박모친(75세): 모친, 전업주부

박희진: 3녀 중 장녀

- 박장인(75세): 장인, 임대소득 및 연금생활

- 서장모(72세): 장모, 전업주부

• 주거상황

- 서울 소재 43평 아파트A(이준성 부부 공동 명의)

- 아파트A는 2010년 1월 초 8억에 취득

II. 재무적(정량적) 정보

• 수입 내역

- 이준성: 월 평균 매출액 50,000천 원, 매출액이익률은 40%이다.

(종합소득세율 반영 후 실 수령액 평균 월 14,000천 원으로 동의함)

- 박희진: 연수입 1억 원, 실수령액 월 6,500천 원, 연 1회 보너스(금액은 변동)

연 2회 회사의 주식매수 청구권으로 연봉의 10%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

• 지출 내역

- 이준성 용돈 월 3,000천 원(이중 월 1,000천 원은 병원 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박희진 용돈 월 1,500천 원, 양가 부모님 용돈 합산 2,000천 원, 자녀 용돈 1,000천 원, 사교육비 월 2,500천 원, 기타생활비 월 4,000천 원

- 종신보험 포함 보장성보험료 월 1,000천 원

• 자산 내역

-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A의 최근 실거래가액은 33억 원

- 서울 소재 오피스텔(이준성 명의 2015년 1월 2.3억에 취득, 현재 시세 250,000천 원, 보증금 10,000천 원/월세 900천 원)

- 경기 소재 오피스텔(이준성 명의 2016년 1월 2.5억에 취득, 현재 시세 280,000천 원, 보증금 10,000천 원/월세 800천 원)

- 오피스텔 2채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있음

현재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어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됨

- 토지(박희진 명의, 2015년 기획부동산 이용, 제주 00시 임야 1억 원 투자, 타인 공동등기)

제주 00시 토지를 필지로 받았으나, 맹지인 임야이고 공시지가(지분) 35,000천 원

- 국내주식 투자액 60,000천 원(이준성 명의, 3개 종목, 현재시점 종가합산 시 40,000천 원)
- 해외주식(박희진 명의, 제약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투자액 130,000천 원 (현재시점 증가 180,000천 원)
- 정기예금 3억 원(이준성 명의), 보통예금 30,000천 원(박희진 명의)
- 자동차1(이준성 명의, 승용차 2021년식, 현재 자동차보험상 자차 평가금액 65,000천 원)
- 자동차2(이준성 명의, SUV 2023년식, 현재 자동차보험상 자차 평가금액 55,000천 원)
- 병원 관련 사업장 재무설계를 선행하였고, 병원 관련 자산·부채 내역은 개인재무설계 시 반영하지 않기로 협의함

• 부채 내역

- 병원 관련 부채만 존재

• 저축·투자 내역

- 청약종합저축 매월 100천 원(박희진 명의, 2016.6. 가입)
- 정기적금 매월 500천 원(박희진 명의, 2023.10. 가입, 1년 만기, 가입목적 없이 시작)
- 연금저축 매월 250천 원(이준성 명의, 2018.1. 가입)
- 연금저축 매월 250천 원(박희진 명의, 2018.1. 가입)
- 노란우산 공제 매월 250천 원(이준성 명의, 2014.1. 가입, 소득공제 목적)

• 퇴직급여 내역

- 박희진 씨의 경우 2013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전액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음
- 디폴트옵션은 지정하지 않은 상태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평가액 77,000천 원

• 국민연금 내역

- 이준성 씨는 60세, 박희진 씨는 55세까지 현재의 소득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예상되는 (월)연금액은 이준성 씨는 현재물가기준으로 1,200천 원, 박희진 씨는 950천 원 수준임

III. 비재무적(정성적) 정보

- 위험수용성향은 이준성, 박희진 모두 적극형
- 돈관리의 주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양쪽에서 번갈아 지출

IV. 고객 재무목표

1. 재무관리 관련

- 이준성 씨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자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내키지는 않지만 자녀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처분 후 주거지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
- 이준성 씨는 55세부터 봉직의를 고용하여 병원 경영만 하는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출자금 3억 원 정도를 받아 공동개원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은퇴 이후 월수입은 현재의 3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박희진 씨는 외자계회사의 특성상 55세에 퇴직하고 은퇴 희망연령까지는 약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이 경우 현재 월수입의 50% 정도를 예상한다.
- 이준성 씨 부부는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한 저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음을 걱정하고 있으며,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 돈을 모아 자녀들의 독립자금을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다.

2. 보험설계 관련

- 이준성 씨는 55세부터 가계소득이 줄어든 경우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보험만을 남기고 일부는 정리하고 싶어 한다.
-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받은 보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족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모두 순수보장형으로 1년 단위 갱신형이며, 의료비 자기부담률은 20%이다.

가. 이준성, 박희진 보험가입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유니버설 종신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 의료보험	실손 의료보험
계약자	박희진	박희진	이준성	이준성	박희진
피보험자	이준성	박희진	이준성	이준성	박희진
수익자	박희진	상속인	박희진	이준성	박희진
보험가입금액	250,000	100,000	30,000	50,000	50,000
계약일	2015.9.16.	2015.9.16.	2013.12.16.	2019.1.5.	2019.1.5.
만기일	-	-	80세만기	100세	100세
월납보험료	560	250	45	60	55
해약환급금	39,200	17,500	1,620	-	-
보험료납입기간	20년납	20년납	20년납	100세납	100세납

나. 이지호, 이하은 보험가입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이준성	박희진
피보험자	이지호	이하은
수익자	이준성	박희진
보험가입금액	50,000	50,000
계약일	2019.1.5.	2019.1.5.
만기일	100세	100세
월납보험료	15	15
해약환급금	-	-
보험료납입기간	100세납	100세납

- 이준성 씨는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이 무엇인지 자문을 구하고 있다.

3. 투자설계 관련

- 이준성 씨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 C주식은 주당 5천 원 정도의 꾸준한 배당금을 지불했다. 배당금은 향후 매년 5%의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성 씨 부부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고려할 때, 그들은 CFP® 자격인증자에게 그 주식의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인지 또는 낮은 가격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 박희진 씨는 외국 제약회사 주식이 가까운 미래에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60일 동안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은지 알고 싶어 한다.

4. 부동산설계 관련

- 이준성 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A의 경우 최근 재건축조합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만약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 한다.
- 이준성 씨 부부는 자녀독립자금 명목으로 오피스텔을 지원할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도와줘야 할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과 토지 처분에도 관심 갖고 있다.

5. 은퇴설계 관련

- 이준성 씨 부부는 모두 65세에 은퇴를 예상하면서 은퇴기간 동안 필요한 은퇴소득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고, 부부의 은퇴소득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하고 있다.
- 이준성 씨 부부 모두 국민연금,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 외에 일정 자금을 금융상품에 저축(투자)하여 은퇴소득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 이준성 씨 부부는 은퇴기간 동안 안정적인 은퇴소득을 인출하기 위한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문을 구하고 있다.

6. 세금설계 관련

- 이준성 씨는 오피스텔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영향을 알고 싶어 한다.
- 박희진 씨는 연금상품의 세제혜택과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7. 상속설계 관련

- 이준성 씨는 자녀 독립자금 지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V. 경제지표 가정

- 세후투자수익률: 연 5.0%
- 물가상승률: 연 2.0%

VI.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 원)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항목		금액	명의	항목		금액	명의
금융 자산	현금성자산			유동 부채	마이너스통장		
	현금				신용대출		
	CMA			비유동 부채	담보대출		
	보통예금 등	30,000	박희진		임대보증금	20,000	이준성
	저축성자산			총부채		20,000	
	정기적금	1,500	박희진				
	노란우산공제	30,000	이준성				
	정기예금	300,000	이준성				
	연금저축	18,000	이준성				
	연금저축	18,000	박희진				
	청약종합저축	9,100	박희진				
	투자자산						
	국내주식	40,000	이준성				
	해외주식	180,000	박희진				
	펀드, ETF 등						
	금융자산 총액		626,600				
	부동산 자산	주거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530,000	이준성				
토지 등		35,000	박희진				
부동산자산 총액		565,000					
사용 자산	거주 부동산	3,300,000	공동				
	임차 보증금						
	자동차 등	120,000	이준성				
	사용자산 총액		3,420,000				
기타 자산	퇴직연금(DC) 등	77,000	박희진				
	보험해약환급금	58,320	가족합계				
	투자목적 미술품 등						
	기타자산 총액		135,320				
총자산		4,746,920		순자산		4,726,920	

주)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은 불입액으로 표기하였음

• 월간 현금흐름표(2023년 12월)

(단위: 천 원)

유입 / 유출	항목	금액
I. 수 입		22,200
II. 변동지출	본인 용돈	(3,000)
	배우자 용돈	(1,500)
	부모님 용돈	(2,000)
	자녀 용돈	(1,000)
	사교육비	(2,500)
	기타생활비(의식주, 공과금 등)	(4,000)
	변동지출 총계	(14,000)
III. 고정지출	보장성보험료 등	(1,000)
	대출이자 등	-
	고정지출 총계	(1,000)
저축 여력 (I - II - III)		7,200
IV. 저축·투자액	정기적금	(500)
	노란우산공제	(250)
	연금저축	(500)
	청약종합저축	(100)
	저축·투자액 총계	(1,350)
추가저축 여력(순현금흐름) (I - II - III - IV)		5,850

주) 이준성 씨의 용돈 중 1,000천 원은 병원 경비로 처리하였으나, 실수령액 14,000천 원에 포함되어 3,000천 원으로 표기함

※ 상기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답하시오.

(질문하지 아니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문제의 가정은 다른 문제와 관련 없음)

1. 시나리오상의 재무제표와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분석한 이준성 씨 가계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것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이준성 가계는 저축 여력을 고려했을 때 추가로 저축·투자를 할 수 있다.
 나. 이준성 가계는 비상예비자금을 따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이준성 가계는 달성하고자 하는 재무목표 대비 적절한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라. 이준성 가계는 추가저축 여력이 (+)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현금흐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이준성 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기반(고용상태)을 가지고 있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2.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가계 현금흐름 관리와 저축 여력의 장단기 배분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비상예비자금 관리를 설명하였다. 다음 중 비상예비자금 관리에 대한 자격인증자의 설명으로 바람직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사업소득자의 경우 매월 수입이 불규칙하므로 비상예비자금을 통해 수입의 불균형성을 평준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 두 분 모두 일정 시점 이후에는 현재 수입구조가 변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도 현재 설정하시는 비상예비자금 규모를 유지하셔서 대비하시면 됩니다.
 다. 경조사, 여행, 병원비 등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비상예비자금에서 지불함으로써 매월 저축 여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등 금액이 큰 경우 비상예비자금보다는 저축·투자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 저축만기가 되거나 투자자산을 매도하신 경우 비상예비자금에 모아 두셨다가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 현재 박희진 씨의 급여계좌에 30,000천 원이 있으니 이 계좌를 그대로 비상예비자금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가, 라, 마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3.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인은 종합재무설계 프로세스 5단계인 재무설계 제안서 실행단계에서 종합재무설계에 포함된 두 가지 재무설계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격인증자가 제시한 첫 번째 재무설계안은 이준성 씨 부부에게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정기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이었다. 왜 정기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자격인증자는 “두 분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후 자격인증자는 부족한 안정자산의 보충을 위해 연금자산을 추가로 가입하라는 두 번째 재무설계안에 대해 제시하면서 이준성 씨 부부에게 연 6.0%의 이자율을 가정한 보고서를 보여주었고, 그들이 연금가입 시 받을 예상 연금액을 보여주었다. 이준성 씨 부부는 은퇴 기간 동안 보장된 월 소득의 안정성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자격인증자의 정기보험 가입에 대한 재무설계안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았다.
나. 자격인증자는 이준성 부부에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적절한 사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 자격인증자가 정기보험을 권한 이유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적절했다.
라. 자격인증자는 이준성 부부에게 연 6.0%의 이자율을 가정한 연금소득이 보증되지는 않는다고 조언했어야 했다.

- ① 나 ② 다 ③ 가, 다
④ 나, 라 ⑤ 가, 나, 라

4. 다음의 보기 중 통합적 자산운용 접근을 고려하여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제안한 재무관리 설계안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자녀독립자금 마련을 위한 아파트 처분 후 이전 시 이준성이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예상되므로,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이준성의 소득세 한계세율을 고려할 때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을 이준성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보다는 자녀명의로 이전해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자문했다.
- 다. 박희진이 보유한 외국제약회사 주식을 현재 공정시장가치로 주식을 매각하기로 선택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며 매년 양도차익 2,500천 원 한도 이내로 처분하거나, 배우자 이준성에게 증여한 이후 처분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 라. 자녀독립자금 지원이라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증여플랜을 우선하고, 이후 노후 생활비 기반을 마련하도록 자문하였다.
- 마. 연금저축을 노후생활비 기반으로 활용할 경우 현재 세액공제 받은 만큼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① 가

② 나

③ 가, 다

④ 나, 라

⑤ 라, 마

5.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이준성 씨가 가계소득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 중 자격인증자의 설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가입 중인 종신보험 2개 모두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기능을 활용하면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 보험료, 사업비 등을 해약환급금으로 대신 내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나. 종신보험은 감액제도를 활용할 경우 가입금액(보장금액)의 일부를 해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장금액과 함께 납입할 보험료도 줄어든다. 감액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다른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다. 종신보험은 보험료 감액완납제도를 신청하면 보장금액은 줄어들지만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장금액을 줄이기 원할 경우 충분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라. 종신보험의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도 어렵다면 연장정기제도를 신청하면 되며, 이때는 변경 당시 해약환급금에 따라 보장기간은 달라지며, 추후 종신보험으로 재변경도 가능하다.
- 마. 종신보험의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출이자 발생하지만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 모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마

④ 나, 라, 마

⑤ 가, 라, 마

6. 오피스텔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CFP[®] 자격인증자가 설계한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비교하여 설명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배상책임보험 가입설계 정보〉

특약	가입금액	비고
건물화재	2억 원	
화재벌금	2천만 원	
화재배상책임	20억 원	
임대인의 임대료손실	300만 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500만 원	자기부담금 50만 원
임대인배상책임보험	1억 원	자기부담금 50만 원
보험료	1만 원	
비고	20년납 20년 만기	

- ① 운전자보험에 특약형태로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더라도 임대해준 오피스텔은 누수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별도로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② 다른 보험에 특약형태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아파트A의 누수가 발생할 경우 아랫집 수리비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③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설계안대로 가입할 경우 오피스텔에 누수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상된 물건 값과 바닥을 보수하는 과정에 든 수리비까지 포함하여 최대 5,000천 원까지 보상된다.
- ④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설계안대로 가입할 경우 오피스텔 외벽의 크랙이나 욕실, 베란다의 방수층이 깨져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설계안대로 가입할 경우 오피스텔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천장, 도배, 가전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7. 현재 이준성 씨가 보유하고 있는 A, B, C 주식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구분	젠센척도	샤프척도	소티노척도	트레이너척도
종목A	0.29%	0.50	0.56	1.55%
종목B	0.13%	0.49	0.43	1.42%
종목C	-0.25%	0.49	0.46	1.01%

※ BM은 KOSPI지수를 사용

※ 소티노척도 측정시 목표(기준)수익률은 0을 적용

가. 젠센척도는 BM(KOSPI)대비 초과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양의 값이 나타나면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음의 값이 나타나면 부진한 성과를 의미한다.

나. 샤프척도는 총위험 한 단위당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는가를 나타내는 위험보상률의 의미로 종목A는 BM(KOSPI)과 같다.

다. 소티노척도는 기준수익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만을 위험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소티노척도가 가장 높은 종목A는 기준수익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

라. 트레이너척도는 위험측정치인 표준편차 대신 베타계수를 사용하는 척도로 종목A가 가장 높다.

① 가, 라

② 가,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8. 박희진 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이 가까운 미래(60일)에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격인증자가 제안한 대응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해외주식과 코스피지수의 상관계수는 0.90이다)

- ① 해외주식 투자포트폴리오에 해외주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B주식을 일시적으로 편입하여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가치하락을 최소화 한다.
- ② 해외주식을 기초자산, 만기를 60일로 하는 풋옵션을 매수하여 해외주식의 가치하락을 방어한다.
- ③ 해외주식의 가치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기가 60일인 코스피지수 선물을 매수한다.
- ④ 해외주식의 가치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코스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인버스상품을 보유한다.
- ⑤ 해외주식의 가치하락 시 초과성과를 얻기 위해서 코스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상품을 보유한다.

9. 이준성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C의 정보가 다음과 같다면 정률성장배당할인모형으로 주가를 평가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C 정보]

- 작년도 배당금: 주당 5,000원
- 예상 배당성장률: 5.0%
- 현재 무위험이자율: 5.0%
- 시장수익률: 10.0%
- 베타: 1.2

- ① 주식C의 요구수익률은 11.0%이다.
- ② 정률성장배당할인모형에 따른 주가는 875,000원이다.
- ③ 주식C의 베타가 1.0로 하락하면 모형에 따르는 주가는 이전보다 상승한다.
- ④ 주식C의 예상 배당성장률이 3%로 하락하면 모형에 따르는 주가는 이전보다 상승한다.
- ⑤ 정률성장배당할인모형에 따른 주가는 예상 배당성장률과는 음의 상관관계, 베타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10. 이준성 씨 부부가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A를 처분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건축추진위원회 상태에서는 쉽게 처분이 가능하나,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원지위 양도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처분하려면 조합결성 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 ② 처분하기 전에 미리 거주할 주택을 찾아놓고 주거안정성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 ③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이 있다면 완공되는 예상시기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④ 입지가 좋고 재건축진행이 빠르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⑤ 빨리 처분하고자 한다면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는 매도가 쉽지 않으므로 먼저 단독 명의로 바꾸어놓아야 한다.

11. 이준성 씨 부부가 소유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A를 계속 보유하여 입주까지 한다면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추가부담금의 계산식에 대해 적절한 것은?

- ① 추가부담금 = 총수입 - 총지출
- ② 추가부담금 = 개발이익/분양면적
- ③ 추가부담금 = 청산금/분양면적
- ④ 추가부담금 = [분양 후 면적-(대지면적×무상지분율)]×분양가
- ⑤ 추가부담금 = [(분양총수입-개발이익)/분양가]×개발이익면적

12. 이준성 씨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자 할 때 CFP® 자격인증자가 조언해 준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도소득세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먼저 처분하시는 것이 좋다.
- ② 미래에 상승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동산이라면 처분시기를 조금 더 늦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 ③ 제주 00시 토지가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땅지이므로 가장 먼저 팔기 쉽다.
- ④ 경기 소재 오피스텔이 서울 소재 오피스텔보다 월세가 더 낮으므로 2개의 오피스텔 중에서는 수익성이 더 낮은 경기 소재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시는 것이 좋다.
- 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계산해서 매도하는 것이 좋다.

※ 이준성 씨 부부는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로부터 은퇴설계를 위해 희망하는 은퇴라이프스타일을 구체화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은퇴설계를 위한 다음의 추가정보를 참고하여 [문제13~15번]의 질문에 답하시오.

① 은퇴기간 및 은퇴소득 필요금액

- 은퇴기간
 - 부부 모두 90세까지 25년으로 결정
- 은퇴생활비
 - 기본생활비: 현재 생활비의 75% 수준인 월 3,000천 원으로 결정
 - 여가활동비용(부부용돈 포함): 월 3,000천 원
 - 건강관리비용(병원 진료·치료비용 포함): 월 2,000천 원
 - 은퇴생활비는 매년 물가상승률로 증가함

② 추가적인 가정치

- 임금상승률은 연 3.0%로 합의
- 금융상품 수익률
 - MMF: 연 0.0%, 정기예금: 연 2.0%

13. 다음 CFP® 자격인증자가 이들 부부에게 설명하고 있는 은퇴소득원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소득수준은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매년 조정되는 상한액의 조정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예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부부가 각각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연금저축은 저축기간 중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인출하는 연금액 전액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다. 지금까지 부부 각각의 연금저축펀드에 향후 65세까지 15년간 계속 납입하는 경우 은퇴시점에서의 연금적립금(세전)평가액은 합산하여 243,111천 원이 예상됩니다(운용수익률 연 6.0%). 물론 인출 시 과세되는 연금소득세를 감안하여 평가한 세후평가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라. 박희진 씨가 예상대로 55세에 퇴직을 한다면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은퇴를 하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면 투자기간이 15년이 됩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것에 불만족스럽다면 적립금 운용방법을 TDF 등의 펀드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박희진 씨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을 TDF2040(운용수익률 연 6.0%)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면 현재의 운용방법으로 운용할 때보다 은퇴시점에서 세전평가액을 기준으로 약 55,965천 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나,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14.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이들 부부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65세 시점)을 11억 원으로 합의하고, 추가적인 은퇴저축은 세후투자수익률을 연 6.0%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들 부부의 저축 여력을 고려한 은퇴저축 방안에 대해 자격인증자가 제안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보유 또는 저축(투자)하고 있는 자산 중 투자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정기예금, 주식, 제주 임야 등의 투자목적에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 박희진이 퇴직하는 시점(55세)까지 매월 초 저축해야 하는 금액은 현재의 순현금흐름 수준에서 가능하다.
- ③ 지금부터 은퇴 전까지 매월 초에 3,816천 원을 저축하면 목표하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박희진의 퇴직 이후 저축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④ 현재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은퇴저축기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추가적인 저축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사용목적을 정하고 있지 않은 금융자산과 제주 임야 등 자산에서 은퇴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 ⑤ 이준성 명의의 정기예금을 은퇴자산으로 사용한다고 정하고, 지금부터 5년 동안 매월 초에 5,457천 원을 저축하면 목표로 하는 은퇴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15.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이들 부부에게 총은퇴일시금에 해당하는 은퇴자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은퇴소득 인출을 위한 은퇴자산포트폴리오 구성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안정적인 은퇴소득 인출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 ① 은퇴기간 중 안정적인 은퇴소득 인출을 위해 은퇴자산을 생활비계정, 저축계정, 투자계정에 적정수준으로 배분한다.
- ② 생활비계정은 수시입출금식 예금 또는 MMF 등으로 관리하고, 저축계정은 1~3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운용하며 투자계정은 펀드로 운용한다.
- ③ 2년간 필요한 기본생활비, 여가활동비용 및 건강관리비용은 (부부 각각 명의의) MMF에서 관리하고, 매 1년 단위로 미달 금액은 저축계정에서 이체한다.
- ④ 저축계정에는 3년간 필요한 은퇴소득을 예치하며, 매년 말에 생활비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을 충족할 수 있도록 투자계정에서 이체한다.

[계정별 수익률 가정치]

- 생활비계정: 연 0.0%, 저축계정: 연 3.0%, 투자계정: 연 6.0%

- ① 65세 시점에서 생활비계정에 배분할 금액은 187,345천 원이다.
- ② 65세 시점에서 저축계정에 배분할 금액은 289,541천 원이다.
- ③ 65세 시점에서 투자계정에 배분할 금액은 1,225,351천 원이다.
- ④ 66세 시점에서 저축계정에서 생활비계정으로 이체해야 할 금액은 97,457천 원이다.
- ⑤ 66세 시점에서 투자계정에서 저축계정으로 이체해야 할 금액은 96,732천 원이다.

16. 이준성 씨는 경기도에서 치과병원을 운영 중에 있다. 홍보가 잘 된 덕분인지 환자가 늘어나 계속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임대소득이 합산과세되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 중에 있다. 다음의 정보를 고려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안내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음)

〈2024년 귀속 소득 내역〉

- 치과병원 매출액: 600,000천 원
- 치과병원 사업소득금액: 260,400천 원
- 오피스텔 임대 매출액: 20,400천 원(필요경비 7,000천 원)
-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하여 건물분 감가상각비와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않음
- 종합소득공제: 7,000천 원
- 이준성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 ① 이준성의 종합소득금액은 260,400천 원이다.
- ② 이준성의 과세표준은 239,400천 원이다.
- ③ 이준성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79,012천 원이다.
- ④ 만약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된 소득금액이 없다면 35%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 ⑤ 이준성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증가된 산출세액은 5,092천 원이 된다.

17. 박희진 씨는 현재 재직 중인 제약회사에서 약 25년을 근무 중에 있다. 희망퇴직 시점까지 5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은퇴생활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은퇴자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과 정년퇴직 시에 예상 퇴직소득세 규모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다음의 정보를 고려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단,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음)

- 2018년 1월에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연금저축 상품에 월 250천 원 가입하여 보유 중에 있다.
- 2013년부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보유 중에 있다.
- 박희진은 65세부터 국민연금 월 950천 원을 수령할 수 있다.
- 박희진은 65세에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350,000천 원을 수령할 수 있다(근무연수 40년, 임원이 아님).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참고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20년 초과	40,000천 원 + 3,000천 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0천 원 초과 70,000천 원 이하	8,000천 원 + (환산급여 - 8,000천 원) × 60%
70,000천 원 초과 100,000천 원 이하	45,200천 원 + (환산급여 - 70,000천 원) × 55%

- 가. 박희진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가입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서 2001년 이후에 납입한 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에 대하여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며 이전 분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 나. 박희진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다. 박희진이 실제 퇴직 시 350,000천 원을 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2,754천 원이 된다.

라. 박희진이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그 소득의 원천별로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만약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 분류과세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⑤ 가, 나, 라

18. 이준성 씨는 본인 자금 중 일부를 국내 주식 및 은행예금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다음의 정보를 고려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음)

-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소득 15,000천 원(원천징수세율 14%)
- 국내주식 배당소득 3,000천 원(원천징수세율 14%, Gross-up 대상)
- 해외주식 배당소득 4,000천 원(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 치과병원 매출액 600,000천 원(필요경비 400,000천 원 가정)
- 종합소득공제 7,000천 원
- Gross-up율은 10%

- ① 이준성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액(Gross-up)은 200천 원이다.
- ② 이준성의 정기예금 이자소득과 국내주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이준성의 종합소득금액은 222,300천 원이다.
- ④ 이준성의 금융소득으로 인하여 증가된 산출세액은 344천 원이 된다.
- ⑤ 이준성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53,744천 원이 된다.

19. 이준성 씨 부부는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미리 독립자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안내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증여세는 증여를 한 자(증여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포함)에는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③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증여계약의 성립일이다.
-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증여자가 거주자일 경우 증여세 관할 세무서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다.

20. 이준성 씨 부부는 자녀들의 독립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증여 수단으로 이준성 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증여하거나 전세금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다음의 정보를 가정하였을 때 2024년 5월에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산출 세액 계산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오피스텔 증여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계산 가정)

〈증여와 관련된 정보〉

- 서울 소재 오피스텔(이준성 명의)
 - 2015년 1월 230,000천 원에 취득(현재 시세 250,000천 원)
 - 보증금 10,000천 원 / 월세 900천 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업자에게 임대 중)
 - 담보대출금액과 기타필요경비는 없음
- 경기 소재 오피스텔(이준성 명의)
 - 2016년 1월 250,000천 원에 취득(현재 시세 280,000천 원)
 - 보증금 10,000천 원 / 월세 800천 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업자에게 임대 중)
 - 담보대출금액과 기타필요경비는 없음
- 전세금 지원 금액
 - 자녀(이지호)에게 현금 3억 원 지원 예정
- 사전증여 내역
 - 자녀(이지호, 이하은)는 조부모로부터 5년 전에 각각 현금 20,000천 원을 수증하고 증여세 신고함(증여재산공제 후 납부세액은 없음)

〈참고: 2024년 귀속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토지·건물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 오피스텔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으며 임대업 장부작성 시 건물분 감가상각액을 계상하지 않음

- ① 이준성의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자녀(이지호-성년)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834천 원이다.
- ② 이준성의 서울 소재 오피스텔과 전세금 3억 원을 자녀(이지호-성년)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증여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은 93,000천 원이다.
- ③ 이준성의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자녀(이하은-미성년)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927천 원이다.
- ④ 이준성의 경기 소재 오피스텔을 자녀(이하은-미성년)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증여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은 40,000천 원이다.
- ⑤ 이준성 씨의 서울 소재 오피스텔은 자녀(이지호-성년)에게 증여하고, 경기 소재 오피스텔을 자녀(이하은-미성년)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액은 133,000천 원이 된다.

제 V 절

종합사례 II

김상진 씨는 2024년 1월 1일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심장마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배우자 없이 어떻게 은퇴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주)희망 대표자로서 회사 운영만 잘하면 될 줄 알았으나, 이번에 갑작스런 배우자 사망 후 상속설계 방법과 향후 본인의 사망에 따른 사전 상속설계도 준비하고 싶어 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법인 사업체 주식을 아들에게 이전하여 법인을 승계하는 방안 등에서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고 있다. 이에 김상진 씨는 2024년 1월 초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를 만나 재무상담을 진행하였다.

I. 고객정보(나이는 2024년 1월 초 만 나이임)

- 동거가족
 - 김상진(65세): (주)희망 대표이사로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재직 중이며 은퇴 희망연령은 10년 후 75세
 - 최현진(62세): 부인, 2024년 1월 1일 심장마비로 사망, 사망 시까지 개인사업자(상가C 임대업)였음
 - 김건우(38세): 아들,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희망에서 근무 중이며 배우자 최다솜, 자녀 김종균과 함께 빌라G에서 거주(김상진과 별도 세대 구성)
 - 김소희(25세): 딸, 대학교 재학 중, 김상진과 함께 거주

- 주거상황
 - 서울 소재 54평 아파트A(김상진 명의)
 - 아파트 A는 2014년 8월 초 5억 원에 취득

II. 재무적(정량적) 정보

- 수입 내역
 - 김상진: (주)희망에서 월 급여 12,000천 원
 - 최현진: 상가C 임대업에서 월세 2,000천 원(임대보증금 1억 원)
- 지출 내역
 - 김상진 용돈 월 3,000천 원, 딸 용돈 500천 원, 딸 교육비 2,500천 원(예술계열 과외), 기타 생활비 월 3,000천 원
 - 종신보험 보험료 월 2,000천 원(계약자, 피보험자: 김상진, 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사망보험금 5억 원, 재해사망보험금 10억 원)
 - 기타 실비보험 및 보장성보험 보험료 월 300천 원
- 자산 내역
 - 서울 소재 거주 아파트A(김상진 명의, 현재 시세 15억 원)
 - (주)희망 주식 10,000주(김상진 7,000주, 최현진 3,000주, 주당 액면가 5,000원, 현재 주당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30,000원, 2003년 1월초에 제조업으로 법인 설립, 비상장법인, 지분 현황은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음)
 -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식D 4,000주(김상진 명의, 현재 시세 4억 원)
 - 서울 소재 상가C(최현진 명의, 2022년 1월 초 4억 원에 취득, 현재 시세는 5억 원,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세 2,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로 임대업 영위, 임대계약은 2022년 1월경에 이루어져 2024년도 말까지 변동 없음)
 - 보통예금 5.5억 원(김상진 명의), 정기적금 30,000천 원(최현진 명의), 정기에금 5억 원(최현진 명의)
 - 2022년식 승용차(최현진 명의, 현재 자동차보험상 자차 평가금액 1.2억 원), 김상진의 경우 회사 리스 차량 이용
- 부채 내역
 - 최현진 임대보증금 1억 원

- 저축 및 투자 내역
 - 별도 저축이나 투자는 하고 있지 않으며 잉여자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남겨둠
- 퇴직금 내역
 - 김상진이 2024년 1월 1일 퇴직 시 수령하는 임원 퇴직금은 10억 원, 은퇴 희망연령에 퇴직 시 15억 원(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 국민연금 내역
 - 김상진 씨는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으로 월 1,500천 원을 수령하고 있음
- 사전증여 내역
 - 수증자: 김건우(2011년 8월 초에 현금 수증,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가액 3억 원, 증여자: 최현진)
 - 수증자: 김소희(2021년 5월 초에 상장법인 주식F 수증,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은 2억 원, 증여자: 최현진)

III. 비재무적(정성적) 정보

- 김상진 씨의 위험수용성향은 안정성장형
- 돈 관리 주체는 최현진 씨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사망에 따라 관리 공백이 발생함 (김상진 씨는 최현진 씨처럼 관리할 성향이 부족함)

IV. 고객 재무목표

1. 재무관리 관련
 - 김상진 씨는 배우자 사망에 따라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하고 있다.
 - 김상진 씨는 앞으로 10년간의 재직기간과 이후 은퇴 시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2. 투자설계 관련
 - 김상진 씨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일부는 은퇴생활자금으로 일부는 상속재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한다.
3. 부동산설계 관련
 - 김상진 씨는 퇴직 후 서울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의 전원주택 마을로 이사하려고 계획하고 있기에 전원주택 구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 김상진 씨는 신규로 취득하는 상가를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은퇴자금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임대료의 경우 연간 4%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임대상가에 대하여 투자하려고 하고 있기에 상가투자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4. 위험관리(보험설계) 관련

- 김상진 씨는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적정수준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종신보험 이외 타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 없음)

5. 은퇴설계 관련

- 김상진 씨는 배우자 사망 후 혼자인 은퇴생활에 대하여 고민 중에 있다. 은퇴자금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나온 고단한 삶을 보상받기 위하여 넉넉한 은퇴생활을 하고 싶으며 은퇴자금 외의 잉여 재산은 자녀나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다.

6. 상속설계 관련

- 김상진 씨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상속세 규모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 김상진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희망 주식을 아들에게 이전하여 법인을 승계하는 방법과 이전하는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 김상진 씨의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일단은 전부 본인 명의로 하고 싶어 한다.
- 또한 이 경우 가족 간 상속재산배분과 관련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7. 세금설계 관련

- 김상진 씨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근로소득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 김상진 씨는 아들에게 법인을 승계 후 은퇴 희망연령에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 김상진 씨는 법인세를 어떻게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 김상진 씨는 은퇴생활을 넉넉하게 보내기 위하여 세후수익률이 괜찮다면 신규로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소득을 늘리려고 한다. 신규 상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V. 경제지표 가정

- 세후투자수익률: 은퇴 전 연 6.0%, 은퇴 후 연 4.0%
- 물가상승률: 연 2.0%

VI.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 원)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항목	금액	명의	항목	금액	명의
금융 자산	현금성자산		유동 부채	마이너스통장	
	현금			신용대출	
	CMA		비유동 부채	담보대출	
	보통예금 등	550,000 김상진		임대보증금	100,000 최현진
	저축성자산		총부채		100,000
	정기적금	30,000 최현진			
	노란우산공제	0 -			
	정기예금	500,000 최현진			
	연금저축				
	청약종합저축				
	기타 저축성자산				
	투자자산				
	(주)희망 주식	90,000 최현진			
	(주)희망 주식	210,000 김상진			
	상장법인 주식	400,000 김상진			
	펀드, ETF 등				
	금융자산 총액	1,780,000			
부동산 자산	주거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500,000 최현진			
	토지 등				
사용 자산	부동산자산 총액	500,000			
	거주 부동산	1,500,000 김상진			
	임차 보증금				
	자동차 등	120,000 최현진			
기타 자산	사용자산 총액	1,620,000			
	퇴직연금(DC)등				
	개인퇴직계좌				
	보험해약환급금	30,000 가족합계			
	퇴직금 추산액	1,000,000 김상진			
	기타자산 총액	1,030,000			
	총자산	4,930,000	순자산		4,830,000

• 월간 현금흐름표(2023년 12월)

(단위: 천 원)

유입 / 유출	항목	금액
I. 수 입		14,000
II. 변동지출	본인 용돈	(3,000)
	딸 용돈	(500)
	딸 교육비	(2,500)
	기타생활비(의식주, 공과금 등)	(3,000)
	변동지출 총액	(9,000)
III. 고정지출	보장성보험료 등	(2,300)
	대출이자 등	-
	고정지출 총액	(2,300)
저축 여력(I-II-III)		2,700
IV. 저축·투자액	정기적금	-
	노란우산공제	-
	연금저축	-
	청약종합저축	-
저축·투자액 총액		-
추가저축 여력(순현금흐름) (I-II-III-IV)		2,700

주) 배우자 최현진 씨 월세 200만 원을 수입에 합산하여 표기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월세액만큼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상기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답하시오.

(질문하지 아니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문제의 가정은 다른 문제와 관련 없음)

1. 김상진 씨는 배우자 사망에 따라 그동안 배우자가 관리하고 있던 상가임대차 부분이나 가계현금흐름 관리를 본인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무 CFP®자격인증자가 제안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가. 자녀재무교육과 독립자금 마련의 일환으로 상가C를 김소희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하여 상가임대차 관리를 따님과 같이 훈련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 나. 본인 용돈이 법인경비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본인 근로소득에서 지출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다. 저축 여력 확보를 위해 매월 지출항목들을 일일이 점검하셔서 생활비 절감을 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 라. 노후의료비 기반을 고려하여 현재 보유하신 보장성보험 등을 검토하시고, 은퇴 이후 가계 현금흐름에 장애가 될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조정도 검토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 마. 비상예비자금을 설정, 활용하셔서 가계부분의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보통예금을 활용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라, 마

⑤ 다, 라, 마

2. 다음은 은퇴생활 영위를 위한 김상진 씨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김상진은 은퇴를 위한 저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김상진은 현재 적절한 비상예비자금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다. 김상진이 필요로 하는 연간 은퇴생활비가 현재물가기준으로 96,000천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은퇴시점에서 필요한 총은퇴일시금을 현재시점에서 준비하고자 할 때 현재의 순자산으로 준비가 가능하다(은퇴기간은 20년이며, 은퇴시점, 국민연금 수령액 및 경제지표는 시나리오 참조).

라. 김상진은 은퇴생활을 대비한 우수한 현금흐름 관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마. 김상진은 은퇴생활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가 가능하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3. 김상진 씨는 은퇴기간 동안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채권형펀드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은퇴생활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의 목표 듀레이션을 2.5년(포트폴리오관리 시 금리 전망에 따라서 2.0년 에서 3.0년 사이로 조정)으로 설정하고 다음의 5개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을 때, 향후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 포트폴리오 조정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A채권: 잔존만기 9개월, 할인채
- B채권: 잔존만기 2년, 표면금리 8.0%인 이표채
- C채권: 잔존만기 2년, 표면금리 6.0%인 복리채
- D채권: 잔존만기 4년, 표면금리 3.0%인 복리채
- E채권: 잔존만기 3년, 표면금리 6.0%인 이표채

- ① B채권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D채권의 비중을 축소한다.
- ②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2.3년으로 조정한다.
- ③ D채권을 잔존만기 3년 채권으로 교체한다.
- ④ E채권의 비중을 축소하고 A채권의 비중을 확대한다.
- ⑤ C채권을 잔존만기 4년 채권으로 교체한다.

4. 김상진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국내와 해외 투자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년간 성과평가의 분석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국내와 해외 투자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자산배분의 총 수익률은 연 7.2%)

구분		국내주식	해외주식
벤치마크		KOSPI200	S&P500
구성비	전략적 자산배분	()%	()%
	전술적 자산배분	35%	65%
수익률	벤치마크	6%	8%
	실현	5%	9%

※ 해외주식 벤치마크 수익률은 원화환산수익률

- ① 국내주식 부문은 전술적 자산배분효과는 양수, 증권선택효과는 음수이다.
- ② 해외주식 부문은 전술적 자산배분효과와 증권선택효과가 모두 양수이다.
- ③ 실제포트폴리오의 총 수익률은 연 7.6%이다.
- ④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술적 자산배분효과보다 증권선택효과가 더 크다
- ⑤ 전술적 자산배분수익률이 전략적 자산배분수익률보다 더 크다.

5. 김상진 씨가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마련하여 생활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다. 전원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이 진정한 물건의 소유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해야 한다.
- ③ 매매계약 당시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입주 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④ 전원주택은 특히 개별성이 매우 강하므로 매수하기 전에 직접 방문하여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 ⑤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공법적 제한에 따라 신축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토지매수목적에 맞는 토지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6. 김상진 씨가 신규로 다음과 같은 서울시내 역세권에 소재한 상가에 투자할 경우 총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Cash on Cash rate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매수예정가액 10억 원으로 토지가액은 4억 원, 건물가액은 6억 원
-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6,500천 원
- 대출금 3억 원 승계조건
- 승계 예정인 대출금의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6%, 대출기간 10년, 매년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일시상환함(추가로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조건은 승계 예정인 대출금의 대출조건과 동일함)
- 보증금 운용이익: 연 2.0%
- 공실률: 5%
- 부가가치세는 감안하지 않음

- ① 6.5% ② 7.6% ③ 8.4% ④ 11% ⑤ 12%

7. 아래 지문을 참고로 김상진 씨의 사망에 대비한 추가적인 보장성보험 가입 및 상속세 납부자금 마련에 대해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은 생애가치방법에 의해 산출함
 - 소득가능기간: 75세까지 10년간
 - 부양소득: 세전 연소득(월급여×12개월)의 60%
 - 할인율: 연 4.0%
- 추가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으로 가입함
 - 월 납입보험료 600천 원(보험가입금액 200,000천 원, 납입기간 10년납 기준)
- 상속세 계산 시 참고
 - 2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최현진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함
 - (주)희망 보유주식은 사망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상속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업무무관비율 0% 가정)
 -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7%로 가정함
 - 김상진 사망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만 적용하며 그 외의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 김상진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세후투자수익률 연 6.0%, 부동산자산의 가치는 매년 물가상승률 연 3.0% 만큼 상승함

- ① 김상진의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은 700,780천 원이다.
- ② 추가적으로 필요한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은 200,780천 원이다.
- ③ 추가적으로 종신보험으로 200,000천 원을 가입하는 경우 총소득대비 보장성보험료 부담비중은 24.17% 이다.
- ④ 김상진이 현재 사망할 경우 종신보험의 보험금만으로도 상속세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 ⑤ 김상진이 10년 경과시점에서 사망할 경우 금융자산 및 종신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는 김상진 씨와 은퇴설계를 진행하면서 은퇴소득목표와 은퇴자산 관리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였다. 다음의 은퇴설계 정보를 참고하여 [문제8~10번]의 질문에 답하시오.

• 은퇴기간: 75세부터 15년간

• 은퇴소득목표

– 은퇴생활비: 매년 초에 현재물가기준으로 96,000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은퇴생활비		
	기본생활비	여가활동비	건강관리비
(월)필요금액	4,000	3,000	1,000
연간 필요금액	48,000	36,000	12,000

• 은퇴자산 마련 방안

–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자산

· 현재 보통예금 550,000천 원 중 300,000천 원

· 상장법인 주식 400,000천 원 중 200,000천 원

–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보통예금 및 상장주식은 자산배분형펀드로 투자

– 현재의 은퇴자산으로 목표로 하는 은퇴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은 75세에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함

• 은퇴소득 항목 별 자금관리

– 3년간 필요한 은퇴생활비는 3년 만기 분할지급식 정기예금계좌에서 관리

– 3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필요한 은퇴생활비는 자산배분형펀드로 운용하면서, 매 1년마다 1년간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분할지급식 정기예금계좌로 이체

• 기타 가정

– 은퇴생활비 및 간병비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며, 매년 초에 발생

– 금융상품별 세후투자수익률

· 분할지급식 정기예금: 연 3.0%, 자산배분형 펀드: 연 5.0%, 채권형펀드: 연 4.0%

8. 김상진 씨가 은퇴기간 중 목표로 하고 있는 은퇴생활비를 충족하기 위해 은퇴시점에 확보하고 있어야 할 은퇴자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은 고려하지 않음)

- ① 1,134,144천 원 ② 1,260,545천 원 ③ 1,352,379천 원
④ 1,427,017천 원 ⑤ 1,448,620천 원

9. 김상진 씨가 은퇴시점 부족한 은퇴일시금을 충족하기 위해 75세에 퇴직금에서 추가적으로 총 당해야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퇴직금에서 충당할 금액 없음 ② 325,460천 원 ③ 463,034천 원
④ 537,932천 원 ⑤ 612,571천 원

10. 김상진 씨의 나이 80세 초에 분할지급식 정기예금과 자산배분형펀드에 남아있는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할지급식 정기예금	자산배분형펀드
①	364,564천 원	788,250천 원
②	370,320천 원	802,455천 원
③	422,630천 원	902,455천 원
④	422,630천 원	986,137천 원
⑤	435,308천 원	986,137천 원

※ 김상진 씨는 2024년 초 배우자(최현진)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간 원활한 상속재산 분배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류분 분쟁 등을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다음의 정보를 참고하여 [문제 11~12번]의 질문에 답하시오. (단, 상가C의 임대보증금 등 상속채무는 없으며, 국민 연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배우자(최현진)의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시점 기준 민법상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함
 - 정기적금: 300,000천 원
 - 정기예금: 230,000천 원
 - (주)희망 비상장주식: 90,000천 원
 - 서울 소재 상가C: 500,000천 원
 - 자동차: 120,000천 원
- 기여분: 김상진에게 기여분으로 50,000천 원 인정
- 최현진 사전증여 내역
 - 수증자: 김건우(2011년 8월초에 현금 수증, 상속개시시점 기준 민법상 평가가액 3억 원)
 - 수증자: 김소희(2021년 5월초에 상장법인 주식F 수증, 상속개시시점 기준 민법상 평가가액 4억 원)

11. 위 정보를 고려하였을 때 김상진 씨의 배우자(최현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상진이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본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경우 그의 구체적 상속분은 6.9억 원이다.
- 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김상진과 김건우, 김소희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③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

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 ④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2. 김상진 씨는 본인의 구체적 상속분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유류분 침해 여부가 고민이 된다. 이에 대비하고자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로부터 유류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각 지문은 별개의 독립적인 지문으로 가정함)

-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③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하거나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④ 김상진의 기여분이 없고 상속채무로 임대보증금 1억 원이 있는 것으로 전제할 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13.9억 원이 된다.
- 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유류분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이나 포기하는 것 모두 불가능하다.

13. 김상진 씨는 배우자(최현진)의 사망에 따라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또한 배우자(최현진)의 보유 재산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세가 어느 규모로 계산될지 가늠이 되지 않아 어떻게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는가에 고민 중에 있다. 다음의 정보를 고려하였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최현진)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정보〉

- 배우자(최현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평가가액
 - 정기적금: 30,000천 원
 - 정기예금: 500,000천 원
 - (주)희망 비상장주식: 90,000천 원
 - 서울 소재 상가C: 500,000천 원(임대보증금 100,000천 원, 월세 2,000천 원)
 - 자동차: 120,000천 원
 - 금융 채무: 없음
 - 장례비: 10,000천 원(증빙 있음)
 - 사전증여 내역
 - 시나리오상 사전증여 내역 참고
-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및 배우자공제는 10억 원을 적용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만 적용하며 그 외의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배우자(최현진)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산출세액은 51,200천 원이다.
- ② 장례비의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최대 10,000천 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다.
- ③ 상속세 과세가액은 1,430,000천 원이다.
- ④ 상속세 과세표준은 206,000천 원이다.
- ⑤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14. 김상진 씨는 아들(김건우)에게 사업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사전증여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안내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상장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경우 $\{(1\text{주당 순손익가치} \times 2) +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3)\} \div 5 \times \text{보유주식수}$ 로 계산한다.
- ② 상속세나 증여세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세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고 증여세는 증여일이다.
- ③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만 고려하여 평가한다.
- ④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10% 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 ⑤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5. 김상진 씨는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희망의 보유지분을 아들(김건우)에게 이전하고 사업승계 후 본인은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계획하고 있다. 다음 추가정보를 고려할 때 김상진 씨가 (주)희망 보유주식(7,000주)을 아들(김건우)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주식 평가액으로 적절한 것은? (단,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하지 않음)

〈추가정보〉

- 김상진이 아들(김건우)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주식은 7,000주이며 액면가는 주당 5,000원(김상진의 주식지분 현황은 법인 설립 시부터 주식 이전시점까지 변동 없음)
- 승계시점(D) 기준 최근 3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희망의 예상 연간 순손익액

구분	(D-3)년	(D-2)년	(D-1)년
순손익액	138,000천 원	167,000천 원	160,000천 원
1주당 순손익액	3,700원	4,300원	4,500원

※ (주)희망의 영업권평가액은 없다고 가정하고, 신용평 가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을 순손익액으로 계산하지 않았으며,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승계시점에 (주)희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70천 원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함

$$(D-1)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3 + (D-2)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2 + (D-3)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1 \div 6$$

- ① 369,400천 원 ② 376,600천 원 ③ 384,200천 원
 ④ 392,000천 원 ⑤ 398,800천 원

16. 김상진 씨는 2034년 초에 아들(김건우)에게 사업승계를 위하여 (주)희망의 주식을 증여로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의 추가정보를 고려하였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추가정보〉

- 김상진이 아들(김건우)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주식은 7,000주이며 액면가는 주당 5,000원(김상진의 주식지분 현황은 법인 설립 시부터 주식 이전시점까지 변동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희망의 7,000주에 해당하는 평가액은 30억 원으로 가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가정
- 아들(김건우)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사전증여가 없는 것으로 가정

- 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재산공제액으로 1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200,000천 원이 된다.
-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자의 상속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④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타증여재산과 합산과세되는 단점이 있다.
- 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이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17. 김상진 씨는 (주)희망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소득, 배우자 최현진 씨의 사망으로 인한 임대소득 등 합산과세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고 싶어 한다. 다음의 정보를 고려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김재무 CFP® 자격인증자가 안내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음)

〈2024년 귀속 소득 신고 관련 내역〉

- (주)희망으로부터 연간 과세 급여: 144,000천 원(근로소득금액: 128,370천 원)
- 최현진의 상가C 상속에 따른 연간 임대소득: 24,000천 원
(필요경비 10,000천 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기로 가정하며 건물분 감가상각비와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않음)
- 보통예금 등 연간 이자소득: 7,000천 원
- 상장주식 D의 연간 배당소득: 12,000천 원
- 국내 상장법인 주식의 연간 배당소득: 4,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 5,000천 원
-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

- ① 김상진은 근로소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만약 김상진이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5,000천 원을 납부한다면 750천 원을 절세할 수 있다.
- ③ 김상진의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17,600천 원이다.
- ④ 김상진의 종합소득금액은 158,670천 원이다.
- ⑤ 김상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34,144.5천 원이다.

18. 김상진 씨는 (주)희망 대표이사로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재직 중에 있다. 퇴직시점까지 10년이 남은 현재시점에서 은퇴생활 준비를 하려고 한다. 다음의 정보를 고려할 때 김상진 씨가 10년 후 (주)희망에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김상진은 10년 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1,500,000천 원을 수령할 수 있다.
- 근속연수는 31년이며, 수령하는 퇴직소득 모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참고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20년 초과	40,000천 원 + 3,000천 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100,000천 원 초과 300,000천 원 이하	61,700천 원 + 100,000천 원 초과분의 45%
300,000천 원 초과	151,700천 원 + 300,000천 원 초과분의 35%

- ① 253,854천 원 ② 254,427천 원 ③ 255,752천 원
④ 257,247천 원 ⑤ 258,488천 원

19. 김상진 씨는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주)희망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관심 있게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경리 직원이 별도로 있고 회사의 장부를 작성해 주는 세무전문가를 의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김재무 CFP® 자격 인증자가 안내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세의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법인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결산조정이란 결산서상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무조정 유형을 의미한다.
- ④ 소득처분의 유형 중 유보란 결산서상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의 차이를 의미한다.
- ⑤ 법인세 세율 적용 시 소득금액이 100억 원이라면 19% 세율이 적용된다.

20. 김상진 씨는 은퇴생활을 넉넉하게 보내기 위하여 임대소득을 증대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신규 상가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 기간 중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신규 상가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취득세와 재산세 계산 시 김상진 씨는 신규 상가 외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

〈추가 정보〉

- 김상진은 2024년 7월 중 신규 상가F를 매매로 취득할 예정(실거래가액 750,000천 원)
- 신규 상가F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분 400,000천 원, 건물분 350,000천 원
- ※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되는 세금은 고려하지 않음
- ※ 신규 상가F 재산세 적용 세율: 토지분 0.2%, 건물분 0.25%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하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① 김상진의 경우 유상거래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② 재산세는 해당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③ 김상진이 신규 상가F에 대하여 2024년에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는 1,172.5천 원이다.
- ④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의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김상진이 신규 상가F를 취득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는 34,500천 원이다.

저자

- **방상진**, CFP® kfqfsa@naver.com | 재무설계 원론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現 KFQC 대표재무사
現 FP협회 정회원, 협회강사(FP Pioneer)
現 FPSB 윤리위원
前) ㈜KFQ 수석지점장
前) AIG 'Key Sales Leader'
- **박균성**, CFP® park4908@hanmail.net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호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現 교보생명 GFP사업부 부장
現 한국벤처창업학회 이사
現 희망장학재단 이사
- **곽도현**, CFP® silent0506@nate.com | 투자설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수료
투자자산운용사, CIAA
現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 차장
前) 유진투자증권
前) 우리은행
前) 키움증권
- **김은주** analyst21@naver.com | 부동산설계
부동산학박사, 공인중개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부동산투자관리 전공)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부동산금융투자 전공)
現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前) 한국투자신탁운용 부동산펀드운용역
前)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Cushman&Wakefield Korea)
前) 세빌스 코리아(Savills Korea)

- **홍순태** whst11@daum.net | 은퇴설계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충남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現) 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금융학과 겸임교수
現)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강사
前)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과, 경영대학원MBA과정 겸임교수
前) 대한생명 근무
-

- **박춘발**, CFP® 00foot@naver.com | 세금설계, 상속설계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 박사과정
現 세무회계이수 대표 세무사
現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위원
前) 웅지세무대학교 경영세무정보학부 겸임교수
前) 한국직업개발원 세무회계 전임 교수
-

- **곽종규** kwakjonggyu@hanmail.net | 상속설계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現 KB증권 리츠사업부
前)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前) 금융연수원 강사
-